國語學叢書 32

고흥방언 음운론

배주채

태학사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서울대, 1994년 8월)인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군데 손을 댄 곳이 있으나 되도록이면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두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나 고치고 다듬는 일이 쉽지 않은 듯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같은 내용을 담은 이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치는 일일 것 같아서였다.

저자는 국어학에 첫발을 들여놓을 무렵 통사론에 뜻을 두고 있었다. 대학 3학년 때 임홍빈 선생님으로부터 현대국어 통사론을 배우면서 그 뜻을 더욱 굳혔던 것 같다(졸업논문 지도교수셨던 임홍빈 선생님께 졸업논문 주제로 처음에 상의드렸던 것은 부정문이었다. 나중에 여의치 않아 주제를 바꾸었지만 그것이 씨가 되었는지 최근에 부정문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흥방언의 장형부정문」, 『애산학보』 20, 1997). 지난 국어학회 겨울연구회에서 선생님께 그 논문의 별쇄본을 드릴 때는 마치 오래 밀린 졸업논문이라도 내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음운론에 뛰어들게 된 데는 이병근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교과과정 개편 때문에 2학년 때 개설되지 않아 듣지 못했던 <국어음운론>을 4학년 2학기에 2학년들과 함께 이병근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의 강의 중 특히 중화와 평음화, 폐쇄음화에 대한 것은 상당한 홍

미를 불러일으켰다. 트루베츠코이의 중화 개념이 국어의 이른바 음절말 자음의 중화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평음화와 폐쇄음화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에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답안을 쓰면서 국어의 중화 문제를 석사논문에서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석사논문에서는 중화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더 큰 이론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하게 되었다(「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1989).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한 학기 전에 부임하신 최명옥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제 막 음운론으로 전향한 저자로서는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우선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일반음운론에 관한 원서들을 무작정 읽었다. 그러나 이론을 어떻게 국어자료에 적용해야 할지 아는 바가 없었다. 석사과정 1학년 2학기 때 최명옥 선생님으로부터 <국어음운론 연구>를 들으면서 연구사 정리의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통해 기존의 연구로부터 문제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기초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논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선생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세심한 지도를 받으면서 배운 '학문에 대한 성실한 자세'는 저자가 그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한 순간도 잊지 않은 귀중한 가르침이었다.

석사논문을 쓰면서 국어음운론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자료를 다루지 않으면 박사논문을 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저자 자신이 전남방언을 쓰는 원어민인 데다가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가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자의 박사논문의 주제는 자연히 전남방언의 음운론에 관한 것이 되었다. 우선 1991년에 고향인 고흥군의 방언자료를 가지고 모음론과 운소론을 정리했다(「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

운론적 고찰」, 「고흥방언의 음장과 음조」). 석사논문이 자음론이었으므로 음운론의 다른 분야도 두루 다루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3년에 매개모음이라는 형태음운론적 현안에 대해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나서야 이론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다(「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저자는 어디까지나 방언자료에 바탕을 둔 '음운론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애초에 전남방언 전반을 다루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고흥군의 방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저자의 연구태도는 설명과 이론화 위주가 아닌 기술과 체계화 중심이었다. 아직 보고되고 정리되지 않은 방언자료에 대해서는 설명보다 기술을 앞세우는 것이 학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믿었고 지나친 이론화의 추구는 객관적인 기술을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선부른 설명과 해석을 제시해 나중에 후회하게 된 곳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술적 태도가 지나쳤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다. 또 공시음운론이라는 논문 전체의 주제 때문에 통시음운론적인 내용이나 형태론적인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그 중 한 부분을 1997년에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고흥방언의 용언어간의 축소」,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결코 만족스런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초의 허술한 구상과 논의가 이만큼이라도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최명옥 선생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덕택이다. 저자가 모자란 탓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워내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울 뿐이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석사논문에 이어 거칠디거친 글을 또 읽으셔야 했던 김완진 선생님, 논문을 조금이라도 더 논문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신 이병근 선생님, 그리고 논문의 부실한 부분들을 끄집어내 주신 정연찬 선생님과 이승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밖에도 저자는 이기문 선생님, 안병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국어학계를 이끌어오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대하는 복을 누렸다. 뛰어난 여러 선후배들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으

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다행이다. 이 모든 분들께 학문으로나마 평생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끝으로 보잘것없는 논문을 책으로 낼 수 있도록 국어학총서에 넣어주신 국어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1998. 2.

저자 씀

차 례

1. 서론 ··········· 11

1.1. 연구목적 ——— • 11
1.2. 연구방법 ——— • 12
1.3. 연구대상 ——— • 14
1.4. 논의의 구성 ——— • 16
전라남도 및 고흥군 지도 ——— • 18

2. 음운체계 ··········· 19

2.1. 자음 ——— • 19
2.2. 모음 ——— • 25
2.3. 반모음과 이중모음 ——— • 31
2.4. 음소체계 ——— • 34
2.4.1. 자음체계 ——— • 34
2.4.2. 모음체계 ——— • 36
2.4.3. 반모음체계와 이중모음체계 ——— • 37
2.5. 운소체계 ——— • 40

3. 음절 ··41

3.1. 음절구조 ———• 41
3.1.1. 음절성분과 음절구조 ———• 41
3.1.2. 음절구조제약 ———• 42
3.2. 음절연결 ———• 46
3.2.1. 음절경계 ———• 46
3.2.2. 음절연결제약 ———• 50
3.3.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 51

4. 곡용에서의 음운현상 ······································57

4.1. 조사의 음운구조 ———• 57
4.2. 명사의 음운구조 ———• 61
4.3. 음운현상 ———• 65

5. 활용에서의 음운현상 ······································69

5.1. 어미의 음운구조 ———• 69
5.1.1. 자음어미 ———• 70
5.1.2. 모음어미 ———• 71
5.1.3. 매개모음어미 ———• 74
5.2. 단형어간 ———• 81
5.2.1. 자음어간 ———• 81
5.2.1.1. 폐쇄음어간 ———• 86
5.2.1.2. 치찰음어간 ———• 90
5.2.1.3. 비음어간 ———• 94

5.2.1.4. ㅎ어간 ——— • 95
5.2.1.5. 자음군어간 ——— • 97
5.2.2. 모음어간 ——— • 101
5.2.2.1. '으'어간 ——— • 102
5.2.2.2. '오'어간과 '우'어간 ——— • 109
5.2.2.3. '아'어간 ——— • 112
5.2.2.4. '애'어간과 '외'어간 ——— • 116
5.2.2.5. '이'어간과 '위'어간 ——— • 119
5.3. 다형어간 ——— • 123
5.3.1. ㄹ다형어간 ——— • 123
5.3.2. ㅎ다형어간 ——— • 129
5.3.3. ㅂ다형어간 ——— • 130
5.3.4. ㄷ다형어간 ——— • 131
5.3.5. '르'다형어간 ——— • 132
5.3.6. '아'다형어간 ——— • 133
5.3.7. '오'다형어간 ——— • 136
5.3.8. '이'다형어간 ——— • 136
5.3.9. 지정사어간 ——— • 137
5.4. 음운현상 ——— • 139
5.4.1. 음운과정의 목록 ——— • 140
5.4.2. 자음에 관한 음운과정 ——— • 143
5.4.3. 모음에 관한 음운과정 ——— • 145
5.4.4. 반모음에 관한 음운과정 ——— • 151
5.4.5. 음장에 관한 음운과정 ——— • 155
5.4.6. 어간별 음운과정 목록 ——— • 157
5.4.7. 음운과정간의 관계 ——— • 163

6. 발화에서의 음운현상 ······ 167

6.1. 운율적 음운현상 ——• 167
6.1.1. 음조 ——• 168
6.1.1.1. 음조의 실현 ——• 168
6.1.1.2. 음조구 ——• 174
6.1.2. 음장 ——• 182
6.1.2.1. 어휘적 장음의 실현조건 ——• 182
6.1.2.2. 표현적 장음 ——• 184
6.1.3. 강세 ——• 186
6.1.4. 억양 ——• 190
6.1.4.1. 하강억양 ——• 190
6.1.4.2. 평탄억양 ——• 194
6.2. 음소적 음운현상 ——• 199

7. 결론 ······ 203

참고문헌 ——• 208

부록1 : 조사 목록 ——• 214
부록2 : 어미 목록 ——• 216
부록3 : 용언어간 목록 ——• 222

찾아보기 ——• 257

1. 서론

1.1. 연구목적

國語의 實體는 지역방언이든 사회방언이든, 집단의 방언이든 개인방언이든 (넓은 의미의) '方言'이라는 모습으로만 실현된다. 국어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은 살아 있는 국어인 다양한 형태의 방언을 바탕으로 해야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표준어나 중앙어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적 연구도 다른 하위방언들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方言研究의 한가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

地方의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그리고 그러한 연구라면 모두 방언연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은 여러번 지적된 바 있다. 방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方言學的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과 一般言語學的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구분되어야 하고 전자만이 진정한 방언학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이익섭 1981:4~5, 이승재 1986, 서정목 1990, 최명옥 1990). 전자는 적어도 둘 이상의 방언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후자는 방언을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언어로 본다.[1] 어떤 한

---

1) 이 두가지 연구에 대해 이익섭(1981)은 대체로 전자를 언어지리학적 연구, 후자를 기술언어학적 연구라고 부르고 있고, 이승재(1986)은 전자만 방언학이라 하고 전자와 후자를 합쳐 방언연구라 부르고 있으며, 최명옥(1990)은 전자를 방언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 후자를 일반언어학적 연구방법에

방언을 연구할 때 두가지 연구 중 하나만으로 그 연구가 完遂될 수는 없다. 방언학적 방언연구는 다루고 있는 각 방언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방언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가능하고, 일반언어학적 방언연구 또한 주변 방언에 대한 방언학적 연구에 따라 대상 방언의 범위가 확인되어야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언어학적 연구만 가지고는 그 방언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는 전라남도의 한 하위방언인 高興方言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방언연구이다. 일반언어학적 방언연구는 언어의 여러 층위, 즉 음운, 문법, 어휘 등에 걸쳐 가능하다. 그리고 각 층위에 대해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가 가능하다. 우리는 여러 층위를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音韻面에 한정한다. 그리고 방언의 현재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통시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共時的 硏究에 한정한다.

1.2. 연구방법

방언을 獨自的인 體系를 가진 언어로 보게 된 것은 국어 방언학사에서 뒤늦은 일에 속한다. 방언을 중앙어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보는 방언관이 오랫동안 국어 방언학을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에 대한 一般言語學的인 音韻論 硏究의 출발 또한 늦어지게 되었다. 경상방언 성조론의 경우 허웅(1954)가 일반언어학적 관점을 취했던 것은 예외적으로 이른 업적이었다.

우리의 연구와 같이, 한 地域方言에 대한 共時音韻論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일반언어학적 연구는 이병근(1970)에서 비롯된다. 이병근(1970)은 경기방언을 대상으로 構造言語學의 이론을 가지고 ①음운단위(음소, 운

의한 연구라고 부르고 있다. 전자를 巨視方言學的 연구, 후자를 微視方言學的 연구라 불러 구별하는 것이 더 선명할 듯하다.

소, 자질 등)의 체계, ②음운단위의 배열 유형, ③곡용, 활용, 파생, 복합에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논의했다. 또 이익섭(1972)는 강릉방언의 특징적인 형태음운론적 현상들을 傳統文法的인 그리고 記述言語學的인 관점에서 정밀하게 기술하였다. 이로써 강릉방언에 특유한 여러 가지 교체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명옥(1974)는 이병근(1970)의 기술 모델을 따르되 ③(형태음운론적인 교체에 대한 기술)을 음운론적으로 확대하여 삼천포방언을 기술했다. 여기서는 形態音韻論的인 交替를 보는 觀點이 위의 두 논문에서와 달라졌다. 위의 두 논문에서는 형태소의 교체라는 형태론적인 시각을 가졌던 데 비해, 여기에서는 형태소의 연결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이라는 音韻論的인 視角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음운현상을 音韻規則化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최명옥(1974)의 모델은 이승재(1980a)에 와서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기술과 설명의 정밀화에 이르게 되었다. 기술의 모델은 ①음운체계, ②형태소구조제약, ③자음연결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 ④모음연결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승재(1980a)는 음운체계와 음운규칙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론적인 심화를 보여주었다.

한 지역방언에 대한 공시음운론 전반을 다루는 모델로서 기존에 확립된 것은 두가지 점에서 改善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철저한 音韻現象別 記述은 음운론적 기술과 형태론적 기술을 동떨어지게 한다. 즉 형태론적인 기술에서 곡용, 활용, 단어형성 등의 범주가 중심이 될 때 각 범주와 관련된 음운현상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 각 방언의 연구자에 따라 이론적 태도가 달라 똑같은 어형에 대해 음운과정을 달리 상정하고 기술하게 된다면 방언간의 비교가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우선 음운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環境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어날 수 있는 음운과정이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환경별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다.[2)]

둘째, 單語 次元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에만 집중하여 發話 次元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다. 방언연구야말로 발화 자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이므로 생생한 구어 자료의 음운론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발화 차원의 운율적인 음운현상은 각 방언의 음운론적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는 從來의 硏究方法을 따르되 이 두가지 점을 보완한다. 음운체계를 파악하고, 음소배열의 방식, 형태소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을 고찰한다. 음운현상을 고찰할 때는 단어 차원의 음운현상을 곡용과 활용으로 나누어 다루고 발화 차원의 음운현상을 따로 다룬다.

1.3. 연구대상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全羅南道 高興郡의 노년층의 방언이다. 高興方言은 전남방언 내에서 特殊한 位置에 있다. 전남방언의 분화상과 방언구획을 논의한 이기갑(1986)에 따르면 전남방언은 西部方言(곡성, 화순, 보성과 그 서부 지역)과 東部方言(구례, 광양, 승주, 여천, 고흥)으로 우선 나뉘고 이차적으로 북부방언과 남부방언으로 나뉜다. 서부방언에서는 '에'와 '애'가 구별되지 않고 '가위'를 '가새'라 하는 반면, 동부방언에서는 '에'와 '애'가 구별되고 '가위'를 '가시개'라 한다. 또 북부방언의 '허다(爲), 찧:다(搗)'에 대해 남부방언은 '하다, 찍다'를 쓴다. 고흥군은 승주서부, 보성동부와 함께 동부방언권과 남부방언권이 교차되는 東南部方言圈을 대표한다. 특히 고흥군이 고흥반도와 그 부속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孤立方言的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이기갑 1986:139). 그 예로 '하금(하품), 또배~

2) 안병희(1959/1978)은 환경별 기술의 모델을 취하여 15세기 국어 활용어간의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성공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또배기(따리), 싹-(김치가 익다), 부뚝(부뚜막), 당글개(고무래), 해(누구의 것)' 등은 고흥방언에만 한정된 어형으로 보고되었다.

전남방언의 4대 하위방언 중의 하나를 대표하는 고흥방언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연구는 아주 미흡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어휘조사(小倉進平 1944, 김형규 1974)나 전남 전체의 어휘조사(최학근 1962, 이돈주 1978, 이기갑 1986)에서 고흥방언의 語彙가 산발적으로 보고된 정도에 그쳤다. 최근에 와서 기세관(1986)에서 나로도 지역(봉래면)의 어휘자료가 보고되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1) 『한국방언자료집 6 : 전라남도 편』에서 체계적인 어휘조사 자료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硏究論文으로 송하진(1985)의 지명연구와 송하균(1991)의 통시적 이중모음 연구가 있다. 송하균(1991)은 7개의 모음과 6개의 이중모음만 보고하고 있는 점에서 노년층의 언어가 가진 순수한 고흥방언의 특성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음운, 문법, 어휘의 어느 방면에서도 고흥방언에 대한 本格的인 硏究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3]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이 방언의 모음음운론을 간략히 기술하고(배주채 1991a) 운율적 요소를 고찰한 바 있다(배주채 1991b). 그 과정에서 이 방언의 음운론 전반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收集된 것이다. 提報者는 노년층에서 구하였다. 노년층이야말로 이 방언의 순수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한 방언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곧 사라지게 될 자료를 보존한다는 목적도 가진다. 調査地點은 내륙에 위치한 점암면 대룡리와 남부해안에 위치한 도화면 내발리이다(18면의 지도 참조). 전자는 전형적인 농촌이고 후자는 반농반어가 이루어지는

---

3) 전남의 다른 지역방언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도 그다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이기갑 1992). 전북방언의 경우 통시음운론적인 연구는 물론 군단위의 공시음운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과 대조된다.

어촌이다. 音韻論的인 면에서 두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내륙 지역(고흥읍 성촌리, 도덕면 가야리, 도양읍 관리, 도화면 당오리, 두원면 신송리)에 대한 보충 조사에서도 개인차 이상의 음운론적인 분화(예를 들어 지역에 따른 음운론적 분화와 같은 것)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점암면 대룡리 (1994. 1. 16~17 조사)
  신옥식 : 남, 77세. 조부모가 점암면 연등리에서 이사 옴. 부인은 점암면 모룡리에서 시집 옴.
  진선순 : 여, 84세. 필자의 외할머니. 두원면 신송리에서 시집 옴. 남편(작고)은 대룡리에서 여러대째 살았음.
도화면 내발리 (1994. 1. 19~20 조사)
  조봉룡 : 남, 74세. 6대째 살고 있음. 부인은 도화면 지죽리에서 시집 옴.
  보조제보자 : 김인수(남, 86세), 윤지구(남, 82세), 강용준(남, 75세). 모두 여러대째 살고 있다고 함.

1.4.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서론(1장), 본론(2장~6장), 결론(7장), 부록으로 구성된다. 2장(음운체계)에서는 音素의 목록을 확인하고 체계를 수립하며 韻素의 존재를 조사한다. 3장(음절)에서는 음소가 連結되는 방식을 음절의 구조와 음절의 연결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한다. 음소가 연결되는 데 어떤 제약이 존재하고 그 제약들이 어떤 음운현상의 동기가 되는지 살핀다. 4장(곡용에서의 음운현상)은 名詞와 助詞의 음운구조를 확인하고 그 연결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다룬다. 5장(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은 語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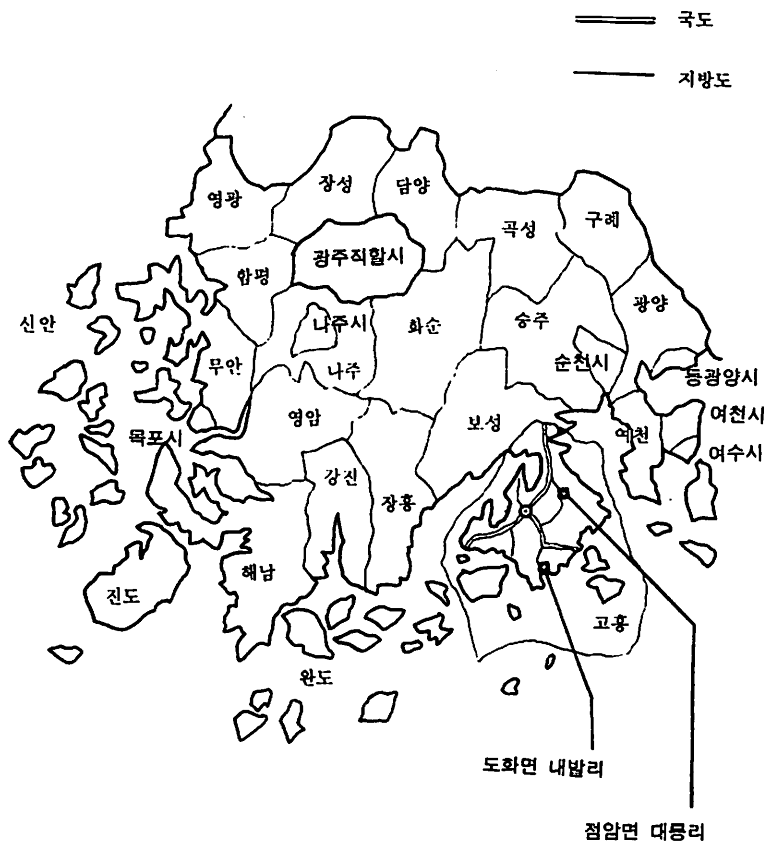
의 음운구조를 확인하고 語幹末音의 구조에 따라 음운현상을 고찰한다. 6장(발화에서의 음운현상)은 단어보다 큰 단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음운현상을 고찰한다. 운율적인 음운현상과 음소적인 음운현상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7장에서는 6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고 마무리한다. 附錄은 형태음운론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형태소들(조사, 어미, 용언 어간)의 목록이다. 특히 4장과 5장에 대한 부록이 된다.

單語形成(파생과 복합)에서도 음운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이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어휘조사와 단어형성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가 앞서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둘째, 단어형성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은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가진 것이 많아 통시음운론적인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方言形을 적는 表記方式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방언형을 音聲轉寫할 때는 음성기호를 사용하고 音素轉寫할 때는 특별한 경우(반모음 w, y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한글을 사용한다. 한글로 적은 것이 음소전사임을 분명히 나타내고자 할 때는 / /으로 표시한다. 단어, 구, 문장 등을 음성전사나 음소전사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방언 맞춤법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적는다. 다만 여기에 장음을 장음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렇게 적힌 방언형이 음소적으로나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혼동되지 않는다. 표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맞춤법 표기 : 에러우꺼이 한나도 없: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음 소 전 사 : /에러우꺼이 한나도 업:써/
음 성 전 사 : [erəuk'əi hannado ə:ps'ə]

【전라남도 및 고흥군 지도】



국도
지방도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광주직할시
함평
신안
나주시
화순
승주
광양
무안
나주
순천시
동광양시
영암
보성
여천시
목포시
여천
여수시
강진
장흥
해남
진도
고흥
완도
도화면 내발리
점암면 대룡리

2. 음운체계

음운론적인 논의의 첫 단계는 음운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音素와 韻素의 目錄을 확인하고 그 體系를 수립하는 일이다. 음소는 자음, 모음, 반모음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2.1. 자음

이 방언의 子音目錄은 대부분의 다른 방언과 같이 다음 19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다.[1]

장애음 :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ㅈ, ㅉ, ㅊ, ㅅ, ㅆ, ㅎ
공명음 : ㅁ, ㄴ, ㅇ, ㄹ

각 자음의 音價는 중앙어와 거의 같으나 몇가지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ㅅ은 모든 前舌母音(이, 에, 애, 위, 외)과 전설모음을 가진 이중모음 '웨, 왜' 앞에서 口蓋音(정확히는 치조구개음) [ʃ]로 실현된다.[2]

---

1) 경상도의 일부 지역의 방언에 ㅅ과 ㅆ의 구별이 없는 것만 빼면 현대국어의 모든 방언의 자음목록도 이와 같다.

2) 표기의 편의상 치조구개마찰음을 [ɕ] 대신 [ʃ]로 적는다. 중앙어에서는 ㅅ이 '이' 앞에서 [ɕ](치조구개음)로, '위' 앞에서 [ʃ](구개치조음)로 나고 그밖의 모음 앞에서 [s](치조음)로 난다(허웅 1965:35, 144, 1985:41~2, 154). 대체로 이 방언의 ㅅ이 더 구개 쪽에서 발음되는 것이다.

시[ʃi] : 시리(시루), 신(신발), 심:심하다, 무시(무), 당신(當身)
세[ʃe] : 셋:, 섞인다(섞인다)
새[ʃɛ] : 새(新), 색(色), 샘:(泉), 새비(새우)
쉬[ʃü] : 쉬(쉬파리의 알), 쉬운(五十), 쉭인다(숙인다), 쉽:시다(休)
쇠[ʃö] : 쇠(鐵), 쇠앙치(송아지), 쇤:다, 부쇠(부시)
쉐[ʃwe] : 쉐:(쉬어)
쇄[ʃwɛ] : 쇄:(쇠어)

ㅆ도 모든 전설모음 앞에서 [ʃ']로 실현된다. '에, 애, 외' 앞에서는 조음위치가 치조 쪽으로 조금 전진하여 [s']에 가깝게 발음되기도 한다. 전설모음을 가진 이중모음 '웨, 왜' 앞에 ㅆ을 가진 형태소는 없으나 역시 ㅆ이 [ʃ']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씨[ʃ'i] : 씨(種), 씨엄씨(시어머니 卑語), 씹는다, 각시/각씨/[3]
쎄[ʃ'e] : 쎄(혀), 쎈찬하다(시원찮다), 속: 쎅인다(속썩인다)
쌔[ʃ'ɛ] : 쌔: 불었다(아주 흔하다), 쌩것(날것)
쒸[ʃ'ü] : 쒸시(수수), 쒸염(수염), 쒸신다(쑤신다)
쐬[ʃ'ö] : 쐬약(박는 쐐기), 쐬인다(바람 쐰다), 적쇠/적쐬/(석쇠)

ㄴ은 뒤에 반모음 y가 오면 그것과 축약되어 口蓋音(정확히는 치조구개음) [ɲ]로 나타나고 비어두 '이' 앞에서도 [ɲ]로 실현된다. 그밖에는 [n]으로 실현된다. 어두음절의 '이' 앞에서도 [n]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냐[ɲa] : 가냐(가느냐), 갔냐(갔느냐), 소독약/소동냑/

3) / /는 기저음소표시(기저형)을 나타내는 데 쓰지 않고 표면음소표시를 나타내는 데 쓴다. 기저음소표시는 // //로 표시할 것이다.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 참조.

녀[ɲə] : 이녁(자기 자신), 백여수/뱅녀수/(백여우), 임념(잇몸)
뇨[ɲo] : 담:요/담:뇨/, 영업용/영엄뇽/
뉴[ɲu] : 종:류/종:뉴/, 십륙/심뉵/(十六), 감뉼(귤), 낸:늉(나중)
내[ɲE] : 아내(아니야)
비어두의 니[ɲi] : 양님(양념), 숭님(숭늉), 큰일/큰닐/, 만:이(많이), 가니 마:니(가느니 마느니), 좋:니라(좋으니라), 손이(手-이)
어두의 니[ni] : 니(너), 니은(ㄴ), 니야까(리어카)

[ɲ] (앞)뒤의 모음은 鼻母音으로 동화된다. 모음 사이의 [ɲ]은 그 閉鎖性이 약화되기 쉽다. 폐쇄성이 탈락하는 일도 흔하다. [ɲ]의 폐쇄성이 약화되거나 탈락하더라도 鼻音性과 前舌性은 남는다. 비음성은 (앞)뒷모음에 얹히며, 전설성은 뒷모음이 '이'가 아니면 [ɲ]이 있던 자리에 반모음 y로 나타나고 뒷모음이 '이'이면 '이'의 전설성에 흡수되어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4)

가냐 [kãɲã] → [kãỹã]
만:이(많이) [mã:ɲĩ] → [mã:ĩ]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난다.5)

ㄴ으로 끝난 명사+이(주격조사) : 돈:-이, 혼(魂)-이, 우산-이, 송진-이
연결어미 : -느니~-니(-느니), -니라고(-느라고), -으니, -간디~가니(-관대), -드니~디니(-더니), -웅가니(-는가 봐), -으까니~으까

4) 이 방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이기갑(1991a)에서 모음 '이' 앞의 ㄴ탈락이 전남의 남부 일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5) 경상방언에서도 [ɲ, ŋ]의 탈락과 비모음화는 흔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선(1967), 최임식(1992) 참조.

미~으깨미(-을까 봐)[6]
종결어미 : -니라(원칙), -니(원칙), -냐(의문), -디냐(의문)
부사 : 가만이(가만히), 부지런이(부지런히), 쉴찬이(수월찮이; 상당히), 원언이(완연히), 일찌거니, 쬐:깐이(조금), 찬:찬이
기타 : 아부니(아버지), 어무니(어머니), 할무니(할머니), 하나부니(할아버지), 가마니, 주마니(주머니), 끄니(끼니), 주니(싫증), 군인, 선영(先塋), 저녁~저닉, 아니(부정 응답)

[ɲ]의 폐쇄성이 모음 사이에서 잘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데 대해서 調音音聲學的인 理由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듯하다. 모음 사이의 [ɲ]은 전설의 넓은 면이 경구개의 넓은 면과 접촉하여 입으로 나오는 기류를 막고, 목젖을 열어 코로 기류를 내보내면서 성대의 떨림이 주로 코안에서 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혀를 경구개에서 다시 떼내는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뒷모음의 발음을 위해 경구개에 붙였던 혀를 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동작이다. 혀와 경구개의 接觸面이 넓기 때문에 단번에 떼기 어려운 것이다. 언어보편적으로 경구개에서 폐쇄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고 파찰음을 발음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파찰음은 점진개방(gradual release)의 특성을 가지는데(Anderson 1974:298) 넓은 접촉면이 분리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구개에서 파찰음의 발음은 쉬운데 비음의 발음이 어려운 것은 구강의 空氣壓力이 낮기 때문이다. 파찰음의 발음에서는 구강의 공기압력이 높아 그 압력을 이용하여 혀를 경구개에서 쉽게 뗄 수 있으나, 비음의 발음에서는 공기가 비강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강의 공기압력이 낮아 혀를 경구개에서 떼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ɲ]을 발음할 때 아예 전설을 경구개에 붙이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 약화되는 것

6) '-간디~가니, -드니~디니, -응가니, -으까니~으까미~으깨미'에서는 '니'가 온전히 [ɲi]로 발음되는 일이 거의 없고 비모음으로만 실현된다.

이다.7)

비음과 모음 사이의 [ɲ]은 탈락하지 않는다.

갔냐/간냐/, 잡냐/잠냐/, 녹냐/농냐/
삼년, 항렬/항녈/, 담:요/담:뇨/, 큰일/큰닐/

이것은 중앙어에서나 이 방언에서 ㅂ, ㅈ, ㄱ이 모음 사이에서 각각 마찰음 [β, ʒ, γ]로 약화되는 일이 있지만 비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실과 평행적이다.

ㅇ[ŋ]도 (앞)뒷모음을 鼻母音으로 동화시킨다. 모음 사이의 ㅇ의 閉鎖性 역시 잘 약화되고 탈락한다. 그런 경우에 鼻音性만 (앞)뒷모음에 남기며 後舌性은 사라진다.

방애(방아) [pãŋẼ] → [pãẼ]
호맹이(호미) [homẼŋĩ] → [homẼĩ]

[ŋ]의 폐쇄성이 모음 사이에서 잘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데 대해서도 調音音聲學的인 理由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ŋ]은 많은 언어에서 종성으로만 나타나고 초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ŋ]은 후설을 연구

---

7) 최임식(1992)도 음성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므로 국어의 /n/, /ŋ/이 음절말에 위치할 경우에는 내파화에 따른 폐쇄력에 의하여 비모음화의 실현을 거부하는 데 비하여 비모음화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들 비자음이 음절초에 위치함으로써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후행모음의 조음을 위한 구강의 개방에 의하여 폐쇄력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142면)

그러나 이것은 [m, n]이 모음 사이에서 약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개에 붙였다 떼어 발음한다. 軟口蓋는 살이 무른 부분이다. 또 후설은 혀의 앞부분보다 움직임이 둔하다. 그래서 후설을 살이 무른 연구개에 붙였다 떼는 동작이 조금 힘이 든다. 더구나 후설과 연구개를 붙여, 후두를 통해 나오는 기류를 막아 가두는 구강의 공간은 극히 좁다. 비강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남은 공기가 이곳에서 만드는 壓力은 후설을 연구개에서 떼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모음 사이의 ㄱ이 다른 폐쇄음이나 파찰음에 비해 마찰음으로 더 잘 약화되는 것(허웅 1985:192)과 평행적이다. 그러므로 [ŋ]의 폐쇄성도 모음 사이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시적으로 ㄴ, ㅇ의 약화와 관련이 없는 鼻母音이 감탄사 '잉(응), 함(암!, 그럼!)'에 나타난다.8)

> 나락 다: 훑았소?(탈곡했어요) – 잉.(응. 긍정의 대답. 평탄억양)
> 대:자(과연) 맛나요 잉. (확인의 의미. '잉'에 강세 있음. 하강억양)
> 손죽도(巽竹島)도 사:람이 사:요?(살아요) – 함!(그럼! 강한 긍정의 대답. 강세 있음. 하강억양)

이들의 종성 ㅇ, ㅁ은 실현되는 일이 없고 모음은 항상 비모음으로만 실현된다. 잉 [ĩ:], 함 [hã:].9) 그래서 基底形에 비모음을 인정하는 것이

---

8) '함'은 '하먼'(하면)에서 표준어의 '그러면>그럼'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듯하다. 경상방언의 '하모'에 해당한다. 한편 이돈주(1978:137)에는 표준어의 '암'에 해당하는 고흥방언 어형이 [a:min]으로 보고되어 있다.

9)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장음은 강세 또는 문말억양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잉'이 대답하는 말로 쓰일 때는 항상 평탄억양이 걸려 음성적인 장음을 가지게 된다. 종결어미 뒤에 붙어 확인의 의미를 더해줄 때의 '잉'은 대부분 강세를 받고 하강억양으로 발음되는데 강세를 받지 않을 때는 평탄억양으로 발음된다. 이때는 강세나 평탄억양이 음성적으로 장음을 유발한다. '함'은 평탄억양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강세를 받으며 하강억양으로 발음될 때도 있다. (강세와 억양에 대해서는 6장 참조.)

정확한 분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비모음을 음소로 인정해야 하게 되는데 감탄사라는 특수한 단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체계 밖의 例外的인 현상으로 남겨둔다.

2.2. 모음

이 방언의 母音目錄은 다음의 10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발견되는 최다 모음목록과 일치한다.[10]

전설모음 : 이, 에, 애, 위, 외
중설모음 : 으, 어, 아
후설모음 : 우, 오

'으, 어, 아'의 조음위치는 후설이라기보다 중설이다. 각각 [ɨ, ə, a]로 표기할 수 있다. '우, 오'보다 더 앞쪽에서 발음된다. '이, 에, 애'와 '위, 외'가 거의 같은 전설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에 비하면 '으, 어, 아'와 '우, 오'의 차이는 뚜렷하다.

'에'와 '애'의 대립은 非語頭에서 극히 不安定하다. 비어두에서 '에'[e]와 '애'[ɛ]는 변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음성적으로 [e, ɛ, E]가 모두 나타나지만 변별성이 없다는 것이다.[11] 화자에 따라 심리적으로 비어두의 '에'와 '애'를 구별하는 일이 있으나 두 모음을 구별되게 발음하지는 않는다. 그런 화자들에게는 음소적 대립이 心理的으로는 존재하나 音聲

10) 이기갑(1986:21~2)은 전남의 동부지역인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 보성과 함께 곡성의 일부지역에서 '에'와 '애'가 구별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의 모음수가 10개임을 지적하였다.
11) [e]는 고모음 '이, 위' 뒤에서 잘 들린다. [pie](비-에), [küe](귀-에).

的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음성적으로 변별되지 않는 두 음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음소적 대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언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세대간에 音韻變化가 일어나는 방식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부모세대가 조부모세대의 말을 듣고 음운체계를 형성할 때 조부모세대가 음성적으로 두 음소를 구별되게 발음하면 부모세대는 심리적으로 두 음의 음소적 대립을 배우게 된다. 어떤 이유에선가 부모세대에서 그 두 음이 心理的으로 음소적 대립을 유지하지만 音聲的으로 잘 구별되지 않거나 똑같이 발음되게 되면 자녀세대는 두 음이 음소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세대는 두 음을 변별하지 못하게 되어 두 음소가 合流하게 된다. 이때 부모세대나 자녀세대는 音韻論的인 世代差를 느끼지 못하기 쉽다. 부모세대는 같은 세대끼리의 언어사용에서나 다른 세대와의 언어사용에서나 그 두 음의 차이를 음성적인 정보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상황과 같은) 非音聲的인 정보에 의해 인식하며,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서도 두 음이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어두의 '에:애'의 대립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가진 화자에 대해서나 가지지 않은 화자에 대해서나 인정할 수 없다. '에'와 '애'가 변별의 기능을 이미 喪失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2]

---

12) '달개-~달기-'(달래다)에서 '달개->달기-'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비어두의 '에:애'의 대립이 없어진 데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개-'의 '-아'활용형(용언어간에 어미 '-아'가 붙은 어형)은 '달개'이다. 만약 어간이 '달기-'라면 1음절 '이'말음어간의 예(기:-어→게:, 디:-어→데:)에서 보듯이 어미 '-아'가 '에'로 실현되어 '달게'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달개'를 '달게'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달개'에서 어간 '달기-'를 역형성한 것이다. '달개'와 '달게'가 구별되지 않는 데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짬:매-~쨈:매-~쨈:미-'(묶다, <*잡매-)에서도 '짬:매->쨈:매->쨈:미-'의

'에'와 '애'의 대립은 語頭에서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대립이 사라질 조짐이 나타난다. '에'의 음가가 [e]로 확고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다. '에'는 短音일 때 혀의 위치가 낮아져 [e˅] 또는 [E]처럼 발음되는 일이 많다. 그런 경우에 화자가 흘려 말하거나 청자가 귀를 기울여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에'인지 '애'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다. 長音 '에', 즉 '에:'는 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져 '이:'에 가깝게([e^:]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발음된다. 그 영향으로 通時的인 '에:>이:'의 변화가 일어난 단어도 있다.[13] 다음 단어들의 '이:'는 '에:'로 발음되는 일이 드물다.

기:(게 蟹), 질:(제일), 지:새(제사), 시:상(세상), 시:수(洗手), 진:장(젠장), 니:가(네-가), 지:가(제-가), 비:개(베개)[14]

다음 예들은 '에:>이:'의 변화를 완전히 겪지 않아 화자에 따라, 더러는 같은 화자에게서도 '에:'와 '이:'의 동요를 보인다.

셋:, 넷:, 세: 개, 네: 개, 옛:날, 멘:사무소(면사무소), 메:다~메:따(미터), 세:배(세배), 게:산(계산), 헨:재(현재)

변화를 추측할 수 있고 여기서도 비어두의 '에'와 '애'의 혼동에서 '쨈미-'가 생겨났으리라 생각된다.

13) '에:>이:'는 중부방언과 전북의 북부방언에서 '어:>으:'와 함께 활발하게 일어난다(이승재 1987). 이 방언에서도 장음 '에:'만이 '이:'로 변화할 수 있고 단음 '에'는 '이'로 변하지 않는다.

14) 장음의 '여:'나 '예:'도 초성에 자음이 있으면 '에:'로 단순모음화되고 다시 '이:'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다.

빌:(별), 빙:(病), 믹:(미역), 민:도(면도), 밍:(무명), 핀:지(편지), 기:(契), 기:신다(계신다)

한편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어간에서 이전 시기에 '에:, 여:'말음 어간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들은 모두 '이:'말음어간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아'활용형에 나타나는 '에:'도 '이:'로 발음되는 일이 흔하다.

딘:다(덴다), 민:다(멘다), 빈:다(벤다), 신:다(센다), 핀:다(편다)
데:~디:(데어), 메:~미:(메어), 베:~비:(베어), 세:~시:(세어), 페:~피:(펴)

대체로 60대 이하에서 語頭의 단음 '에'는 '애'와, 장음 '에:'는 '이:'와 合流해 있다. 적어도 청장년층에서 '에'와 '애'를 구별해서 발음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토박이화자는 없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에:애'의 대립이 非語頭에서 시작되어 語頭에까지 擴大되는 과정을 거쳐 '에'와 '애'가 합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5] 비슷한 방식의 모음의 합류 예로 'ㆍ'의 소실을 들 수 있다. 16세기에 'ㆍ'가 비어두에서 '으'와 합류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어두에서 '아'와 합류함으로써 'ㆍ'가 모음체계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에'와 '애'가 어두에서 대립하고 비어두에서 대립하지 않는 사실은 通時的으로 이 두 모음이 合流하는 중간단계를 보여주지만 共時的으로 본다면 이것은 프라그학파에서 말하는 中和라고 할 수 있다. '에'와 '애'의 대립이 비어두에서 중화된다는 것이다.[16] 이 중화된 음소를 原音素로 인정하여 /E/로 표기하면(한글로는 '애'로 표기하기로 한다) 非語頭

15) 이기갑(1986:21)은 전남의 동부에서도 서쪽에 치우친 곡성, 보성 등지에서 60대 이상의 노인층만 이 두 음소를 구별하고 중년이나 젊은이들은 이들을 혼동하고 있다고 하고 두 음소의 합류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방언에서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16) 불어에도 /e/와 /ɛ/가 어말의 개음절 이외의 위치에서 중화되는 현상이 있다(Martinet 1960:79).

의 母音目錄은 모음 9개로 이루어진다. 이, 애(E), 위, 외, 으, 어, 아, 우, 오.

語頭의 '위'와 '외'는 각각 單純母音 [ü], [ö]로 실현된다.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일은 없다.17)

어두에 '위, 외'를 가진 단어는 많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긴다(우긴다), 윗은다(웃는다), 귀(耳), 귀:뚝(굴뚝), 귀:하다(貴), 뀌시럼(그을음), 뀐:다(뀐다, 꿴다), 뒤:(後), 뒤재기(두더지), 뒤낀다(뒤집는다), 뒨:다(바둑을 둔다), 뛰(띠 茅), 뛴:다(뛴다, 띠를 띤다), 쉬(쉬파리의 알), 쉬운(五十), 쉭인다(숙인다), 쉰:다(休), 쉽:시다(休), 쒸시(수수), 쒸염(수염), 쒸신다~쮜신다(쑤신다), 쥑인다(죽인다), 쥔:다, 취(취나물), 취:직, 취지다(축축하다), 휘가(휴가), 휘빠람(휘파람)

외갓집, 외:(오이), 욂긴다/욍긴다/(옮긴다), 괴기(고기), 괴:(고양이), 괴:깨(괴끼 : 곡식의 수염 부스러기), 괴:회/괴:외/(교회), 괴롭다, 꾀, 쾨(코), 되(升), 되집은다(뒤집는다), 된:장, 되:다(硬), 됩:대(도리어), 뙤(뗏장의 떼, 윷놀이의 도), 퇴:(툇간), 퇴깽이(토끼), 퇴:침, 쇠(鐵), 쇤:다, 쐬인다(쎈다), 쬐깨(조끼), 쬐인다, 쬐:깐하다(조그마하다), 최가(崔哥), 회:(膾), 회과(효과), 회:사, 회:자(효자), 뾔쭉하다~뻬쭉하다, 뫼:자리(못자리), 푀(票)

'우, 오'가 움라우트로 '위, 외'가 될 때도 [ü], [ö]로 실현된다.

국-이→귁이, 숭(흉)-이→슁이, 복-이→뵉이, 콩-이→쾽이

---

17) 중앙어의 경우 노년층에서도 '위, 외'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일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이 방언은 '위, 외'가 단순모음으로 실현되는 정도가 가장 강한 방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승재(1993:28)에서 "소백산맥의 서쪽 접경 지역은 전설 원순모음 [ö]와 [ü]를 가장 정확하게 발음하는 지역"이라고 한 것에 이 방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주-기→쥐기, 죽-기→쥑기, 푸-기→퓌기, 오-기→외기, 녹-기→뇍기

非語頭에도 '위, 외'가 나타나지만 모두 (공시적으로나 기원적으로) 복합어나 파생어 또는 한자어이거나 움라우트를 겪은 어형이다.[18]

복합어나 파생어(공시적 또는 기원적) : 말:귀/말:뀌/(말귀를 알아듣다), 앞뒤, 보노취(취의 일종), 물외(오이), 참외, 도둑괴(도둑고양이), 놋쇠, 적쇠(석쇠), 부쇠(부시), 차푀(차표)
한자어 : 핵괴(학교), 괴:회(교회), 벌괴(보성군 벌교읍), 비:괴(비교)
움라우트를 겪은 어형 : 까쥑이(가죽-이), 바뀌기(바꾸-기), 나외기(나오-기)

이처럼 단일 형태소의 내부에서 비어두에 '위, 외'가 안 나타나는 것은 通時的으로 비어두의 '위, 외'가 다른 모음으로(주로 '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19]

비우(脾胃), 바구(바위, 中世 바회), 바꾸(바퀴, 中世 바회), 사우(사위, 中世 사회), 내:우(부부←內外), 더우(더위), 추우(추위), 도꾸~도치(도끼, 中世 돗귀~도최), 멀구(머루, 中世 멀위), 게우(거위), 짜구(자귀, 近代 자괴), 사:마구(사마귀, 中世 사마괴), 뼤따구(뼈다귀), 지저구(기저귀), 사구다(사귀다), 야우다(야위다), 아숩다(아쉽다)

다음 예들도 중간 단계에 말음절모음이 '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18) 다만 '일뵌'(일본)은 왜 둘째 음절 모음이 '외'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19) 어두음절의 '위'가 다른 모음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 두지(뒤주), 구:신(귀신), 훈:다(휜다), 티밥(튀밥). 한편 전광현(1976)은 중세국어의 '이, 의, 외, 위'말음 명사가 전북 남원방언에서 '우'말음 명사로 변하게 된 통시적 과정을 해명한 바 있는데 이 방언의 경우에도 변화의 과정이 같았을 것이다.

들어 '*거믜>*거뮈>거무'와 같았을 것이다.

거무(거미, 中世 거믜), 나부(나비, 中世 나ᄇᆡ), 옹:구(甕器, <*옹긔), 조구(조기, 近代 죠긔), 모:구(모기, 中世 모ᄀᆡ), 요구(療飢, <*요긔), 동우(동이, 中世 동ᄒᆡ), 송쿠(松肌, <*송긔), 중우(中衣)[20]

'위, 외'를 단순모음 [ü], [ö]로 발음하는 것은 40, 50대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즉 '위, 외'를 각각 이중모음 [ɥi], [we]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ɥi]~[i], [wE]~[E]로 발음한다.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ü/는 /wi/와 /i/로, /ö/는 /wE/와 /E/로 변한 것이다.

2.3. 반모음과 이중모음

半母音은 계기적으로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데 存在理由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모음의 목록은 二重母音의 목록을 통해 確認해야 한다.[21] 이 방언에 나타나는 二重母音은 '예, 얘, 여, 야, 유, 요, 웨, 왜, 워, 와' 10개이고 이를 통해 半母音은 y와 w 둘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 이중모음은 모두 '반모음+단순모음'의 구조를 가진 상향

---

20) 둘째음절의 '긔, 희'는 첫음절의 모음이 원순모음일 때만 구, 우'로 변했다. '*여긔(여기), *거긔(거기), *저긔(저기), *사긔(砂器), *화긔(火氣), *너희, *저희'는 각각 '여그, 거그, 쩌:그, 사그, 화:그, 느그, 즈그'로 변했다.

21) 이중모음은 두 음소의 연결이므로 음소배열의 방식을 다루는 3장(음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체재를 갖춘 논의들도 있다(이병근 1969, 1970, 이승재 1980a, 최태영 1983). 그러나 우리는 자음이나 모음이나 반모음처럼 이중모음도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중시하여 음운체계를 논의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이중모음이다.

반모음목록 : y, w
이중모음목록(어두)
y계 상향이중모음 : 예 ye, 얘 yɛ, 여 yə, 야 ya, 유 yu, 요 yo
w계 상향이중모음 : 웨 we, 왜 wɛ, 워 wə, 와 wa

비어두에는 모음 '에, 애' 대신 '애'(E)가 나타나므로 이중모음도 역시 ye와 yɛ 대신 yE를, we와 wɛ 대신 wE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어두의 이중모음목록은 다음과 같이 8개로 이루어진다.

이중모음목록(비어두)
y계 상향이중모음 : 얘 yE, 여 yə, 야 ya, 유 yu, 요 yo
w계 상향이중모음 : 왜 wE, 워 wə, 와 wa

語頭에 二重母音이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 옛:날, 예:비군, 예우다(자식을 결혼시키다 <*여의다)
얘 : 액-이(약-이)
여 : 여자, 연(鳶), 엿, 영:감, 여:럽다(열없다)
야 : 야간(여간), 야물다, 야:단, 양발(양말)
유 : 유리, 유:재(柚子, 이웃에), 윤:디(인두), 율무, 윳(윷)
요 : 요고(요것), 요:하다(괴상하다, 볼품없다), 욕(辱), 용:하다
웨 : 웬수(원수), 웬만하다, 궤:(櫃), 눼:(누에)
왜 : 왜놈, 왜:, 괘씸하다, 꽹이(괭이), 홰:(화)
워 : 원채(워낙), 권가(權哥), 꿩:, 훤:하다
와 : 완전이, 왕(王), 꽝지리(광주리), 활, 홅다(훑다)

非語頭에 二重母音이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애(yE) : 부앵이(부엉이), 보:액-이(보약-이), 구냉-이(구멍-이)
여 : 부:역(賦役), 쒸염(수염), 구녁(구멍), 울:력
야 : 이:약(이야기), 기양(그냥), 오:냐,
유 : 우유, 종:류/종:뉴/, 휘발유/휘발류/
요 : 가용(家用), 조용하다, 담:요/담:뇨/
왜(wE) : 옷궤/오쾌/, 참쾌/창쾌/(참깨), 들쾌(들깨), 꼭괭이(곡괭이)
워 : 이:원(2원), 빙:원(병원), 정월, 이:월(2월)
와 : 개와(호주머니), 지와(기와), 때왈(파리), 사과, 장화(長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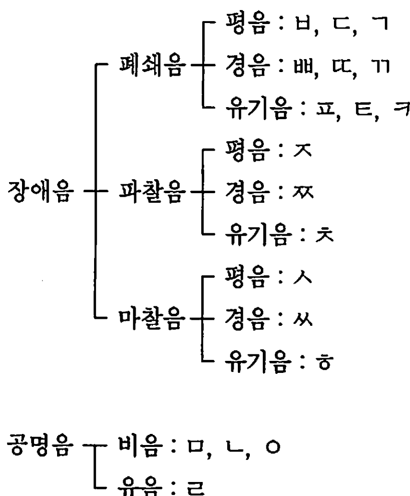
전라방언에는 三重母音 ywa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이승재 1984, 1990). 이 삼중모음이 이 방언에도 나타남이 배주채(1991a)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몰류-'(말리다 乾)에 어미 '-아'가 연결된 활용형에만 나타난다. 그 활용형을 음소적으로는 /mollywa/로 전사할 수 있고 음성적으로는 [moʎʎwa]로 전사할 수 있다. 어간 '몰류-'/mollyu-/에 어미 /-a/가 연결되어 a 앞에서 u가 w로 반모음화한 것이 음소표시 /mollywa/이다. 이러한 삼중모음이 발음가능한 것은 l과 y의 결합이 음성적으로 하나의 자음(ʎ)으로 발음되는 현상 덕분이다. 音聲的으로는 삼중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 [wa]이기 때문에 實現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음운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삼중모음이므로 다른 삼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소체계상의 地位가 不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몰류-아'를 '몰랴'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화자에 따라서는 항상 '몰랴' 쪽만 발음하여 삼중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 '몰랴'는 '가돠~가다'(가두-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의적인 비어두 w탈락에 의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중모음 ywa는 음소체계 속에 들지 않는 例外的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4. 음소체계

2.4.1. 자음체계

이 방언의 자음 19개가 이루는 體系는 중앙어의 자음체계와 다를 것이 없다. 자음체계는 調音方式과 調音位置라는 두가지 축을 기준으로 파악된다. 먼저 調音方式의 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음부류 사이의 위계적인 대립의 체계를 보여준다.



공명음 ┬ 비음 : ㅁ, ㄴ, ㅇ
└ 유음 : ㄹ

여기서 ㅎ의 음소체계상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ㅎ은 생성음운론적인 연구들에서 대개 반모음과 함께 滑音體系를 형성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ㅎ이 자음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ㅎ은 음성적으로 모음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초성 ㅎ의 경우 구강의 모양은 뒤에 오는 모음과 똑같되 유성성이 없는 음, 즉 無聲母音이라는 것이다. 음성적으로는 모음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지만 음절구조적인 관점

에서도 자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의 구분은 音節構造的인 특성을 주된 根據로 삼아야 한다. 음절구조적인 특성에는 成節性과 子音性이 있다. 성절성은 홀로 중성(음절핵음)이 될 수 있는 특성이고 자음성은 초성(음절두음)이나 종성(음절말음)이 될 수 있는 특성이다. 반모음은 성절성이 없다는 점에서 모음과 다르다. 그러나 자음성이 없다는 점에서(반모음은 단순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형성하여 중성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음과도 다르다. 따라서 반모음은 자음, 모음과 구별되는 제3의 범주로 설정되는 것이다. ㅎ은 성절성이 없고 자음성이 있으므로 子音으로 처리된다.

調音位置의 축은 흔히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자음부류의 대립의 체계로 파악되고 있다.

양순음 : ㅂ, ㅃ, ㅍ, ㅁ
치조음 : ㄷ, ㄸ, ㅌ, ㅅ, ㅆ, ㄴ, ㄹ
경구개음(구개음) : ㅈ, ㅉ, ㅊ
연구개음 : ㄱ, ㄲ, ㅋ, ㅇ
성문음 : ㅎ

이제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의 두 축을 함께 고려하여 자음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조음위치 / 조음방식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장애음	폐쇄음	평 음	ㅂ	ㄷ		ㄱ	
		경 음	ㅃ	ㄸ		ㄲ	
		유기음	ㅍ	ㅌ		ㅋ	
	파찰음	평 음			ㅈ		
		경 음			ㅉ		
		유기음			ㅊ		
	마찰음	평 음		ㅅ			
		경 음		ㅆ			
		유기음					ㅎ
공명음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2.4.2. 모음체계

모음 10개가 이루는 母音體系는 다른 방언에 대해 종래에 설정된 것과 같다.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모양 / 혀의 높이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 모 음	이	위	으	우
중 모 음	에	외	어	오
저 모 음	애		아	

중설모음 '으, 어, 아'와 후설모음 '우, 오'가 혀의 앞뒤 위치에 의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순성에 의해 대립하므로 이들을 非前舌母音으로

묶는 데 문제가 없다. 음운론적으로 중설모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 '전설모음:비전설모음'의 대립이란 '전설모음:후설모음'의 대립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으, 어, 아, 우, 오'를 후설모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非語頭에서는 '에'와 '애'의 대립이 중화된 '애'(E)가 나타나므로 비어두 모음체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혀의 앞뒤 위치	전 설 모 음		후 설 모 음	
입술모양 / 혀의 높이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 모 음	이	위	으	우
중 모 음	애(E)	외	어	오
저 모 음			아	

중화된 '애'를 저모음으로 처리할 것인지 중모음으로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저모음이 아닌 中母音으로 처리해 둔다. 전설평순계열이 중모음 자리가 비고 저모음 자리가 차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전설원순계열, 후설원순계열과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體系上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4.3. 반모음체계와 이중모음체계

半母音에는 y와 w 둘만 있으므로 체계가 아주 단순하다. y와 w의 대립은 圓脣性에 의한 것으로 본다. 평순반모음은 y, 원순반모음은 w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22] 이제 반모음체계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

22)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모음이 첨가될 때 반모음 y가 첨가되는 것은 (§4.3 참조) 두 반모음 중 y가 원순성이 없는 무표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평 순	원 순
y	w

二重母音體系는 y계 이중모음체계와 w계 이중모음체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각을 단순모음의 체계에 맞추어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비어두의 이중모음체계에는 ye, yɛ 대신 yE와, we, wɛ 대신 wE가 설정된다. 체계의 제시는 편의상 생략한다.)

y계 이중모음체계

구 분	전설평순	후설평순	후설원순
고			유 yu
중	예 ye	여 yə	요 yo
저	얘 yɛ	야 ya	

w계 이중모음체계

구 분	전설평순	후설평순	후설원순
고			
중	웨 we	워 wə	
저	왜 wɛ	와 wa	

이중모음체계는 단순모음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그보다 단순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중모음체계상에 빈칸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단순모음이 이중모음을 형성하지는 않는 데서 생긴 것이며 반모음과 단순모음의 연결에 音素配列的인 制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23]

23) 이중모음체계의 빈칸에 대한 해명은 허웅(1968), 정연찬(1991)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다음에서 언급하는 각 제약의 존재이유는 이들의 논의를

우선 圓脣母音은 w계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없다. 원순성이 한 중성 안에서 두번 이상 변별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그리고 전설원순모음 '위, 외'는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없다. w계 이중모음은 물론이고 y계 이중모음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 외' 자체가 이미 前舌性과 圓脣性을 모두 가진 아주 유표적인 음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음소적 단위를 파생시킬 수 없는 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yi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y와 i의 특성(전설성, 평순성, 고설성)이 重複되기 때문일 것이다. wi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중세국어의 '위'(uy)가 이 방언에서 어두에서는 단순모음 '위'로, 비어두에서는 '우'로 변해 버린 歷史的인 이유 때문인 듯하다.[25] 끝으로 '으'가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으'의 음운론적 强度가 약해 반모음을 거느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wi는 역사적으로 '우'로 변해 버렸다(中世 더븝면(暑)>təwimyən>təumyən>더우먼). 이와 같은 이중모음체계상의 빈칸은 音節構造制約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음절구조제약에 대해서는 §3.1.2 참조).

참고한 것이다.

24) 이병근(1969:49), 이승재(1980a:80), 최태영(1983:92), 소강춘(1989:65), 정연찬(1991)에도 비슷한 의견이 보인다. 그러나 이중모음에 대한 이러한 제약들이 언어보편적인 사실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영어에는 국어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wu/, /wo/, /wɔ/와 /yi/가 존재한다(woo, woe, wall, yeast). 또 국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wi/와 /ɥi/의 대립이 불어에는 존재한다(oui:huit, Louis:lui).

25) 이익섭(1972), 이승재(1980a), 최태영(1983) 등의 보고를 참고하면 강원도 영동방언, 전남방언, 전북방언 등 '위'가 단순모음 [ü]로만 발음되는 방언에서는 이중모음 /wi/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2.5. 운소체계

이 방언에는 단어를 辨別해줄 수 있는 韻律的 要素로 音長만 존재한다. 음장에는 長音과 短音 두가지의 대립이 있다. 음장은 모음에만 얹힐 수 있다. 다음 예들은 음장이 변별적임을 보여준다.

눈(眼) – 눈:(雪)
밤(夜) – 밤:(栗)
독(毒) – 독:(石),
줄(列) – 줄:(쇠를 가는 공구)
짐(荷) – 짐:(海苔, 蒸氣)
갓(芥菜) – 갓:(가장자리)
짜고(맛이) – 짜:고(가마니를)
인다(머리에) – 인:다(지붕을)
준다(건네준다) – 준:다(옷을 깁는다),
배(腹, 船, 梨, 布) – 배:(倍, 아이를 배어, 물기가 배어, 차가 혼잡해)

장음은 비어두에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음과 단음의 대립은 語頭에서만 有效하다. 어두에 장음을 가진 단어가 복합어 속에서 비어두에 놓이게 될 때 장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실은 이 제약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어의 音長方言들에 공통적이다.

단+감:→단감, 큰+일:→큰일/큰닐/, 전문+대:학→전문대학,
연+실:→연실/연씰/, 맛+없:다→맛없다/마덥따/,
싹:(모두)+다:→싹:다, 송(松)+진:(液)→송진

음조나 강세는 단어 차원에서 변별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發話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진다(6장 참조).

3. 음절

음소가 연결될 때 관여하는 제약을 전통적으로 音素配列制約이라 불러왔다. 음소배열제약은 형태소의 음운구조를 제한하기도 하고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변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제약을 다루는 음소배열론은 音節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고(허웅 1965:207~25, 1985:224~41, 이병근 1970, 박창원 1987), 形態素構造制約과 音韻規則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이승재 1980a). 여기에서는 音節을 中心으로 한 음소배열론을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3.1. 음절구조

3.1.1. 음절성분과 음절구조

음절은 분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분절음이 음절의 直接構成成分은 아니다. 음절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나오는 단위는 初聲, 中聲, 終聲이다. 이들을 音節成分(syllabic constituent)이라 부를 수 있다. 훈민정음의 이론에서도 음절을 우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나서 각각의 음절성분을 다시 분석하여 單音을 추출하였다.[1] 훈민정음의 이론에서 '돍'의 ㄹ이나 ㄱ만 종성으로 본 것인지 ㄺ 전체를 종성으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ㄺ 전체를 종성이라는 음절성분

1)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강창석(1991, 1992), 이승재(1991) 참조.

으로 본다.[2)]

모든 음절은 중성을 가지고 있다. 중성은 반드시 成節音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은 필수적인 음절성분이다. 언어에 따라 자음이 성절음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국어에서처럼 모음만이 중성이 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초성과 종성은 수의적인 음절성분이다. 음절성분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은 言語普遍的이라고 할 수 있다.

國語에서 음절성분과 분절음의 관계를 보면 초성, 종성에는 자음 하나만 놓일 수 있고 중성에는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만 놓일 수 있다(이것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한다). 분절음을 기준으로 하면 국어의 음절은 '자음+반모음+단순모음+자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성절음인 단순모음만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方言도 국어의 일반적인 음절구조와 같은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음절구조 자체에서는 이 방언만의 특징이 없다.

3.1.2. 음절구조제약

음절구조제약은 분절음이 음절성분을 통해 음절을 구성하는 데 대한 제약이다. 여기에는 초성제약, 중성제약, 종성제약이 있고 초중성연결제약도 있다. 이들 제약의 내용은 국어의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방언의 初聲制約은 초성에 ㅇ이나 자음군이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초성에는 ㅇ 이외의 18자음만 나타날 수 있다. ㅇ은 종성으로만 쓰이는 자음이 된다.[3)] ㄹ도 어두음절의 초성으로 쓰일 수는 없다.

2) 그러나 현대국어의 '닭, 늙-' 등에 나타나는 ㄺ과 같은 어간말자음군은 음절성분으로서의 종성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다루는 음절은 기저층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층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절을 표면층위의 음운단위로 이해하는 데 대해서는 배주채(1989)에서 논의한 바 있다.

3) 따라서 모음 사이의 /ㅇ/도 종성으로 처리하지만 음성적으로는 초성으로 본

中聲制約은 중성에 단순모음과 이중모음 이외에는 나타날 수 없고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순모음의 결합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는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한다. 어떤 반모음과 단순모음의 결합이 이중모음으로 가능한지는 이미 §2.4에서 다루었다.

終聲制約은 종성에 ㅂ, ㄷ, ㄱ, ㅁ, ㄴ, ㅇ, ㄹ의 7자음 이외의 12자음과 자음군이 나타날 수 없음을 말한다. 종성에 나타날 수 없는 12자음은 초성으로만 쓰이는 자음이 된다.

初中聲連結의 制約은 초성과 중성의 연결 중 일부의 것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첫째, 兩脣音과 '으'는 일반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므, 브, 쁘, 프'로 시작하는 음절은 없다. 여기에 대한 例外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어미 '-으먼'의 자유변이형 '-으믄'이다. 이것은 비어두에서 '어'가 '으'로 약화되는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이다.[4] 이전 시기에 비어두에서 '어>으'의 변화를 겪은 예들은 앞자음이 양순음일 때 다시 '우'로 원순모음화했다(아버지>아브지>아부지, 할머니>할므니>할무니, 잡어댕긴다>잡으댕긴다>잡우댕긴다). '-으믄'은 최근에 생겨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우'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양순음과 '으'의 연결제약이 그다지 强力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예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명사말음 ㅁ, ㅂ과 조사두음 '으'가 연결될 때 '으'가 '우'로 바뀌지 않은 발음도 가능하다. '짐(荷)-은'은 '지믄'처럼 발음되기도 하고 '지문'처럼 발음되기도 한다. 한편 어두음절에서(항상 형태소내부가 된다) 양순음 뒤에는 '으'가 오는 예가 없다. 따라서 양순음과 '으'의 연결은 제약을 받되 非語頭音節에서 그 제약이 弱化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약은 양순음 뒤의 원순모음화의 동기가 된다.

다. 이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33~6)에서 논의한 바 있다.

4) 이 방언에는 비어두에서 '어>으'의 변화를 겪은 어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른(이런), 졸읍(졸업), 추름(추렴), -드-(-더-), -그라(-거라).

둘째, 破擦音과 '으'는 일반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 '즈, 쯔, 츠'로 시작하는 음절은 없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例外는 '즈그'(저희)이다. 이 '으'도 '어'에서 온 것일텐데 왜 이 단어에서만 ㅈ 뒤에서 '으>이'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제약은 파찰음 뒤의 전설모음화의 동기가 된다.

셋째, 初聲과 二重母音의 연결 중 어떤 것은 나타날 수 없거나 제한된 환경에만 나타난다. y系 二重母音은 비어두에서 ㄴ, ㄹㄹ에만 연결될 수 있다.

얘(yE) : 구냭-이(구멍-이), 달랙-이(달력-이)
여 : 구녁(구멍), 웃녁(북쪽 지방), 책력/챙녁/, 십년, 년('여자'를 가리키는 형식명사 卑語), 항렬/항녈/, 연:영/여:녕/(영영), 기념(괘념), 달력, 울:력, 천년/철련/, 훈:련/훌:련/, 산신령/산실령/
야 : 오:냐, 모냥(모양), 논약/노냑/(농약), 만:약/마:냑/, 한 냥(兩), 물약/물략/, -냐(의문형어미)
유 : 종:류/종:뉴/, 오:뉴월, 휘발유/휘발류/, 몰륜다(말린다 乾), 버들륫재(버들류 字)
요 : 담:요/담:뇨/, 영업용/영엄뇽/

ㄴ, ㄹㄹ이 y와 결합하면 ㄴ, ㄹ이 음성적으로 [ɲ, ʎ]로 실현되어 ㄴ, ㄹ과 y계 이중모음의 연결이 반모음이 개재하지 않은 단순한 음절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5)]

w系 二重母音은 어두음절에서 ㄱ계열과 ㅎ에만 연결될 수 있다.[6)]

---

5) '아이갸~아이가'(감탄사. '저런!', '저걸 어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어미 '-읍니꺄~습니꺄, -읍디꺄~습디꺄'에는 ㄱ, ㄲ에 '야'가 연결된 '갸, 꺄'가 나타난다. 예외적인 경우이다.

6) 예외적으로 다른 자음과 w계 이중모음이 연결된 '눼:(누에), 쉳:하다(수월하다), 쉳찬하다(상당하다)'와 같은 예가 보인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인접한 두

웨 : 궤:, 훼:방

왜 : 괘씸하다, 괜찬하다(괜찮다), 꽤(깨), 꽹이(괭이), 홰:(화), 횃:(아주 다름을 나타내는 부사)

왜(wE) : 웃궤, 참꽤(참깨), 들꽤(들깨), 꼭꽹이(곡괭이), 오:괭(五光)-이

워 : 권가(權哥), 꿩:, 훤:하다, 직원/지권/, 기권/기뀐/, 대:궐

와 : 과:하다(過), 관상(觀相), 광주(광주직할시), 관양(전남 광양군), 꽝지리(광주리), 콱(단단히 부딪치거나 박히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화토(화투), 화:리(화로), 환:장, 환:하다, 활, 홟다(핥다), 사과, 장:관(長官), 오:광(五光)

용언의 '-아'활용형(용언어간에 어미 '-아'가 붙은 어형)은 더 많은 자음에 이중모음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어떤 어간의 활용형인지는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5.2.2 참조.)

웨 : 꿰:, 뒈:, 뛔:, 쉐:, 줴:, 퉤: ('위'어간)

왜 : 괘:, 돼:, 쇄: ('외'어간)

워 : 눠:, 둬:, 줘:, 훠: ('우'어간)

와 : 과:, 꽈:, 놔:, 봐: ('오'어간)

사과, 바꽈, 대롸, 가돠, 맞촤, 익화/이콰/, 모톼 ('우'어간)

애(yE) : 아내, 올래 ('이'어간)

w계 이중모음들은 모든 자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의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연결을 보여줄 어간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즉 체계적인 빈칸이 아니라 偶然한 빈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두의 예들이 모두 장음을 가지는 것은 어간 모음 '위, 외, 우, 오'의 반모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 때문이다. 이들이 가진 장

모음이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二重母音化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음 때문에 이들이 두 음절의 연결로 분석될 可能性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3.2.1에서 음절경계와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성연결의 제약은 非音韻論的 條件에 따라 강하고 약한 정도 차이를 보여준다. 명사와 조사의 연결에서 '양순음+으'에 대한 제약이 약하게 나타나고 용언의 '-아'활용형에서 많은 자음과 w계 이중모음의 연결이 초중성연결제약의 범위를 벗어난다. 형태소내부에서라면 일어나기 쉬운 통시적인 이중모음의 단순화가 形態素境界에서 保留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음절연결

3.2.1. 음절경계

음절구조가 복잡할수록 음절경계를 찾는 일이 어렵다. 國語의 음절구조는 單純한 편에 속하므로 음절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자음이나 두 모음이 연속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음절경계가 있고(장$구, 서$울), 모음 앞에 자음+반모음이나 자음 하나만 또는 반모음 하나만 있으면 그 앞에 음절경계가 있다는 것이 一般原則이다(사$과, 소$리, 사:$용).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모음 앞의 ㅇ은 앞음절에 속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배주채 1989:33~6). 그밖에 音節分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음소 단위의 분절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그 중 하나는 단일자음인지 자음연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중모음인지 모음연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모음 사이의 緊張音(구체적으로는 경음과 유기음)이 重複障碍音(평폐쇄음+긴장음)과 변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배주채 1989, 유재원 1989, 김주필 1990). 맞춤법에 따라 긴장음만으로 적고 있는 '아

까, 오빠, 부채, 부:탁' 등이 실은 '악까, 옵빠, 붑채, 붑:탁' 등과 음운론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음소적인 대립의 觀點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폐쇄음이나 파찰음을 모음 사이에서 발음할 때 폐쇄-지속-파열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폐쇄가 지속되는 두번째 단계의 시간적 길이가 국어에서는 두가지만 辨別的으로 인식된다. 그 길이가 짧은 것은 평음으로, 그 길이가 긴 것은 긴장음으로 인식된다. 원리적으로 평음+긴장음은 긴장음만 발음할 때보다 그 지속시간이 길 것이다. 그러나 평음의 지속시간보다 길면 많이 길든 조금 길든 다른 발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제 이 사실을 음절분계의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모음 사이에서 閉鎖의 持續時間이 평음보다 길게 발음된 경우 음절경계가 폐쇄의 시작 직전에 놓이는 것으로 보면 '모음$긴장음+모음'으로 분계되고 지속단계의 중간에 놓이는 것으로 보면 '모음+평음$긴장음+모음'으로 분계된다. 폐쇄단계로부터 지속단계의 처음까지의 부분이 앞 음절로 처리되느냐 뒤음절로 처리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두가지가 음성적으로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음절분계의 관점에서도 두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두가지 音節分析(그리고 음소분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긴장음과 중복장애음이 변별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音韻現象이 수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게 된다(배주채 1989:95ff, 1992).

중복장애음화 : 아까→악까, 삐딱(비탈)→삡딱, 소캐(솜)→속캐, 가까(갈까)→각까

중복장애음감축 : 집 퐅:고(팔고)→지퐅고, 숏단지(솥단지)→숟딴지→소딴지, 국그럭(국그릇)→국끄럭→구끄럭, 옷칠(옻칠)→옫칠→오칠, 그것 잔(좀) 주라→그걷짠주라→그거짠주라

二重母音과 母音連鎖의 구별은 처음부터 음절분계의 문제와 얽혀 있다. 단순모음과 반모음의 구별이 成節性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음적인 음성 둘이 연속되어 있을 때 전체가 한 음절이라면 둘 중 하나는 반모음, 하나는 단순모음으로 이해되어 두 음성의 연쇄는 이중모음이라고 보게 된다. 만약 전체가 두 음절이라면 둘 다 단순모음으로 이해되어 모음연쇄로 보게 된다.7) 그러나 음절수는 音聲學的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엿을 고아'라는 발화를 듣고 '고아'가 한 음절인지 두 음절인지 분명히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音調型이 음절을 단위로 실현되기 때문에 音節數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음조형에 대해서는 §6.1.1 참조). 예를 들어 [ieunda]라는 발음의 음조표시가 1-2-1(低高低)이면 [ie]가 한 음절로 인식되고, 1-2-1-1(低高低低)이면 [ie]가 두 음절로 인식된다.

예운다,　이에운다
1 2 1　1 2 1 1

'아들을 [ieunda] (결혼시킨다)'는 음조표시가 1-2-1로 나타나므로 '이에운다'가 아니라 '예운다'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 다음의 쌍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예:/이에,　얘:/이애,　여:/이어,　야:/이아,　요:/이오,　유:/이우
웨:/위에,　왜:/외애,　워:/우어,　와:/오아

어두에 나타나는 장음 이중모음은 음조표시로도 모음연쇄와 區別할 수

7) 이중모음과 모음연쇄의 구별이 궁극적으로 음절수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은 Abercrombie(1967:60), Catford(1977:215), Clark & Yallop(1990:107~9) 참조.

없다. 장음 이중모음은 고조(2:)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나 발음이 처음 시작되는 반모음 부분이 약해 처음에는 저조로 시작해 단순모음 부분에서 온전히 고조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즉 2-2(=2:)가 원칙이나 1-2로 발음될 수도 있다. 모음연쇄에서 어두음절은 저조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조로 발음되는 수도 있다. 즉 1-2가 원칙이나 2-2로 발음될 수도 있다. 따라서 [koado]라는 발음은 다음 두가지로 인식된다.

과:도, 고아도
2-2 1 2 2 1
1-2 1 1 2 1

이 두가지도 다음과 같이 '안'否定形의 음조표시를 이용해 음절수를 確認할 수 있다('안 과도'에서는 단음화가 일어난다. §6.1.2 참조).

안 과도, 안 고아도
1 21 1 211

'엿을 [koado]'는 '안'부정형의 음조표시가 1-2-1(안 과도)로 판정되므로 '과:도' 쪽으로 분석하게 된다.

비슷한 방법으로 '-아'활용형에 나타나는 다양한 '자음+이중모음'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다.

꿰:서(뀌어서)/안 꿰서, 뛔:서(뛰어서)/안 뛔서, 줴:서(쥐어서)/안 줴서
돼:서(되어서)/안 돼서, 쇄:서(쇠어서)/안 쇄서
눠:서(누어서)/안 눠서, 줘:서(주어서)/안 줘서
꽈:서(꼬아서)/안 꽈서, 놔:서(놓아서)/안 놔서, 봐:서(보아서)/안 봐서

3.2.2. 음절연결제약

음절연결제약은 음절끼리 연결되는 데 관여하는 제약이다. 음절끼리 連結되는 類型을 음절구조에 따라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음$자음 또는 반모음
(2) 모음$모음
(3) 자음$모음 또는 반모음
(4) 자음$자음

우선 (1)과 같은 음절연결은 적격한 연결이므로 아무 제약이 없다(소$타고, 저$유리창). 다만 뒤음절의 초성이 ㅎ일 때 ㅎ이 탈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공명음 사이의 수의적인 ㅎ탈락으로 묶을 수 있는 현상이다. (3)과 같은 음절연결은 앞음절 종성이 ㅇ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적격하다. 이것을 閉音節連結制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약 때문에 이른바 連音이 일어난다. 이것은 음운과정이 아니라 音節境界 調整 현상이다. 모음 사이에 있는 자음은 당연히 뒤음절의 초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안$오고→아$노고, 장작$아래→장자$가래). 그런데 '자음$y'의 경우에는 비어두에서 부적격한 '자음+이중모음'의 연결이 생겨 초중성연결제약을 어기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ㄴ첨가라는 음운현상이 일어나 'ㄴ+y계 이중모음'이 생기므로 초중성연결제약을 어기지 않는다(소독-약→소동냑, 안 여물고→안녀물고).[8]

(2)와 같은 음절연결은 母音衝突을 일으키는데 경우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이 제약을 母音連結制約이라 부르기로 한다. 첫째, 같은 모음의 연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제약 때문에 두 모음이 二重母音化하

8) 그렇더라도 ㄴ첨가의 동기가 초중성연결제약인 것은 아닐 것이다. 종성이 모음 '이'일 때도 '큰+일→큰닐'과 같이 ㄴ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든지 하나가 脫落하기 쉽다. 둘째, '이에, 이애, 이어, 이아, 이우, 이오, 위에, 외애, 우어, 오아'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 때문에 두 모음이 二重母音化하든지 둘 사이에 반모음이 添加되는 일이 있다.[9)]

(4)와 같은 음절연결은 子音衝突을 일으키는데 역시 경우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이 제약을 子音連結制約이라 부르기로 한다. 첫째, 앞자음이 장애음(ㅂ, ㄷ, ㄱ)일 때 뒷자음으로 평음, ㅎ, 비음(ㅁ, ㄴ), 유음이 올 수 없다. 그리고 앞자음이 ㄷ일 때는 뒷자음으로 ㅆ도 올 수 없다. 둘째, 앞자음이 ㄹ일 때 뒷자음으로 ㄴ이 올 수 없다. 셋째, 앞자음이 ㄹ이 아닐 때 뒷자음으로 ㄹ이 올 수 없다. 넷째, 뒷자음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면 앞자음으로 치조음 ㄷ, ㄴ이 나타나기 어렵다. 또 뒷자음이 연구개음이면 앞자음으로 양순음 ㅂ, ㅁ이 나타나기 어렵다. 다섯째, 앞자음이 공명음 ㅁ, ㄴ, ㅇ, ㄹ이면 뒷자음으로 ㅎ이 오기 어렵다. 넷째와 다섯째는 자음연결이 완전히 부적격하지는 않은 경우이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만 그러한 자음연결이 나타나고 형태소내부에서는 완전히 부적격하다.

3.3.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은 音素의 分布와 音素配列에 제약을 가하여 形態素境界에서 여러가지 音韻現象을 일으킨다. 음절구조제약 중에서는 종성제약과 초중성연결제약이 음운현상을 일으킨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9) 이승재(1980a:96)는 전남 구례방언에서 '우어, 오아, 위어, 외아' 등의 모음연결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모음 앞에 원순모음이 올 수 없고 그 대신 w가 올 수 있다는 형태소구조제약을 설정하였다. 이 방언에서는 '원순모음+모음'의 연결이 완전히 부적격한 정도는 아니다.

종성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 평폐쇄음화, 자음군단순화, 유기음화
초중성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 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10] 반모음 탈락

음절연결제약 중에서는 모음연결제약과 자음연결제약이 음운현상을 일으킨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모음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 동모음탈락, 동모음축약, '으'탈락, 반모음화, 반모음첨가
자음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ㄷ탈락, ㅎ탈락[11]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 중에는 曲用이나 活用에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곡용, 활용, 구 등의 문법적 環境에 얽매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자에 속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4, 5장의 적당한 곳에서 다시 다루면서 적절히 수정, 보완할 것이다.

반모음첨가 : [곡용] 멩태(명태)-하고→멩태야고. §4.3 참조.
자음군단순화 : [활용] 앓-는다→알른다. §5.2.1.5 참조.

---

10) 전설모음화는 움라우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치찰음 뒤의 '으'가 '이'로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백두현 1990/1992:254~6). 양순음 뒤의 '으'가 '우'로 바뀌는 것을 圓脣母音化라 부르는 것과 평행하게 '前舌母音化'의 용법을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자음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을 전통적인 술어를 빌려 子音接變이라 부를 수 있다. 자음접변 중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는 일반적으로 자음동화로 묶어 부른다. 모음연결제약에 따른 음운현상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母音接變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접변은 요즘도 자주 쓰이고 있는 sandhi라는 용어와 개념이 같다고 보아도 좋다.

유기음화 : [활용] 낳-고→나코. §5.2.1.4 참조.
전설모음화 : [활용] 늦-으면→느지면. §5.2.1.2, §5.3.1.1 참조.
반모음탈락 : [활용] 가두-아→가돠→가다. §5.3.1.2, §5.3.1.5 참조.
동모음탈락 : [활용] 가-아→가. §5.3.1.3 참조.
동모음축약 : [활용] 패-애→패:. §5.2.1.4, §5.3.1.4 참조.
'으'탈락 : [활용] 뜨-어→떠. §5.3.1.1 참조.
반모음화 : [활용] 보-아→봐:. §5.3.1.2, §5.3.1.4, §5.3.1.5 참조.
원순모음화 : [곡용, 활용] 집(家)-은→지분, 눅-으면→노구먼.
§4.3, §5.2.1.1, §5.3.1.1 참조.

후자에 속하는 것은 平閉鎖音化와 子音接變(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ㄷ탈락, ㅎ탈락)이다. 이들은 ㅎ탈락만 제외하면 중앙어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12] 이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음운과정들로 기술할 수 있다. (조음위치동화만 수의적인 현상이고 나머지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1) 平閉鎖音化 : 음절말에서 ㅎ을 제외한 장애음은 조음위치가 같은 평폐쇄음 ㅂ, ㄷ, ㄱ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치조음 ㅌ, ㅅ, ㅆ, 경구개음 ㅈ 등은 ㄷ으로 바뀐다. 그리고 음절말에서 ㅎ은 뒤음절 초성이 ㄴ, ㅅ 일 때 ㄷ으로 바뀐다. 예) 옷→옫, 옷보도(옷보다)→옫보도, 딲고(닦고)→딱고, 높드라(높더라)→놉드라, 닿는다→닫는다→단는다, 닿소→닫소→다쏘.

(2) 硬音化 : 앞음절 종성이 ㅎ을 제외한 장애음이고 뒤음절 초성이 평장애음 ㅂ, ㄷ, ㅅ, ㅈ, ㄱ일 때 그 초성은 각각 경음 ㅃ, ㄸ, ㅆ, ㅉ,

12) 중앙어의 평폐쇄음화에 대해서는 배주채(1992) 참조. 종래에는 이것을 음절말자음의 중화로 보아 왔는데 이를 중화로 볼 수 없음을 배주채(1989, 1992)에서 논의한 바 있다. 국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중화는 §2.2에서 본 '에:애'의 중화와 같은 것들이다.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ㄷ탈락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 참조.

ㄲ으로 바뀐다. 예) 옷보도(옷보다)→온뽀도, 딲고(닦고)→딱꼬, 높드라(높더라)→놉뜨라, 이것 보소→이걷뽀소.

(3) 鼻音化 : 앞음절 종성이 ㅎ을 제외한 장애음이고 뒤음절 초성이 비음 ㅁ, ㄴ일 때 그 종성이 각각 비음 ㅁ, ㄴ, ㅇ으로 동화된다. 예) 떡만→떵만, 높냐→놈냐, 밥 놓고 국 놓고→밤노코궁노코.

(4) 流音化 : 앞음절 종성이 ㄹ이고 뒤음절 초성이 ㄴ일 때 그 ㄴ이 ㄹ로 동화된다. 예) 솔나무(소나무)→솔라무, 불난 집→불란집, 빗을 내서→비슬래서.

(5) 調音位置同化 : 앞음절 종성이 양순음이나 치조음(ㄹ 제외)이나 경구개음이고 뒤음절 초성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일 때 그 종성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으로 동화된다.13) 예) 밥갑(밥값)→박깝, 손만→솜만, 있겄다(있겠다)→익껃따, 못: 묵어(못 먹어)→몬:무거→몸:무거, 부산 간다→부상간다, 이것 보소→이겁뽀소.

(6) ㄷ脫落 : 앞음절 종성이 ㄷ이고 뒤음절 초성이 ㅆ일 때 그 ㄷ이 탈락한다. 예) 놋쇠→녿쐬→노쐬, 갓 쓰먼(갓 쓰면)→갇쓰먼→가쓰먼('갔으먼'(갔으면)과 발음이 같음), 빗 사서→빋 싸서→비싸서('비싸서'(값)와 발음이 같음).

(7) ㅎ脫落에는 필수적인 ㅎ탈락과 수의적인 ㅎ탈락이 있다. 우선 隨意的인 ㅎ脫落은 앞음절 종성이 共鳴音 ㅁ, ㄴ, ㅇ, ㄹ이고 뒤음절 초성이 ㅎ일 때 그 ㅎ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것으로서 중앙어에서와 같다. 이것은 개음절 뒤의 ㅎ탈락(소하고→소아고, 동서한테→동서안테)과 함께 共鳴音 사이의 隨意的인 ㅎ脫落으로 묶을 수 있다.14) 예) 김훈(인명)→기문, 겔혼(결혼)→게론, 발(足)하고→바라고, 심:심하다→심:시마

13) 조음위치동화는 일어나지 않은 어형도 가능하므로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14) 이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 참조.

다, 신 한 커리(켤레)→시낭커리.

必須的인 ㅎ脫落은 중앙어의 경우 순행적 유기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有氣音化 대신 일어난다. 즉 앞음절 종성이 ㅂ, ㄷ, ㄱ이고 뒤음절 초성이 ㅎ일 때 그 ㅎ이 탈락하는 것이다.

명사+조사 : 솟하고(솥하고)→소다고, 그것할라(그것조차)→그거달라, 이숙한태(이모부한테)→이수간태

'하다'복합용언 : 곱한다→고반다, 대:답한다→대:다반다, 딱하다→따가다, 착하다→차가다, 깨깟하다(깨끗하다)→깨까다다, 깝깝하다(답답하다)→까까바다

그밖의 복합어 : 가락홀태(벼훑이)→가라골태, 밧흑(밭흙)→바득, 박한수(인명)→바간수

한자어 : 입학→이박, 북한→부간, 집합→지밥, 식혜→시개, 식후(食後)→시구, 옥희(인명)→오기[15]

구 : 밥 한 그럭(그릇)→바방그럭, 그것 한나 못:하냐(그것 하나 못하니?)→그거단나모다냐, 그 집 할매(할머니)→그지발매

다른 전라방언과 경상방언에서도 이러한 ㅎ탈락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방언의 경우처럼 한자어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

폐쇄음 뒤에서 ㅎ이 왜 탈락하는지는 아직 解明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유기음화를 피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推測한다. 유기음화를 피하려는 이유는 형태소의 境界와 음소의 境界를 一致시킴으로써 形態分析을 쉽게 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솟하고'를 유기음화시켜 /소타고/나 /솓타고/로 발음하면 명사말음 ㅅ과 조사두음 ㅎ이 ㅌ으로 축약되어 있으므로 형태소의 경계가 한 음소 내부에 걸리게 되어 형태분석이 어렵게 될 것이다. 형태분석이 音素의 境界에 근거하여 '소-타

15) 한자어에서 '서콰(石花 굴), 구캐이원~구개이원(국회의원)'과 같이 ㅎ탈락 대신 유기음화가 일어난 예도 있다.

고'(소를 타고)나 '솓-타고'(솟을 타고)와 같이 잘못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솟하고'를 ㅎ을 탈락시켜 /소다고/로 발음하면 형태분석이 /솓-아고/와 같이 음소의 경계에 근거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명음 뒤에서의 수의적인 ㅎ탈락의 존재도 이 ㅎ탈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ㅎ탈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ㅎ탈락1 : 초성 ㅎ은 공명음 뒤에서 탈락한다. (수의적)
ㅎ탈락2 : 초성 ㅎ은 평폐쇄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4. 곡용에서의 음운현상

명사와 조사가 연결되는 형태론적 과정인 곡용에서는 주로 名詞의 末音과 助詞의 頭音이 음운현상에 관여한다. 그래서 명사의 음운구조는 말음을 기준으로, 조사의 음운구조는 두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먼저 조사의 음운구조와 명사의 음운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곡용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4.1. 조사의 음운구조

조사는 單形助詞와 多形助詞로 나눌 수 있다.[1] 각각을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문말조사로 나누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2]

단형조사

격조사 : 같이, 보도~보돔~보동, 보고, 더러, 맹이로~맹기로~맹키로, 마나, 한트로, 한태

보조사 : 도, 뺚이, 보토~보톰~보통, 뿐, 까장, 썩, 조차, 만, 마도~마동, 할라, 할차[3]

접속조사 : 하고

1) 단형조사는 기저형이 단일한(즉 單一基底形을 가진) 조사이고, 다형조사는 기저형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인(즉 多重基底形을 가진) 조사이다.

2) 부록1(조사 목록) 참조.

3) '할차'는 '할라'와 '조차'의 혼성으로 생긴 것이다(이기갑 1987).

문말조사 : 고

다형조사
격조사 : 이/가, 을/를~ㄹ, 으로/로, 애/이, 애서/이서, 애다/이다, 애다가/이다가, 애가/이가, 아/야
보조사 : 은/는~ㄴ, 이야/야~이사/사, 이라도/라도, 이나/나1, 이나/나2, 이나마나/나마나, 이나따나/나따나
접속조사 : 이랑/랑

이 중에는 둘 이상의 自由變異形을 가진 것들이 있다.

보도~보돔~보동, 맹이로~맹기로~맹키로, 보토~보톰~보통,
마도~마동,
를~ㄹ, 는~ㄴ, 이야/야~이사/사

'을/를~ㄹ'과 '은/는~ㄴ'에서 ㄹ, ㄴ은 각각 '를, 는'과 자유변이한다. '를~ㄹ', '는~ㄴ'은 자음 뒤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를, 는'에 비해 'ㄹ, ㄴ'은 덜 쓰인다. '이야/야~이사/사'의 경우에는 '이야/야'와 '이사/사'가 자유변이한다. 뒤엣것은 중세국어의 '이ᅀᅡ'로부터 ㅿ>ㅅ의 변화를 거친 형태이고 앞엣것은 최근에 다른 방언으로부터 차용된 형태인 듯하다.

多形助詞의 각 형태의 選擇條件은 대부분 '자음뒤/모음뒤'이다. 예를 들어 '이/가'는 '발-이(자음 뒤), 머리-가(모음 뒤)'와 같이 쓰인다. 이런 선택조건을 가진 조사는 다음과 같다.

격조사 : 이/가, 을/를~ㄹ, 아/야
보조사 : 은/는~ㄴ, 이야/야~이사/사, 이라도/라도, 이나/나1, 이나/나2, 이나마나/나마나, 이나따나/나따나
접속조사 : 이랑/랑

한편 '으로/로'는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으로'가, ㄹ이나 모음 뒤에서 '로'가 선택된다.

기저형 중 하나가 '으X'형인 조사 '을/를~ㄹ, 은/는~ㄴ, 으로/로'에 대해 基底形을 '을/를, 은/는, 으로'로 설정하는 方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형태 'ㄹ, ㄴ, 로'는 각각 기저형 '을, 은, 으로'에서 '으'가 脫落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것으로 기술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하는 데는 두가지 問題가 있다. 우선 '을, 은'에 적용되는 '으'탈락규칙과 '으로'에 적용되는 '으'탈락규칙의 環境이 다르다. '을, 은'의 경우에는 모음 뒤에서 '으'가 탈락하여 이형태 ㄹ과 ㄴ이 도출되지만 '으로'의 경우에는 모음이나 ㄹ 뒤에서 '으'가 탈락하여 '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것은 '으'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이 一般性을 가지지 못함을 뜻한다. 둘째, 이형태 ㄹ과 ㄴ이 '을, 은'의 '으'가 모음 뒤에서 탈락하여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형태 ㄹ과 ㄴ의 쓰임도 一般的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음운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형태 ㄹ, ㄴ의 쓰임이 制限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자음 뒤에 쓰이는 '을, 은'과 대등하게 모음 뒤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형태는 '를, 는'이고 ㄹ, ㄴ은 제한적으로만 쓰인다. ㄹ, ㄴ은 '를, 는'이 쓰이는 환경(자음 뒤)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自由變異形으로 보아야 옳다. 즉 ㄹ, ㄴ은 '을, 은'에서 '으'탈락규칙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을, 은'과 관계없이 자음 뒤에서 '를, 는' 대신에 쓰이는 경우가 있는 또다른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選擇條件이 이와 다른 것은 '애/이'류의 조사들, 즉 '애/이, 애서/이서, 애다/이다, 애다가/이다가, 애가/이가'이다. '이'로 시작하는 기저형은 명사 '집' 뒤에만 나타난다.[4] 그밖의 경우에는 '애'로 시작하는 기저형이 쓰인다.

---

4) 명사 '집'에 붙는 처격조사 형태가 '이'인 것은 여러 방언에서 두루 발견된다. 『한국방언자료집』 충남편, 전북편, 전남편, 강원편 및 이병근(1970, 1991)의 서울·경기 지역, 최명옥(1980:44)의 경북 영덕 지역 등 참조.

집이, 집이서, 집이다, 집이다가, 집이가
산(山)애, 산애서, 산애다, 산애다가, 산애가
차(車)애, 차애서, 차애다, 차애다가, 차애가

'집' 뒤에 쓰이는 형태 '이'는 중세국어의 처격조사 중의 하나인 '의'에 소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지븨>지비). 부정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보조사 '백이'(밖에)의 '이'도 '의'에 소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밧긔>백이).

그리고 '애서, 애다, 애다가, 애가'는 어떤 경우에 '애'를 생략한 채 쓰이는 일도 있다.

핵괴(학교)애서~핵괴서, 서울애서~서울서, 부락애서~부락서
핵괴애다~핵괴다, 서울애다~서울다, 부락애다~부락다
핵괴애다가~핵괴다가, 서울애다가~서울다가, 부락애다가~부락다가
핵괴애가~핵괴가, 서울애가~서울가, 부락애가~부락가

'오늘사'/오늘싸/(오늘에야), '그날사'/그날싸/(그날에야)와 같은 예에서도 '애'가 나타나지 않는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5] 이와 같은 '애'의 생략이 形態의 차원에서만 일어난 것인지 形態素의 차원에서부터 '애'가 아예 없는 것인지 먼저 형태론적인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표준어의 屬格助詞 '의'에 대응하는 조사는 형태상 나타나지 않는다. 일부 단어와 구에 속격조사 '의'의 흔적이 '우, 으'로 남아 있다.

놈우(남의) : 놈우꺼(남의 것), 놈우집(남의 집), 놈우 나락베늘(남의 볏가리)
놈우(놈의) : 썩을놈우 집구석, 잡놈우 달구새끼(닭, 卑語)

---

5) '애' 생략형이 붙을 때 /서울써, 부산써, 서울따, 부산따, 서울따가, 부산따가, 서울까, 부산까/처럼 공명자음 뒤에서 조사두음이 경음화되는 수가 있다.

달구(닭의) : 달구똥(닭똥), 달구새끼(닭, 卑語)[6]
잡녈으(雜列의?) /잡녀르/ : 잡녈으 새끼들(몹쓸 아이들)
오랍우덕(손위올케), 동성으덕(손아래올케), 처남우덕(처남의 댁)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單形助詞는 모두 子音으로 시작하고 多形助詞는 주로 자음 뒤에서 母音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모음 뒤에서는 子音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가진다. 뒤의 사실은 명사에 조사가 연결될 때 자음충돌이나 모음충돌을 방지하여 음운변동이 적게 나타나는 데 寄與하고 있다.

4.2. 명사의 음운구조

명사는 형태음운론적으로 末子音의 종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명자음은 넷 모두(ㅁ, ㄴ, ㅇ, ㄹ) 명사말음으로 나타난다. 장애음 중에서 명사말음으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은 ㅂ, ㅅ, ㄱ이다.

그밖의 障碍音들은 명사말음으로 일정하게 실현되지 못한다. 그 중 ㅃ, ㄷ, ㄸ, ㅆ, ㅊ, ㄲ, ㅎ은 명사말음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 예로 중앙어에서 ㅊ을 말음으로 가지는 '꽃, 낯, 몇, 빛, 숯, 옻, 윷' 등은 각각 '꼿, 낫, 멧, 빗, 숫, 옷, 윳~숫'으로 나타난다.

한편 ㅈ, ㅋ, ㅌ, ㅍ, ㄲ은 이전 시기에 명사말음으로 쓰였던 흔적을 여기저기에 남기고 있다.[7] 이전 시기에 ㅈ末音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

---

6) 기세관(1993:60~1, 63)은 '달구똥<*둙똥, 달구새끼<*둙삿기, 노무집<*놈집'과 같은 변화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런 환경에서 모음 '우'가 발생하는 현상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이기갑(1986:50~6)은 전남지역에서는 경남에 인접한 전남동부의 세 군(구례, 광양, 여천)에서만 파찰음, 유기음, 자음군이 명사말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방언에서 이들이 명사말음으로 일정하게 실현되지

되는 '빗(빚), 젓(젖)'은 ㅅ末音을 가진다. 다음은 명사말음 ㅈ이 특정한 조사와의 결합형에 化石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8)

유:지~유:재(이웃에)
낮이,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되먼(되면), 낮이먼(낮이면), 낮잉깨(낮이니까), 낮이로먼(낮으로는), 낮애, 밤낮이로(밤낮으로)
뜾이~뜻이 안 맞다(뜻)

'유:지~유:재'는 이 방언에서 '*이읒'을 再構하게 해준다. 더이상 '명사+조사'의 구성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일한 부사처럼 인식된다. '낮'은 '이'로 시작하는 조사와 '으로'(전설모음화로 ㅈ 뒤에서 '이로'로 실현됨), 지정사, '애'가 연결될 때 ㅈ말음을 유지한다.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낫은'(낮은)처럼 '낫'으로 나타난다. 복합어 '밤낮이로'(밤낮으로)에도 ㅈ말음이 남아 있다. 주격조사가 붙은 '뜾이'는 '뜾이 안 맞다'라는 관용표현 속에서 살아남은 옛 어형이다. 중세국어의 '뜯-이'가 '뜨디>뜨지'(구개음화)로 전해진 것이다. '버러지기'(버르장머리)도 지금은 이 방언에서 쓰이지 않는 '*버릊'(버릇)을 재구하게 해준다.

이전 시기에 ㅋ을 가졌을 법한 '녁'은 '웃녁(북쪽 지방), 이녁(자기 자신)'과 같은 단어에 ㄱ말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애'가 연결된 어형에 ㅋ이 명사말음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부샄애(아궁이에)
문앜애~문앞애(문앞에), 문앜으로~문앞으로

'부샄'의 ㅋ은 표준어 '부엌'의 ㅋ과 기원적으로 같을 것이다. '부샄을'과

못하는 사실은 그 논의와 일치한다.

8) 처격조사 '애, 애가, 애다, 애다가'는 옛 명사말음이 화석으로 남는 환경으로 가장 흔하다. 이 점에서 넷이 똑같으므로 이 중 '애'만을 언급한다.

같이 대격조사가 연결될 때도 ㅋ을 유지하는 화자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삭이, 부삭은, 부삭을'과 같이 ㄱ말음을 가진다. '문악애, 문악으로'는 '문앞에, 문앞으로'에서 ㅍ이 어떤 이유에선가 ㅋ으로 변해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이기갑 1986:53). ㅍ이 '문'의 ㅁ과 조음위치가 같기 때문에 일어난 異化가 아닌가 한다.

이전 시기에 ㅊ이나 ㅌ을 가졌을 법한 '폿'(팥)도 ㅅ末音으로 나타난다. 한편 다음은 '애'가 연결된 어형에 ㅌ이 명사말음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밑애, 밭애, 볕애(별에), 솥애, 끝애, 배같애(바깥에)
밑으로, 끝으로, 배같으로(바깥으로)
젙애(곁에)

'밑, 밭, 볕, 솥, 끝, 배같'은 다른 조사 앞에서는 '밋, 밧, 벳, 솟, 끗, 배갓'과 같이 ㅅ말음을 가진다. 한편 '끄터리'(끄트머리)에는 '끝'의 말음 ㅌ이 化石으로 남아 있다. 또 '시루밑'은 ㅅ말음을 가진 '시리밋'(화자에 따라서는 '시릿밋')으로만 쓰인다. '젙애'의 '젙'은 다른 조사와 어울려 쓰이지 않는다.

'앞, 옆' 두 단어에서만은 ㅍ이 명사말음으로 온전히 實現된다.

앞이, 앞은, 앞을, 앞애, 앞으로, 앞이나 옆이나
옆이, 옆은, 옆을, 옆애, 옆으로, 옆이나 앞이나

'섶(누에 올리는 섶), 짚' 두 단어는 화자에 따라 ㅍ말음을 가지기도 하고 ㅂ말음을 가지기도 한다. ㅍ>ㅂ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라 할 수 있다. '숩(숲), 헝:겁(헝겊)'의 말음은 ㅂ으로만 나타난다. 한편 '물팍'(무르팍)은 이 방언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명사 '*무릎'을 再構하게 해준다.

ㄲ으로 끝난 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으나 보조사 '밲이'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名詞末子音群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나 ㄺ, ㄳ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까달기(까닭), 달구똥(닭똥), 달구새끼(닭, 卑語)
목시(몫), 낙수(낚시)

'까달기'는 '까닭'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듯하다. 명사 '닭'은 '닥'으로 나타나며 '닥알(달걀), 닥장(닭장), 닥털(닭털)' 등의 복합어에서는 말자음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표준어의 '칡, 흙'은 '칙, 혹'으로 나타난다. '목시'도 '몫'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듯하다. '낙수'는 중세국어의 '낛'이 중부방언에서는 모음 '이'가 붙은 어형 '낙시'(맞춤법에 따르면 '낚시')로, 이 방언에서는 모음 '우'가 붙은 어형 '낙수'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9] 또 표준어의 '삯, 값, 여덟'은 각각 '싹, 갑, 야달~여덜'로 나타난다.

조사와의 결합에서 옛 末子音을 화석으로 가진 명사들은 多重基底形을 설정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삭'은 '애'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나는 기저형이고 '부삭'은 그 밖의 경우에 나타나는 기저형이 된다. 다중기저형을 설정해야 할 명사들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낮/낫, 뜻/뜻~뜻
부삭/부삭, 문악/문앞
밑/밋, 밭/밧, 볕/볏, 솥/솟, 끝/끗, 배같/배갓

9) 말음 '우'의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낙수'에 '낛'의 말자음군이 화석으로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전승(1986:260)은 '낙시'를 잘못 분석한 형태 '낙싀'에서 '낙싀>낙쉬>낙수'를 거쳐 전북방언형 '낙수'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각 기저형의 선택조건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명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결론적으로 이 방언의 名詞末子音體系는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널리 쓰이는 것들만 고려하면(즉 '앞, 옆'에만 나타나는 ㅍ도 제외하면) 아주 單純한 것이다. 音節末子音體系와는 치조장애음 ㄷ과 ㅅ에서만 차이가 난다.10)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장애음		ㅂ	ㅅ	ㄱ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4.3. 음운현상

명사가 單獨으로 쓰일 때는 별다른 음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명사의 기저형이 그대로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만 ㅅ, ㅍ으로 끝난 명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ㅅ, ㅍ이 음절말에 놓이게 되므로 각각 ㄷ, ㅂ으로 평폐쇄음화되는 것이 唯一한 음운변동이다(옷→옫, 앞→압).

명사에 조사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子音에 관한 音韻過程은 음절연결제약에 따른 것들이다. 이들은 §3.3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예만 든다.

10) 명사말자음체계의 단순함은 단독형을 기준으로 한 유추변화의 결과이다(강창석 1985, 송철의 1991).

비음화

폴뚝마나(팔뚝 만하게)→폴뚱마나, 집집마동(집집마다)→집찜마동

조음위치동화

삼춘보고→삼춤보고, 버섯맹이로(버섯처럼)→버섬맹이로,

보신까장(버선까지)→보싱까장, 집까장(집까지)→직까장

경음화

이녁(자기)보고→이녁뽀고, 이깝(미끼)도→이깝또

혹(홁)조차 멋:(뭣)조차→혹쪼차 먿:쪼차

ㅎ탈락

수꾸락(숟가락)하고 저끄락(젓가락)하고→수꾸라가고 저끄라가고

놉(일꾼)한태→노반태, 빗할라(빗마저)→비달라

그밖에 자음에 관한 음운과정으로 공명음 사이의 隨意的인 ㅎ脫落이 있다. 모음이나 공명자음 ㅁ, ㄴ, ㅇ, ㄹ로 끝난 명사 뒤에 ㅎ조사가 연결되면 ㅎ이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하내(할아버지)한태→하내안태, 손하고 발하고 →소나고 바라고, 정:심(점심)할라→정:시말라.

명사에 조사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母音에 관한 音韻過程으로 주된 것은 움라우트이다.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말음절 후설모음이, '이'로 시작하는 조사(주격조사, 이랑, 이야, …) 앞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 동화음 '이'의 前舌性에 의한 逆行同化이므로 피동화음의 다른 자질(순음성, 저설성)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비어두에서 '어, 아'가 모두 '애'(E)로 바뀌기 때문에 비어두의 '아'는 저설성에 변화가 생긴다(저모음→중모음).

쌀금이(쌀값이)→쌀끼미 (으→이)

떡이→떼기, 그럭이(그릇이)→그래기 (어→애(E))

감:이→개:미, 밀:창(미닫이)이→밀:챙이 (아→애(E))

국이→귀기, 서:숙(조)이→서:쉬기 (우→위)

톱이→퇴비, 새복(새벽)이→새뵈기 (오→외)

그리고 介在子音(결국 명사말자음)은 양순음(ㅂ, ㅁ)이나 연구개음(ㄱ, ㅇ)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ㄴ, ㄹ, ㅅ으로 끝난 명사는 움라우트를 겪지 않는다.

베늘(볏가리)이→베느리, 십원이→시버니, 젓갈이→저까리
숫(숯)이→수시, 손이→소니

움라우트는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다. '쌀끄미, 떠기, 그러기, 가:미, 밀:창이, 구기, 서:수기, 토비, 새보기'와 같은 어형도 나타날 수 있다.

움라우트 : 자음으로 끝난 명사 말음절의 후설모음이 모음 '이'를 가진 음절 바로 앞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 (수의적)

움라우트 외에 모음에 관한 음운과정으로 半母音添加가 있다. 모음으로 끝난 명사에 처격조사 '애'나 '애'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y가 수의적으로 첨가된다.11)

비애→비얘, 테애→테얘, 쾨(코)애→쾨얘, 뒤:애→뒤:얘,
사그(砂器)애→사그얘, 자징거(자전거)애다→자징거얘다, 차애→차얘,
사:주(四柱)애가→사:주얘가, 책보(보자기)애다가→책뽀얘다가

y첨가1 : 명사 말모음 뒤, '애' 앞에 y가 첨가된다. (수의적)

11) 이병근(1970:48)은 경기방언에서 처격조사 '에'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일반적으로 '예'로 실현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전설모음으로 끝난 명사에 격조사 '하고, 한태, 한트로'나 보조사 '할라, 할차'가 연결될 때도 ㅎ이 탈락한 후에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y가 수의적으로 첨가된다.

쳉이(키)하고→쳉이야고, 할매(할머니)한트로→할매얀트로,
멩태(명태)할라→멩태얄라, 쥐하고 괴:(고양이)하고→쥐야고 괴:야고

y첨가2 : 명사말의 전설모음 뒤, '아' 앞에 y가 첨가된다. (수의적)

양순음 ㅂ, ㅁ, ㅍ 뒤에서 조사두음 '으'는 '우'로 수의적으로 圓脣母音化된다.

놉(일꾼)을→노불, 옷갑(옷값)은→오까분,
거름을→거르뭄, 앞으로→아푸로

원순모음화 : 조사두음 '으'가 명사말의 양순음 뒤에서 '우'로 바뀐다. (수의적)

명사와 조사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모음에 관한 음운과정들(움라우트, y첨가1, y첨가2, 원순모음화)은 모두 隨意的이라는 특징이 있다.

5. 활용에서의 음운현상

용언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형태론적 과정인 活用에서는 주로 어간의 末音과 어미의 頭音이 음운현상에 관여한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 즉 활용형에는 여러가지 형태음운론적인 변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語幹과 語尾의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音韻現象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작업과 따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간은 수가 많고 말음별 유형도 다양한 데 비해 어미는 수가 적고 두음별 유형이 단순하다. 그러므로 우선 어미의 음운구조를 먼저 살피고 나서 어간말음별로 음운현상들을 다루기로 한다.

5.1. 어미의 음운구조

어미는 頭音의 종류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진다.[1]

자음어미 : 기저형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모음어미 : 기저형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매개모음어미 : 기저형이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는 '-으X', ㄹ이나 모

1) 국어의 어미를 이 세가지로 나누는 전통은 이희승(1931), 최현배(1937)에서 시작되었다(배주채 1993). 그러나 각각에 대해 여기 제시한 정의는 종래의 것을 더 정확히 다듬은 것이다. 이 정의는 아래에서 각 어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당화될 것이다.

음 뒤에서는 '-X'인 어미

5.1.1. 자음어미

子音語尾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

선어말어미 : 겄, 드[3]
전성어미 : 기, 든
연결어미 : 간디~가니, 개, 고, 그덩, 근~그나, 느니~니, 니, 니라~니라고, 다~다가, 대끼, 드니, 드라도, 드럭, 든~든지, 든디, 든지, 등가, 등마~등마는, 자, 재만~재마는
종결어미 : 은다~는다/다/라,[4] 응구나~능구나/구나,[5] 드라, 냐, 드냐~디냐, 자, 니라, 내, 대, 등가, 소, 새, 드라고, 덩요, 덩이, 재, 니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障碍音으로 시작하는 어미에는 ㄱ어미, ㄷ어미, ㅈ어미, ㅅ어미가 있고 共鳴子音으로 시작하는 어미에는 ㄴ어미가 있다.

이들이 용언어간 뒤에 쓰일 때 자음끼리 만나는 경우에 子音連結制約에 따라 음운현상이 일어난다(§3.3 참조).

---

2) 어미 전체의 목록은 부록2 참조. 어미 목록의 제시에서는 붙임표(-)를 생략하기로 한다.
3) '-드-'의 분포는 아주 제한되어 있으므로 '-드-'가 통합된 어미도 편의상 자음어미목록에 넣는다(-든, -드니, -든디, -든지, -등가, -등마, -드라, -드냐~디냐, -대, -덩요, -덩이).
4) '-은다~는다'는 동사어간 뒤에 나타나고, '-다'는 형용사어간 뒤에 나타나며, '-라'는 선어말어미 '-드-' 뒤에, 그리고 내포절의 서술어 지정사어간 뒤에 나타난다(하드라, '꿩:'이라 글재).
5) '-응구나~능구나'는 동사어간 뒤에 나타나고, '-구나'는 형용사어간이나 지정사어간 뒤에 나타난다.

익고 /익꼬/ (경음화), 익냐 /잉냐/ (비음화)
받고 /박꼬/ (경음화, 조음위치동화), 받소 /바쏘/ (경음화, ㄷ탈락)

이와 같은 음운과정들은 어미끼리 연결될 때도 일어난다. 그것은 이들이 自動的인 음운과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겠-' 뒤에 자음어미가 연결되어 이들 음운과정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익겠다 /익껟따/ (경음화), 익겠냐 /익껜냐/ (비음화)
받겠고 /박껵꼬/ (경음화, 조음위치동화), 받겠소 /박께쏘/ (경음화, ㄷ탈락)

5.1.2. 모음어미

母音語尾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어말어미 : 았
연결어미 : 아, 아도/라도, 아서/라서, 아야/래야~아사/라사, 아다~아다가
종결어미 : 아라1~그라/니라~ㄴ나,[6] 아라2, 아

'-아야/래야'와 '-아사/라사'는 自由變異한다. '-아도/라도, -아서/라서, 아야/래야~-아사/라사'에서 '-라도, -라서, -래야~라사'는 지정사어간 뒤에 연결되는 기저형이다. 집이라도, 집이라서, 집이래야~집이라사(집

6) '-아라1~그라/니라~ㄴ나'에서 '-니라~ㄴ나'는 '오-'(來) 뒤에 연결되는 기저형이다. 오니라~온나(오너라). '-그라'는 몇몇 어간에만 잘 연결된다.

가:그라(가거라), 자:그라(자거라), 놀:그라(놀아라),
앙ㄱ그라(앉거라), 있그라, ?쉬:그라(쉬어라), ?웃:그라(웃어라)

이라야).

모음어미의 두음은 앞에 오는 어간이나 어미의 음운구조에 따라 '아/어/애/에'로 交替한다(위에서는 편의상 '-아X'를 대표형으로 삼아 표기한 것이다).

아 : 녹아, 배와, 따듬아(다듬어), 가, 봐:
어 : 잡어, 집어, 묵어, 빗어, 드물어, 떠, 눠:
애 : 돼:, 개:
에 : 게:(기어), 뛔:(뛰어)

'아/어/애/에'가 기저에서 한가지인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아'나 '어' 중에서 한쪽을 基底形이라고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아'를 기저형으로 보면 '아→어'의 음운규칙이 필요하고 '어'를 기저형으로 보면 '어→아'의 음운규칙이 필요하다(이들은 이른바 母音調和規則이다). 이들이 음운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적용되는 環境과 動機가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모음조화규칙의 環境이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자. 먼저 '아'는 다음과 같은 어간 뒤에 나타난다.

말음절 모음이 '오'인 자음어간
녹아, 좁아, 돌아, 몲아, 볿아
말음절 모음이 '아'인 자음으로 끝난 일부 어간
갈아, 달아, 살아, 잘아, 긁아, 닮아, 쌂아
말음절 모음이 '으, 우'인 자음으로 끝난 일부 다음절 어간
따듬아, 더듬아, 맨들아~맹글아, 몽글아, 보둠아, 뽀숙아
'오'어간
와, 봐:
'우'로 끝난 다음절 어간

가뫄, 당과, 메솨, 피와

첫음절 모음이 '오'이고 말음절 모음이 '으'인 모음어간과 '르'다형어간

고파, 노파, 몰:라(不知), 몰라(乾), 쪼사, 꼬실라

'어'는 다음과 같은 어간 뒤에 나타난다.

말음절 모음이 '이, 애, 위, 어'인 자음어간

딛어, 식어, 읽어, 입어, 있어, 질어, 꿂어, 가직어

뺏:어, 윗어, 걸어, 넘어, 썩어, 얻:어, 젊어

말음절 모음이 '으, 우'인 자음으로 끝난 단음절 어간

들어, 뜯어, 긁어, 묻어, 불어, 굵:어, 붙어

말음절 모음이 '아'인 자음으로 끝난 일부 어간

같어, 남어, 닫어, 알어, 잃어, 날어, 말어(勿), 얇어, 앙거

말음절 모음이 '으, 우'인 자음으로 끝난 일부 다음절 어간

가물어, 너끌어, 드물어, 뚜둘어, 뿌숙어, 서:뜰어, 야물어, 여물어,
웝뚤어

'우'로 끝난 단음절 어간

눠:, 꿔:, 줘:

'으'어간

서(立, 酸), 커, 허

첫음절 모음이 '오'가 아닌 '으'로 끝난 다음절 어간

눌:러(壓), 흘러, 당거, 마떠, 배터, 시:뻐, 아퍼, 탐버, 지달러[7]

모음조화규칙을 '아→어'의 방향으로 설정하든 '어→아'의 방향으로 설정하든 위와 같은 복잡한 條件을 그 환경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명시되는 환경에서 적용되는 음운규칙은 그 自然性

7) '따러(따르-), 빨러(빨르-), 갈러(갈르-), 날러(날르-), 때울러(때울르-), 까불러(까불르-)' 대신 '따라, 빨라, 갈라, 날라, 때울라, 까불라'도 나타난다.

이 아주 의심스러운 존재이다. 그리고 말음절 모음이 '아'인 자음어간과 말음절 모음이 '으, 우'인 자음으로 끝난 다음절 어간은 단어에 따라 어미 '아'를 취하기도 하고 '어'를 취하기도 한다. 즉 모음조화규칙이 어휘적 예외를 가지는 것이다. 語彙的 例外를 가진 음운규칙은 一般性이 없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

모음조화규칙의 動機도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모음조화가 모음에 의한 모음의 同化現象이므로 모음조화규칙은 마땅히 同化規則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미 '아'를 취하는 어간의 모음들 '으, 아, 우, 오'나, '어'를 취하는 어간의 모음들 '이, 애, 위, 으, 어, 아, 우'는 동화음이 되어야 하므로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이라 부를 만한 自然部類를 형성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또 피동화음 '아, 어'도 동화음들과 각각 자연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동화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다.

'아→어'나 '어→아'와 같은 음운규칙이 설정될 수 없다면 '아, 어' 각각을 주어진 조건에서 基底形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형태 '애, 에'는 각각 '아, 어'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8] 따라서 어미 {-아}의 기저형을 '-아, -어' 둘로 잡고, 다른 모음어미의 기저형도 '-아X, -어X' 둘로 잡는다.

5.1.3. 매개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9]

선어말어미 : 으시, 으꺼~으꺼이, 응갑[10]

8) 이에 대해서는 '애'어간과 '외'어간(§5.2.2.4), '이'어간과 '위'어간(§5.2.2.5)을 기술하면서 논의한다. 배주채(1991a)에서는 이형태 '애, 에'도 주어진 환경에서 기저형으로 설정했으나 여기서는 '아, 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9) 현대국어의 매개모음어미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배주채(1993)에 정리되어 있다.

전성어미 : 은, 은~는, 을
연결어미 : 으까, 으까니~으까미~으깨미, 으꼬, 으나, 으나따나, 으나마나, 으니, 으로, 으먼, 은디/~는디, 은지/~는지, 을라, 을라~을라고, 을라말라, 을란지그나, 을막정, 을씨럭, 을쩐정, 을찌라도, 음사, 음시로~음시롬~음시롱, 응가/~능가, 응가니/~능가니, 응고/~능고, 응깨, 응마~응마는/긍마~긍마는

종결어미 : 은다~는다/다/라, 으렴, 으마, 을라~을래, 응가/~능가, 은가/나, 음새, 으시, 으요~소, 읍디다~습디다, 으요~소, 읍딩요~습딩요, 으씨요, 읍시다, 읍니꺄~습니꺄, 읍디꺄~습디꺄, 으깨, 으까, 을래, 응구나~능구나/구나, 은디/~는디, 음시로~음시롬~음시롱, 응깨, 응마/~긍마 ~응마는/~긍마는, 으까, 으꼬, 응가/~능가, 응고/~능고

매개모음어미는 앞에 오는 어간이나 어미의 음운구조에 따라 '-으X'와 '-X'로 交替한다(위에서는 편의상 '-으X'를 대표형으로 삼아 표기한 것이다).

---

10) '-응값-'은 '-은가 보-'가 문법화된 것이 틀림없는데 말자음군 ㅂㅆ을 가지게 된 연유는 확실치 않다. 뒤에 붙을 수 있는 어미는 제한되어 있다. 어간 '하-'에 붙은 활용형을 몇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어미와 결합 : 항값다, 항값드라, 항값구나, 항값냐, 항값드냐, 항값내, 항값대, 항값소, 항값재, 항값딩이, 항값긍마, 항값습디다, 항값습딩요, 항값어
연결어미와 결합 : 항값고, 항값그뎅, 항값드니, 항값등마, 항값재만, 항값는디, 항값는지, 항값어서, 항값응깨

이승재(1980b)는 구례지역어에서의 '옹갑'의 쓰임을 검토하고 형식명사 '갑'을 설정해야 함을 논의했다. 이 방언에서는 구례지역어의 '-옹갭이다'와 같은 형태가 쓰이지 않으므로 형식명사 '갑'은 설정하지 않고 '-응값-'을 선어말어미로 본다.

두 형태를 모두 基底形으로 설정하지 않고 '-으X'만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활용형은 '으'탈락규칙을 통해 도출하게 된다.

익으먼, 들-으먼→들먼, 개:-으먼→개:먼
'으'탈락규칙 : 모음이나 ㄹ 뒤에서 '으'가 탈락한다.

강창석(1982)는 중앙어에서 '으'脫落規則의 自然性을 의심하고 모음이나 ㄹ 뒤에는 처음부터 어미두음으로 '으'가 없었다고 보았다. '으'탈락규칙을 이용한 기술에 대한 그의 批判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모음이나 ㄹ 뒤에 기저에서 '으'가 있었다면 그 '으'를 탈락시키는 '으'탈락규칙은 어떤 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外在的 規則順이 필요하다. '알:-으니'에서는 短母音化規則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알:-으니→알:니→아:니), '가-으니'에서는 報償的 長母音化規則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가-으니→가니), '좋-으니'에서도 ㅎ脫落規則보다 나중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좋-으니→조으니). 즉 '으'탈락규칙은 단모음화규칙과 보상적 장모음화규칙을 出血시켜야 하고 '으'탈락규칙과 ㅎ탈락규칙은 逆給與順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재적 규칙순에 따라 모음이나 ㄹ 뒤의 '으'를 도출이 시작되자마자 탈락시켜 버린다는 것은 그 '으'가 처음부터(기저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助詞 '은, 을'의 두음 '으'가 ㄹ 뒤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실도 '으'탈락규칙의 自然性을 의심하게 한다. 강창석(1982)의 비판은 구체음운론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이다.11)

11) 그러나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으'添加規則에 의한 기술은 '으'탈락규칙에 의한 기술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배주채 1993). 한편 김성규(1988)은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으로 '-으X'와 '-X' 둘다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으'탈락규칙을 조금 수정하여 고수하는 方案과 '으'탈락규칙을 아주 없애는 方案을 하나씩 제시하고 多形語幹과의 연결양상을 올바로 기술할 수

'으'탈락규칙이 가지는 또 한가지 問題點은 단음절 용언어간의 音長交替와 관련된 것이다. §5.2에서 보게 되듯이 '갈-*, 낫-*'과 같은 어간들은 장음으로 실현될 때도 있고 단음으로 실현될 때도 있다. 이 음장의 교체는 종래에 흔히 短母音化規則으로 기술되어 왔으나 어휘적 例外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5.2 참조). 장음을 가진 형태와 단음을 가진 형태를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두 基底形(장음형태와 단음형태)의 출현조건은 매개모음어미가 두음 '으'를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결정되기 전에는 명시할 수 없다. 똑같은 어미 {-으면}이 연결되더라도 '갈-*'은 '갈:-면'으로, '낫-*'은 '낫-으면'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갈:-면, 낫-으면'과 같은 '-면/으면'의 교체를 음운규칙으로 기술한다면 어간의 기저형을 그 규칙의 적용 이후에 정해준다는 不合理가 발생하게 된다. 음운규칙은 마땅히 모든 형태소에 대해 기저형이 부여된 이후에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현대 음운이론의 前提인 것이다.[12)]

또 ㄹ뒤 '으'탈락규칙에 대해서는 反證例가 존재한다. 중앙어에는 ㄹ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패러다임이 규칙화된 다음 예들이 나타난다(이병근 1981).

허물은, 허물을, 허물으면, 허물으니, 허물으시고, 허물으리다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 방안이 가진 長短點만을 살피고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2) 이혁화(1994:59~61)에서 경북 금릉방언의 /강꼬(RH), 가믕개(HLL)/(捲)와 /놀고(RH), 놓개(RH)/(遊)의 분절음의 변동과 성조형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으X'와 '-X' 둘로 잡아야 함을 논의했다. '감-, 놀-' 등의 성조형이 R형인지 H형인지는 어미두음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 '으'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 후에 성조형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우리가 제시한 근거도 본질적으로 그것과 같다.

이 어형들은 곡용뿐만 아니라 활용에서도 ㄹ 뒤에서 '으'가 탈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활용에서 ㄹ 뒤의 '으'가 탈락한다고 하는 다음 패러다임이 불규칙적인 패러다임인 것이다.

허문, 허물, 허물면, 허무니, 허무시고, 허물리다

이것은 ㄹ 뒤에서 '으'가 탈락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도출방식이라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방언에서 '으'탈락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매개모음어미의 基底形을 '-으X'와 '-X' 둘다 설정한다.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과 '갈-*, 낫-*, 잡-, 사-'의 활용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갈-*'의 어간말음 ㄹ의 교체는 §5.3.1 참조).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 : // -으X(ㄹ 이외의 자음뒤)/X(ㄹ이나 모음 뒤)// 13)

-으먼, -으까 : 낫-으먼, 낫-으까, 잡-으먼, 잡-으까 (ㄹ 이외의 자음 뒤)
-먼, -까 : 갈:-먼, 가:-까, 사-먼, 사-까 (ㄹ이나 모음뒤)

매개모음어미도 自由變異形을 가진 것들이 있다. 첫째, 先語末語尾 '-으꺼~으꺼이-'를 들 수 있다. 그 활용예는 다음과 같다.

가꺼다(가-꺼-다)~가꺼이다(가-꺼이-다),
가꺼먼(가-꺼-먼)~가꺼이먼(가-꺼이-먼),

---

13) // //는 형태음소표시(기저형)를 나타낸다. 표면음소표시는 / /로 나타낸다. //먹-는// →/멍는/. 2장의 주3 참조.

가꺼(가-꺼-어)~가껴여(가-껴이-어)

둘째, '느'계 自由變異形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첫째 유형에 속하는 '-은~는, -은다~는다, -응구나~능구나'와 둘째 유형에 속하는 '-은디/~는디, -은지/~는지, -응가/~능가, -응가니/~능가니, -응고/~능고'를 들 수 있다.14) 첫째 類型에서 '느'계 형태 '-는, -는다, -능구나'는 매개모음어미의 이형태 중 '-으X'와 자유변이한다. 즉 ㄹ 이외의 자음 뒤에만 나타난다.

익은~익는, 잡은~잡는
익은다~익는다, 잡은다~잡는다
익응구나~익능구나, 잡응구나~잡능구나

둘째 類型에 속한 것들은 조건변이와 자유변이가 얽혀 각 형태의 출현조건이 복잡하다. '/~'와 같은 기호를 만들어 쓴 것은 이 때문이다.

-X : 모음 뒤
(한디, 한지, 항가, 항가니, 항고)
-으X~느X : 자음 뒤('쌨:-, 있-, 없-, -앖-, -겂-, -응값-' 뒤는 제외)
(익은디~익는디, 익은지~익는지, 익응가~익능가, 익응가니~익능가니, 익응고~익능고)
-느X : '쌨:-, 있-, 없:-, -앖-, -겂-, -응값-' 뒤15)

14) '으'계 형태와 '느'계 형태가 자유변이하는 경우에 '으'계 형태가 구형이고 '느'계 형태는 신형이라고 생각하는 화자도 있다.
15) 항상 '-느X'만 취하는 '있-, 없:-, -앖-, -겂-, -응값-'은 모두 기저형이 ㅆ으로 끝난 형태소들이다. '있-'이 '-느X'만 취하는 것은 중세에 '잇-'이 형용사인데도 '-ᄂᆞ-'를 취하던 버릇이 남은 것이고, '-앖-, -겂-'은 '잇-'을 포함한 구성에서 발달한 어미이기 때문에 '잇-'의 버릇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쌨:-'도 역시 '있-'을 포함한 구성(쌓여 있-)으로부터의 발달이다(이승

(있는디, 없:는디, 익었는디, 익겄는디, 익응값는디, …)

셋째, ㅅ계 自由變異形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으요~소, -읍디다~습디다, -읍딩요~습딩요, -읍니꺄~습니꺄, -읍디꺄~습디꺄'를 들 수 있다. ㅅ계 형태는 매개모음어미의 두 이형태 중 '-으X'와 자유변이한다. 즉 ㄹ 이외의 자음 뒤에만 나타난다. ㅅ계 형태와 '으'계 형태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가진다.

익으요~익소, 익읍디다~익습디다, 익읍딩요~익습딩요,
익읍니꺄~익습니꺄, 익읍디꺄~익습디꺄

넷째, 'ㄱ'계 自由變異形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응마/~긍마', 그것과 자유변이하는 '응마는/~긍마는'를 들 수 있다. 어미말음절 '는'은 수의적으로 출현한다. 'ㄱ'계 형태와 '으'계 형태가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가진다. '-응마/~긍마'의 출현조건만 보면 다음과 같다.

-응마 : '쌨:-, 있-, 없:-, -았-, -겄-, -응값-' 이외의 형태소 뒤
(항마, 익응마)
-긍마 : 모든 경우
(하긍마, 익긍마, 있긍마, 없:긍마, 익었긍마, 익겄긍마, 익응값긍마)

'느'계 형태, ㅅ계 형태, 'ㄱ'계 형태는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자음어미에 속한다. '느'계 형태와 ㅅ계 형태가 다른 자음어미와 다른 점은 이들이 자음어간 뒤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느'계 형태와 ㅅ계 형태의

재 1992). '없:-'은 '잇-'의 버릇에 유추하여 자신도 '-ㄴ-'를 취하는 쪽으로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응값-'도 ㅆ으로 끝난 형태소들이 모두 '-느X'만 취하는 데 유추한 듯하다.

자유변이는 자음어간 뒤에서 일부의 매개모음어미와 자음어미가 자유변이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 단형어간

용언어간도 기저형이 단일한 것(單形語幹)과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둘 이상인 것(多形語幹)으로 나뉜다. 단형어간은 末音의 종류에 따라 子音어간과 母音어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5.2에서 단형어간 중에서 자음어간과 모음어간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5.3에서 다형어간을 유형별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각 어간의 기저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간과 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音韻過程들도 함께 논의한다.

모든 어간에 共通으로 나타나는 음운과정에 움라우트가 있다. 명사형 어미 '-기'의 모음 '이' 때문에 어간말음절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다.

띁기 /띠끼/(뜯기), 넴:기 /넹:끼/(넘기), 붇잽기 /부째끼/(붙잡기),
뷧:기 /뷔:끼/(붓기), 쀕기 /뾔끼/(뽑기),
띠기(뜨기), 단내기(달아나기), 쥐기(주기), 나외기(나오기)

움라우트 : 어간말음절의 후설모음이 모음 '이'를 가진 음절 바로 앞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 (수의적)

5.2.1. 자음어간

子音語幹에 母音語尾가 연결될 때 어미의 기저형은 '-아'와 '-어' 둘 중에서 선택되는데 주로 어간말음절 모음에 따라 결정되고 일부의 경

우에는 각각의 단어에 따라 결정된다(§5.1.2 참조). 子音語幹에 子音語尾가 연결될 때 자음연결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들은 §3.3과 §5.1.1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

子音으로 끝난 單音節語幹은 音長交替의 면에서 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항상 단음으로 실현되는 어간
   녹-, 닫-, 집-, 벗-, 들-, …
② 항상 장음으로 실현되는 어간
   곱:-/고:우, 굵:, 벌:, 뺏:, 쉽:-/쉬:우, 쌨:-, 썰:, 얻:-, 업ㅆ:, 작:-~짝:, 좋:-/조:우- (11개)
③ 음장교체가 있는 어간(별표 붙인 어간)
   갈*, 숨-*, 신-*, 딛-*, 낫-*, 떱:-/떠우-*, …

①과 ②에 속한 어간은 어떤 어미가 연결되어도 음장이 변동하지 않는다.

	녹-	곱:-/고:우-	벌:-
자음어미 활용형	: 녹뜨라	곱:뜨라	벌:드라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 노그먼	고:우먼	벌:먼
모음어미 활용형	: 노가	고:와	버:러

따라서 이들 어간은 기저에서 장음인지 단음인지 표시해 놓기만 하면 된다.

③에 속한 어간 중 ㄹ로 끝난 語幹은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短音語幹으로,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長音語幹으로 나타난다.

갈-*

자음어미 활용형 : 갈:드라(갈:-드라)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 갈:먼(갈:-먼)
모음어미 활용형 : 가라(갈-아)

③에 속한 어간 중 ㄹ어간이 아닌 語幹은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短音語幹으로, 자음어미가 연결될 때 長音語幹으로 나타난다.

낫-*

자음어미 활용형 : 낟:뜨라(낟:-뜨라)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 나스먼(낫-으먼)
모음어미 활용형 : 나서(낫-어)

ㄹ어간과 나머지 어간의 음장교체의 條件이 다른 듯하지만 형태분석된 表面形을 보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長音語幹은 어미의 표면형이 子音으로 시작할 때 나타나고, 短音語幹은 어미의 표면형이 母音으로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장음어간	어미의 표면형	단음어간	어미의 표면형
갈:-	-드라	갈-	-아
낟:-	-뜨라	낫-	-어
갈:-	-먼	낫-	-으먼

따라서 ③에 속한 어간의 음장은 자음 앞에서 장음, 모음 앞에서 단음으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간의 기저형을 단음을 가진 것만 설정하고 자음 앞에서 長音化된다고 기술하거나(낫-드라→낟:뜨라, 갈-드라→갈:드라) 어간의 기

저형을 장음을 가진 것만 설정하고 모음 앞에서 短音化된다고 기술하면(낫:-어→나서, 갈:-아→가라) ①이나 ②를 규칙에 대한 例外로 처리해야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런 어휘적인 예외를 가지는 규칙은 자연스러운 음운규칙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從來에는 短音化規則을 설정하고 ②를 例外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술해 왔다(김완진 1972, 이병근 1978, 최명옥 1982:124~8 등). ③에 속한 어간은 아주 많고 ②에 속한 어간은 소수(이 방언의 경우 11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③의 활용이 오히려 규칙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음운이론에서는 數보다 質이 중시된다. '입-'(옷을 입다)과 같이 ㅂ어간은 이 방언에서 11개가 확인되는데 '밉/미우-'와 같이 ㅂ과 '우'의 말음교체를 보이는 어간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렇지만 '밉/미우-'와 같은 유형의 어간이 수가 많다고 해서 'ㅂ→우/__V'와 같은 규칙으로 '미우면, 미와' 등을 도출하고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입으면, 입어' 등을 예외로 처리하는 일은 결코 없다.[16] 이러한 규칙은 음운론적 동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自然性이 없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一般性도 없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一貫性있게 유지한다면 음장교체를 가지는 ③의 어간들도 단음화규칙을 가지고 기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③의 어간들에 대해서는 다른 다형어간들처럼 多重基底形을 設定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17]

---

16) 표준어에서도 '르'어간 중 '따르고, 따르니, 따라'와 같이 활용하는 정칙어간의 수가 극히 적고 '흐르고, 흐르니, 흘러'와 같이 활용하는 변칙어간의 수가 많다고 해서 '흐르-' 등의 활용을 음운규칙으로 기술하고 '따르-, 치르-' 등을 그 규칙에 대한 예외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17) 이혁화(1994:56~62)는 경북 금릉방언에서 /강꼬(RH), 가뭉개(HLL)/의 성조변동을 보이는 '감-'(捲)과 같은 어간이 기저에서 語尾頭音의 종류에 따라 두가지 聲調型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함을 논의했다. R형을 기저성조형으로 보고 R형이 H형으로 바뀌는 聲調變動의 規則을 설정하여 기술하

// X:-(자음앞)/X-(모음앞)//

'갈-*, 낫-*'의 기저형과 그 활용형의 생성은 다음과 같다.[18)]

// 갈:-(자음앞)/갈-(모음앞)// : 갈:-드라, 갈:-먼, 갈-아
// 낫:-(자음앞)/낫-(모음앞)// : 낟:-뜨라, 낫-으먼, 낫-어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 語幹과 語尾가 모두 다중기저형을 가지므로 기저형의 選擇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낫-}+{-으먼}에서는 어간말음이 자음이므로 어미의 기저형으로 두음 '으'를 가진 '-으먼'이 선택된다. 이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어간은 단음형태인 '낫-'이 선택된다. 기저형의 연결 '낫-으먼'은 '나스먼'으로 도출된다. 또 {-으먼}은 모음이나 ㄹ 뒤에서는 기저형이 '-먼'이므로 {갈-} 뒤에 '-먼'이 선택되고, 자음 앞에서 {갈-}은 장음형태 '갈:-'이 기저형이 된다. 기저형의 연결 '갈:-먼'은 '갈:먼'으로 도출된다.

음장교체를 가진 어간은 多形語幹이므로 마땅히 §5.3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서 다룰 分節音의 차이에 따른 다형어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기술의 편의상 다른 단형어간과 함께 여기서 다루되 音長交替를 가진 어간은 '*'를 붙여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일이 기저형을 밝히지 않겠다.

는 것은 '얻-, 좋-'과 같이 항상 R형인 어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장교체에 대한 우리의 분석태도와 같다. 금릉방언의 R형/H형의 다형어간은 고흥방언의 장음/단음의 다형어간과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의 流動的 上聲語幹(김완진 1973:54~6)의 후예들이다.

18) '갈-*'과 같은 ㄹ어간의 기저형은 §5.3.1에서 수정된다.

5.2.1.1. 폐쇄음어간

閉鎖音으로 끝난 語幹의 말음에는 ㄱ, ㄲ, ㄷ, ㅌ, ㅂ, ㅍ이 있다.19)

ㄱ어간

녹, 막, 먹, 묵, 박, 삭, 속, 식, 싹, 썩, 익, 작:~짝:, 죽, 찍, 가직, ㄲ직, 뽀슥~뽀숙, 뿌슥~뿌숙,20) 빌어묵

ㄲ어간

닦, 딲, 섞, 젂

ㄷ어간

걷, 딛*, 뜯, 묻, 믿, 받, 뻗, 쏟, 얻:

ㅌ어간

같, 붙, 똑:같

ㅂ어간

곱, 꼽, 뽑, 씹, 업, 입, 잡1, 좁, 집, ㄲ집,21) 되집

ㅍ어간

덮, 돕, 싶, 잪, 짚

---

19) 이제 제시할 어간들은 이 방언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파생어간과 복합어간은 일부에 불과하다. 어간의 예를 열거할 때 편의상 붙임표(-)를 생략한다. 그리고 명백히 다른 어간이라 하더라도 형태가 같으면 구별하지 않고 형태 자체만 제시한다. 음운론적인 논의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묵-1'(묵다)과 '묵-2'(먹다)는 분명히 다른 어간이지만 활용양상은 다른 점이 없으므로 어간의 열거에서는 '묵-'으로 묶어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각 어간의 의미는 부록3 참조. 어간의 의미 확인에는 필자의 어머니(金順要, 66세, 점암면 모룡리 거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20) '뽀슥-~뽀숙-, 뿌슥-~뿌숙-'은 드물게 '뽀식-, 뿌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1) 'ㄲ직-~ㄲ집-'에 어미 '-고'가 연결되면 'ㄲ직고~ㄲ집고' 대신 /ㄲ:꼬/로도 실현된다. 이것은 '*끌:꼬'(<*끌:고)에서 ㄹ이 탈락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간 '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ㄲ꼬'는 구례지역어(이승재 1980a:46), 보성군 벌교지역어(이봉원 구술 1991:37, 39, 41)에도 나타난다.

ㄲ, ㅌ, ㅍ어간은 어간말음에 모음 '으'를 덧붙인 新形('으'확대형)과 공존한다(다만 '같-'은 '가트-'로 쓰이지 않는다).

땎~따끄, 섞~서끄, 젂~저끄
붙~부트
덮~더프, 싶~시프, 잪~자프, 짚~지프

그 활용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섞- : 섞고, 섞으면, 섞어
서끄- : 서끄고, 서끄면, 서꺼
덮- : 덮고, 덮으면/더푸면/, 덮어
더프- : 더푸고, 더푸면, 더퍼

'으'擴大形은 어간의 형태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의 再分析과 '으'탈락규칙(§5.2.2.1 참조)의 뒷받침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섞고'/석꼬/에서의 어간 /석-/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서끄먼/(섞으면)을 /서끄-먼/으로 形態分析하고 /서꺼/(섞어)를 '서끄-어'에서 '으'탈락으로 생겨난 것으로 해석하여 새 어간 '서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폐쇄음어간, 치찰음어간, 자음군으로 끝난 일부 어간과 '-은다~는다'의 연결에서 '-는다'가 연결되어 비음화가 일어난 후에 '는'이 脫落한 형태가 자주 쓰인다. 비음어간과 '-는다'가 연결될 때도 '는'의 탈락형이 쓰인다.

/잠는다~잠다/ (잡는다), /중는다~중다/ (죽는다),
/반는다~반다/ (받는다), /분:는다~분:다/ (붓:는다),
/끄짐는다~끄짐다/ (끄집는다), /뿌숭는다~뿌숭다/ (뿌슥는다),

/봄:는다~봄:다/ (봚:는다), /굼:는다~굼:다/ (굶:는다),
/신:는다~신:다/ (신는다), /따듬는다~따듬다/ (다듬는다)22)

'잠다, 중다' 등의 '는'脫落形은 비음화가 일어난 이후의 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는'의 탈락은 '는'의 모음 '으'가 약화된 결과인 듯하다. '으'가 약화되어 탈락하면 '잠ㄴㄴ다, 중ㄴㄴ다' 등이 '잠다, 중다' 등과 音響的으로 區別되지 않게 된다.23) 그런데 '는'을 포함한 다른 어미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분명치 않다. */잠디/(잡는디), */중지/(죽는지), */반/(받는).

'는'탈락 : '-는다'의 '는'은 비음 뒤에서 탈락한다. (수의적)

---

22) 이 현상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으나 전사된 예는 아주 드물게나마 보인다. 보성군 벌교지역어를 기록한 이봉원 구술(1991:50)에 '잔다고'(잣는다고)가 보이고 『한국구비문학대계 6:3(전남 고흥군편)』(1984)에 몇 예가 보인다.

찬다(찾는다. 435면), 문다고(묻는다고. 491면), 나안다(낫는다. 581면)

그러나 실제로 일상적인 발화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3) 치조음 ㄴ, ㄷ이 모음 '으'나 '이'를 사이에 두고 겹칠 때 모음의 調音的인 脫落이 그 음절 전체나 초성+중성의 탈락을 초래하는 또다른 예를 들 수 있다. '-읍디다~습디다'가 화자에 따라서 '-읍다~습다'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 또 보성군 벌교지역어를 기록한 이봉원 구술(1991)에는 '-다든지'가 '-단지'로 전사된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맨단지(맨다든지. 22면), 장만혼단지(장만한다든지. 61면), 당군단지(담근다든지. 61면), 넌단지(넌다든지. 93면), 내얀단지(내야 한다든지. 156면)

이봉원 구술(1991:62)에는 또 '-는디'의 '는'이 탈락한 '고완디'(고왔는데 麗)도 나타난다.

매개모음어미의 '으'가 圓脣母音化되는 일이 있다. 원순모음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양순음 ㅂ, ㅍ, ㅁ 뒤에서 어미두음 '으'가 '우'로 바뀐다. 이것은 兩脣子音에 의한 원순모음화로서 직접순행동화이다. 곡용에서는 수의적이지만(§4.3 참조) 활용에서는 필수적이다. 폐쇄음어간, 비음어간, 자음군어간이 여기에 관련된다.

넘으먼 /너무먼/, 보듬으까 /보두무까/,
입으먼 /이부먼/, 끄집응깨 /끄지붕깨/,
덮을라고 /더풀라고/, 가고 잪으꺼이다 /자푸꺼이다/,
젊은 /절문/, 얇응깨 /얄붕깨/

둘째, 어간의 모음이 '오, 우'이면 어미두음 '으'가 '우'로 바뀐다. 이것은 圓脣母音에 의한 원순모음화로서 간접순행동화이다. 어간말자음이 중간에 개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순모음화는 수의적이다. 어간말자음이 양순음이면 위의 원순모음화의 적용을 받으므로 필수적으로 원순모음화한다.

녹으먼 /노그먼~노구먼/, 묵으까 /무그까~무구까/,
뽀숙응깨 /뽀수긍깨~뽀수궁깨/, 쏟으먼 /쏘드먼~쏘두먼/,
좁응깨 /조붕깨/, 돞은다고 /도푼다고/,
숨으라고 /수무라고/, 품으먼 /푸무먼/,
굵:은 /굴:근~굴:균/, 볿응깨 /볼붕깨/

원순모음화1 : 어미두음 '으'가 양순음 뒤에서 '우'로 바뀐다. (필수적)[24]
원순모음화2 : 어미두음 '으'가 원순모음을 가진 음절 뒤에서 '우'로 바뀐다. (수의적)

24) §5.2.2.1에서 적절히 수정될 것이다.

5.2.1.2. 치찰음어간

齒擦音으로 끝난 語幹의 말음에는 ㅅ, ㅆ, ㅈ이 있다.

ㅅ어간

낫*, 벗, 붓*, 빗, 뗏:, 솟, 윗*, 잇*, 젓*, 줏*, 짓, 짓*, 성갓~성가시

ㅆ어간

쐈:,[25] 있, 맛있

ㅈ어간

갖~가지2, 궂, 늦, 맞, 빻~빠지1, 잊, 젖, 찢, 찾, 알:맞, 방정맞, 자장궂

'가지-2'에 '-고'가 연결된 '가지고'는 '갖고'/가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다~어다가'가 연결된 '가져다~가져다가'/가저다가/는 '갖다~갖다가'/가따가/로 나타나기도 한다.[26] 특히 文法化되는 도중에 있는 '-아 가지고'는 '-아 갖고'로 쓰이는 일이 많다. 그런데 '-아 갖고' 뒤에 存在나 移動을 나타내는 용언이 오면 縮約된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두: 손이 딱 뭉꺼 갖고 있응께 ~ 두: 손이 딱 뭉껏고 있응께.
낯바닥애다 무채 갖고 있어 ~ 낯바닥애다 무챗고 있어.
도장 찍어 갖고 오랍디다 ~ 도장 찍엇고 오랍디다.
그래 갖고 댕기먼 쓰겄냐 ~ 그랫고 댕기먼 쓰겄냐?

---

25) '쐈:-'은 보조동사 '불-'이 연결되면 '쐈:어 불-'이 아닌 '쌔: 불었-'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쐈:-'이 '쌓여 있-'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이에 대한 논의는 이승재 1992 참조).

26) '갖고'는 더 나아가 '곶고'로 실현되는 일도 있다. 칼로 곶고(칼을 가지고), 곶고 간다(갖고 간다), 곶곤나(갖고 오너라). 이 '곶고'는 아래에서 볼 '-아 갖고'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물애가 떠 갖고 있다 ~ 물애가 떳:고 있다.
쌀도 잔 퍼 갖고 가씨요 ~ 쌀도 잔 펏:고 가씨요.
파 갖고 온나~ 팟:고 온나.27)

'-아 갖고'에서 단순히 '가'가 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떳:고(떠 갖고), 펏:고(퍼 갖고)'에 나타나는 長音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갖'의 ㄱ이 모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탈락한 후에 '앗'의 모음 '아'가 앞 모음과 縮約되면서 報償的 長音化를 일으킨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장음인 것이다. '과: 갖고(곻아 갖고)>괏:고'처럼 이미 장음이 있으면 보상적 장음화는 공허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單純化는 '-아 갖고'의 文法化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28)

그런데 '-아 갖고'의 축약을 共時的인 음운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모음 사이의 ㄱ이 약화되어 脫落하는 과정을 공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아 갖고'句가 수식하는 후행 서술어의 어휘의미론적 종류(존재나 이동을 나타내는 용언)가 축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을 공시적 음운과정에 대한 非音韻論的 制約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

---

27) 『한국구비문학대계 6:3(전남 고흥군편)』(1984)에 다음 예들이 전사되어 있다.

비었고 있고(비어 갖고 있고. 41면)
펐고 본께(퍼 갖고 보니까. 533면)
찻었고 와갖고(찾아 갖고 와 갖고. 648면)
술을 걸러꼬 들어와서(걸러 갖고. 661면)

이들의 전사는 마땅히 '비엇고, 펏고, 찻엇고, 걸럿고'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8) 경상방언의 '-을 겉다'(-을 것 같다. 최명옥 1980:119~120 주48, 김주원 1984, 최명옥 1990b, c, 1991)는 '-을 거 같다'에서 '같'의 ㄱ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방언의 '-아 갖고>-앗고'처럼 문법화의 진행과 함께 형태의 단순화가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 예라 할 수 있다.

다. 축약형은 '-아 갖고'의 문법화의 진행에 따라 通時的으로 생겨난 또 다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축약형의 基底形으로는 //-아:꼬/어:꼬// 두가지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른 모음어미의 기저형과 마찬가지로 '-아X/어X' 두가지 형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떶:고, 팢:고' 등에 나타나는 長音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어'가 장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뜨-어, 파-아' 등은 '떠, 파'와 같이 장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몇 도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뜨-어:꼬→떠:꼬(떶:고), 파-아:꼬→파:꼬(팢:고),
뭉끄-어:꼬→뭉꺼꼬(뭉껏고), 찍-어:꼬→찌거꼬(찍엇고),
무치-어:꼬→무채:꼬→무채:꼬→무채꼬(무챗고)

비어두 음절에서는 短音化가 일어난다. 어간말모음과 '아:/어:'의 연결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은 일반적인 모음어미 '-아X/어X'의 연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해당 어간별 논의를 참조). 다만 '파-아→파'에서 장음이 나타나지 않고 '파-아:꼬→파:꼬'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것은 어미두음이 가진 음장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文法的 意味를 강하게 가지는 '-아/어 있-'이 '-았/었-'으로 縮約되는 현상도 있다.

앙겄다~앙거 있다 (앉아 있다), 섰는~서 있는
살았을 직애~살아 있을 직애(적에), 자빠졌드라~자빠져 있드라

이에 대해서는 형태소 '-았/었-'이 '-아/어 있-'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형태론적 해결이 앞서야 할 문제이다.

'가지-1'이 '갖-'으로 縮約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빠지-'와 '성가시-'에서 볼 수 있다. '빠지-'는 '빶-'과 自由變異의 관계에 있다.[29]

빠지- : 빠지고, 빠지개, 빠지드라, 빠진다, 빠지먼, 빠지요, 빠져/빠저/
빶- : 빶고, 빶개, 빶드라, 빶는다~빤다, 빶으먼/빠지먼/, 빶으요/빠지요/~빶소, 빶어/빠저/

'빶으먼, 빶으요'에서 일어나는 '으→이'는 아래에서 볼 전설모음화이다.
'성가시-'는 자음어미 앞에서 '성갓-'으로 수의적으로 縮約된다.

성가시고~성갓고, 성가시개~성갓개, 성가시드라~성갓드라,
성가시다~성갓다, 성가시요~성갓소, 성가십딩요~성갓습딩요

매개모음어미 '-으요, -읍딩요' 앞에는 '성가시-'가, 자음어미 '-소, 습딩요' 앞에는 '성갓-'이 쓰임을 볼 수 있다. 물론 '성갓-'과 모음어미가 연결된 '성갓-어'와 같은 활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음어미 앞에서만 '성가시-~성갓-'과 같은 自由變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ㅈ어간과 매개모음어미의 연결에서는 前舌母音化가 일어난다. 즉 ㅈ어간 뒤에서 매개모음 '으'가 '이'로 바뀐다.[30]

---

29) 이기갑(1991b)에서 '빶-'이 전남 남부에 특징적인 방언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실제로 진도지역어가 기록된 최소심 구술(1990:107), 채정례 구술(1991:39)에도 '빶고'가 전사되어 있다.

30) 화자에 따라서 ㅆ어간(쌨:-, 있-), ㅂㅆ어간(없-)이나 선어말어미 '-았-, -겠-' 뒤에서도 전설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한편 ㅅ어간 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있응께 /이씅께~이씽께/, 없:응께 /업:씅께~업:씽께/,
갔으먼 /가쓰먼~가씨먼/, 죽겄응께 /죽꺼씅께~죽꺼씽께/

궂으먼 /구지먼/, 늦응께 /느징께/, 찾으까 /차지까/, 빻으먼 /빠지먼/

'구지먼'(궂으먼)을 보면 어간모음이 '오, 우'일 때 일어나는 원순모음화보다 전설모음화가 더 强力함을 알 수 있다. 전자는 隨意的인 현상이고 후자는 必須的인 현상이며 전자는 間接同化이고 후자는 直接同化인 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전설모음화 : 어미두음 '으'가 ㅈ 뒤에서 '이'로 바뀐다. (필수적)31)

'붓-*, 줏-*'은 원순모음화2를 일으킨다. 붓으먼 /부스먼~부수먼/, 줏응께 /주승께~주숭께/.

5.2.1.3. 비음어간

鼻音으로 끝난 語幹의 말음에는 ㄴ, ㅁ이 있다.

ㄴ어간
　끈, 신*
ㅁ어간
　감*, 검*, 깜*, 남*, 넘*, 담*, 삼*, 숨*, 품*, 더듬, 따듬, 머금, 보듬

이들과 ㄱ, ㄷ, ㅈ, ㅅ어미의 연결에서 硬音化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3.3에서 본 장애음 뒤의 경음화와는 다르다. 장애음 뒤의 경음화는 자음연결제약에 따른 자동적인 음운과정인데, ㄴ, ㅁ과 같은 비음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날 음소배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것은 비자동적인 음운과정이다.

---

31) §5.2.2.1에서 적절히 수정될 것이다.

끈드라 /끈뜨라/, 끈고 /끙꼬/, 끈소 /끈쏘/
남:드라 /남:뜨라/, 남:고 /낭:꼬/, 남:재 /남:째/

비음뒤 경음화 : 평음이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 (필수적)

이들과 매개모음어미의 연결에서는 §5.2.1.1에서 보았듯이 圓脣母音化가 일어난다. ㅁ어간 뒤에서는 양순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1이 일어나고 말음절 모음이 '우'인 어간 뒤에서는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2가 일어난다. 그러나 말음절 모음이 '우'인 어간은 모두 ㅁ어간이므로 원순모음화1이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원순모음화2가 일어나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없다.

5.2.1.4. ㅎ어간

ㅎ으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곻, 꽇, 낳, 닿, 땋, 쌓:, 쏳, 옇, 짛

이들의 활용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곻고 /고코/, 곻으면 /고:먼/, 곻아 /과:/
꽇고 /꼬코/, 꽇으면 /꼬:먼/, 꽇아 /꽈:/
낳고 /나코/, 낳으면 /나:먼/, 낳아 /나:/
닿고 /다코/, 닿으면 /다:먼/, 닿아 /다:/
땋고 /따코/, 땋으면 /따:먼/, 땋아 /따:/
쌓:고 /싸:코/, 쌓으먼 /싸:먼/, 쌓아 /싸:/
쏳고 /쏘코/, 쏳으먼 /쏘:먼/, 쏳아 /쏴:/

옇고 /여코/, 옇으면 /여:먼/, 옇어 /여:/
짛고 /지코/, 짛으면 /지:먼/, 짛어 /제:/

이들은 '낳-고→나코, 낳-아→나아→나:, 낳-으면→나으면→나:먼'과 같은 도출과정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여하는 音韻過程은 다음과 같다.

유기음화 : 어간말음 ㅎ이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유기음이 된다. (필수적) 낳-고→나코, 낳-재→나채, 낳-드라→나트라

어간말 ㅎ탈락 : 어간말음 ㅎ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낳-아→나아, 낳-으면→나으면→나아먼→나:먼

'으'동화 : '으'는 앞모음에 완전동화된다. (필수적) 낳-으면→나으면→나아먼→나:먼

동모음축약 : 같은 모음이 연결되면 한 음절로 축약된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낳-으면→나으면→나아먼→나:먼

보상적 장음화 : 두 음절이 축약이나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이 되면 장음을 가지게 된다. (필수적) 낳-으면→나으면→나아먼→나:먼

w반모음화1 : '오'가 '아' 앞에서 w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꽇-아→꼬아→꽈:

'어'전설화 : '어'가 '이' 뒤에서 '에'로 바뀐다. (필수적) 짛-어→지어→지에→제:→제:

y반모음화 : '이'가 '에' 앞에서 y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짛-어→지어→지에→졔:→제:

어두 y탈락 : y가 어두의 자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짛-어→지어→지에→졔:→제:

'으'同化와 同母音縮約은 다음에서 보듯이 연달아 일어난다.

	'으'동화		동모음축약	
낳-으면 → 나으면	→	나아면	→	나:면
쌓:-으면 → 싸:으면	→	싸:아면	→	싸:면
옇-으면 → 여으면	→	여어면	→	여:면
꽇-으면 → 꼬으면	→	꼬오면	→	꼬:면
짛-으면 → 지으면	→	지이면	→	지:면

w반모음화1은 '오, 우'어간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어'전설화, y반모음화, y탈락은 '이'어간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이들에 대해서는 母音으로 끝난 語幹에 관한 부분(§5.2.2)에서 논의하기로 한다.32)

5.2.1.5. 자음군어간

子音群으로 끝난 語幹의 말음에는 ㄺ, ㄻ, ㄼ, ㄾ, ㅀ, ㅀ, ㅂㅆ과 비음계 자음군 몇가지가 있다.

ㄺ어간

갉, 긁:, 긁, 늙, 묽, 붉, 얽, 읽, 찕

ㄻ어간

굶*, 닮*, 삶*, 젊*

---

32) 60대 이하에서는 ㅎ어간이 再構造化를 겪고 있다. 자음어미 앞에서 '꼬:-, 나:-, 다:-, 따:-, 싸:-, 쏘:-, 여:-, 지:-'와 같은 형태가 쓰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나:고, 나:드라, 나:겄다, 나:재, 나:냐). 이 경우에는 이들 자체를 基底形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어간의 단일화는 그 이전 단계의 활용이 單一한 기저형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나코, 나:먼, 나:'와 같은 활용에 대해 기저형이 '낳/나:-'와 같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더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單形語幹으로 처리해 둔다.

ㄹㅂ어간

볿*, 얇*

ㄹㅌ어간

홡, 훑, 훑

ㄹㅎ어간

걿*~걿*, 끓*, 뭃*~뭃*, 싫*~싫*, 싫, 앓, 옳

ㄹㆆ어간

거ᇙ*~걿*, 무ᇙ*~뭃*, 시ᇙ*~싫*

ㅂㅆ어간

없:, 영락없

비음계 자음군어간

깡ㄲ, 영ㄲ, 앉~앙ㄱ~앙ㅈ, 깔앉, 깔앙ㄱ, 깔앙ㅈ, 들앉, 들앙ㄱ, 들앙ㅈ, 주저앉, 주저앙ㄱ, 주저앙ㅈ

'걿-*~거ᇙ-*(걷다 步), 뭃-*~무ᇙ-*(묻다 問), 싫-*~시ᇙ-*(싣다 載)'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33)]

싫-* : 싫:고 /실:코/, 싫어 /시러/, 싫으면 /시르먼/

---

33) '물:꼬, 무러, 무르먼~무루먼'과 같이 활용하는 어간의 말음을 ㄹㆆ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이익섭(1972), 최명옥(1978, 1982:129) 참조. 음운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 분절음 ㆆ을 어간말음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저음소표시(기저형)를 구성하는 분절음인 기저음소(또는 형태음소)와 표면음소표시를 구성하는 분절음인 표면음소는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해 있으므로 표면층위에서 설정되지 않은 분절음을 기저층위의 단위로 설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표면음소가 이루는 음소체계는 기저음소가 이루는 기저음소체계와 사뭇 다른 목록으로 이루어진다. 용언어간말자음체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배주채(1989) 참조. 이렇게 설정된 기저음소는 이른바 추상음소가 된다. 15세기에 고유어 표기에 쓰인 ㆆ도 추상음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싫-* : 싫:고 /실:꼬/, 싫어 /시러/, 싫으면 /시르면/[34)]

ㄾ어간과 비음계 자음군어간 '깡ㄲ-, 영ㄲ-'은 '으'擴大形과 공존한다.

홅-~할트-, 훑-~훌트-, 홅-~홀트-
깡ㄲ-~깡끄-, 영ㄲ-~영끄-

ㄻ어간 '닮-*, 젊-*'과 ㅀ어간 '뭃-*, 싫-*, 싫-, 앓-, 옳-'과 ㅂㅆ어간은 '으'확대형이 전혀 쓰이지 않는다. 나머지 ㄺ어간, ㄻ어간, ㄼ어간, '앉-~앙ㄱ-~앙ㅈ-'은 '으'확대형이 드물게 나타난다. '앉-, 앙ㅈ-'은 '으'확대형이 전설모음화 때문에 '안지-, 앙지-'로 나타난다.

§5.2.1.1에서 보았듯이 자음군어간과 어미의 연결에서도 '는'脫落과 圓脣母音化가 일어난다. /봄:는다~봄:다/(봚:는다), /굼:는다~굼:다/(굶:는다), /절문/(젊은), /얄붕깨/(얇응깨), /굴:근~굴:군/(굵:은), /볼붕깨/(볿응깨).

ㅀ어간과 ㅭ어간이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喉音 ㅎ, ㆆ은 필수적으로 脫落한다. ㄹ과 모음 사이에서 ㆆ이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이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추상음소이기 때문이다. ㅎ이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중앙어와 같이 用言語幹末이라는 환경에서만이다. 다른 경우에는 공명음(모음이나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이다(§3.3 참조). §5.2.1.4에서 설정한 어간말 ㅎ탈락 외에 어간말 ㆆ탈락도 설정하게 된다.

어간말 ㆆ탈락 : 어간말음 ㆆ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

34) '싫으로(실으러), 뭃으로(물으러)'는 '싫:로, 뭃:로'와 같이 '으'가 탈락한 예가 나타난다. 또 '걿-*'은 '걸-*'처럼 활용하는 예도 나타난다. 건:다(걷는다), 거:나 마:나(걸으나 마나), 걸:먼(걸으면), 못: 건 애기는(못 걷는 아이는).

자음군어간은 子音語尾와 결합할 때 종성제약에 따라 子音群單純化가 일어난다. 그런데 '핥고'/할꼬/를 보면 어간말음 ㅌ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음군단순화에 따라 ㅌ이 탈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음군단순화는 어미두음이 평장애음일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ㄱ, ㄷ, ㅈ, ㅅ어미가 어간말음에 의해 硬音化되고 나서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ㄹㅎ어간과 ㄹㅎ어간을 제외하면 자음군단순화는 子音脫落의 모습을 띤다. 이때 탈락하지 않고 남는 힘의 크기는 '비음>양순폐쇄음·연구개폐쇄음>유음>치조폐쇄음'의 순이다. 이 强度位階에 따라 ㄻ어간과 비음계 자음군어간에서는 비음 아닌 자음이 탈락하고, ㄺ, ㄼ, ㅂㅆ어간에서는 ㄹ과 ㅆ이 탈락하며, ㄾ어간에서는 ㅌ이 탈락한다.[35] ㄹㅎ어간과 ㄹㅎ어간도 鼻音 앞에서는 子音脫落을 겪는다. 이때 탈락하지 않고 남는 힘의 크기는 '유음>후음'의 순이다.

읽고 /익꼬/, 읽드라 /익뜨라/, 읽소 /익쏘/, 읽는다 /잉는다/
삶:고 /쌍:꼬/, 삶:드라 /쌈:뜨라/, 삶:소 /쌈:쏘/, 삶:는다 /쌈:는다/
볿:고 /복:꼬/, 볿:드라 /봅:뜨라/, 볿:소 /봅:쏘/, 볿:는다 /봄:는다/
핥고 /할꼬/, 핥드라 /할뜨라/, 핥소 /할쏘/, 핥는다 /할른다/
없:고 /억:꼬/, 없:드라 /업:뜨라/, 없:소 /업:쏘/, 없:냐 /엄:냐/
영ㄲ고 /영꼬/, 영ㄲ드라 /영뜨라/, 영ㄲ소 /영쏘/, 영ㄲ는다 /영는다/
싫:냐 /실:랴/, 옳냐 /올랴/

자음군의 자음탈락 : 어간말자음군의 강도가 약한 자음이 자음군 뒤에 경음이나 공명자음이 올 때 탈락한다. (필수적)
(강도 : 비음>양순폐쇄음과 연구개폐쇄음>유음>치조폐쇄음과 후음)

---

35) 선어말어미 '-옹값-'의 말자음군 ㅂㅆ도 '없-'의 말자음군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옹값다(오나 보다) /옹갑따/, 옹값소(오나 보오) /옹갑쏘/, 옹값내(오나 보네) /옹감내/.

ㅀ어간과 ㅭ어간이 ㄱ, ㄷ, ㅈ 앞에 올 때 일어나는 자음군단순화는 유기음화, 경음화의 모습을 띤다.

옳고 /올코/, 옳재 /올채/ (유기음화)
싫:고 /실:꼬/, 싫:드라 /실:뜨라/ (경음화)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음화는 두 분절음이 한 분절음으로 축약되는 점에서 다른 硬音化들, 즉 장애음뒤 경음화(잡-고→잡꼬), 비음뒤 경음화(담:-고→담: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점을 고려하여 縮約으로서의 경음화를 ㆆ縮約이라 부르기로 한다. 유기음화도 ㆆ축약과 똑같은 양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ㅎ縮約이라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ㅎ축약 : 어간말음 ㅎ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유기음이 된다. (필수적)
ㆆ축약 : 어간말음 ㆆ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경음이 된다. (필수적)

자음군 ㅀ, ㅭ에서는 탈락하지 않는 자음이 ㄹ이므로 어간말에서 탈락하지 않고 남는 힘은 '유음>후음'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5.2.2. 모음어간

모음어간은 語幹末母音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單音節語幹의 경우를 음장까지 고려하여 대표적인 單形語幹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어간	장모음어간
'이'어간 : (없음)	'이'어간 : 기:고, 기:먼, 계:

‘에’어간 : (없음)	‘에’어간 : (없음)
‘애’어간 : 패고, 패면, 패:	‘애’어간 : 깨:고, 깨:면, 깨:
‘위’어간 : (없음)	‘위’어간 : 뛰:고, 뛰:면, 뛔:
‘외’어간 : 되고, 되면, 돼:	‘외’어간 : 쇠:고, 쇠:면, 쇄:
‘으’어간 : 뜨고, 뜨면, 떠	‘으’어간 : (없음)
‘어’어간 : (없음)	‘어’어간 : (없음)
‘아’어간 : 가고, 가면, 가	‘아’어간 : 까:고, 까:면, 까:
‘우’어간 : 주고, 주면, 줘:	‘우’어간 : 꾸:고, 꾸:면, 꿔:
‘오’어간 : 보고, 보면, 봐:	‘오’어간 : 꼬:고, 꼬:면, 꽈:

子音語尾나 媒介母音語尾와 결합한 활용형은 음운과정을 상정하지 않아도 쉽게 기술될 수 있다. 母音語尾와 결합한 활용형의 기술을 위해서는 필요한 음운과정을 상정해야 한다. 이제 아래에서 다룰 음운과정들도 모음어간과 모음어미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36]

5.2.2.1. ‘으’어간

‘으’로 끝난 語幹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어간 : 끄, 뜨, 스, 쓰, 크, 트, 푸, 흐
2음절어간 : 갈르, 거뜨, 걸르, 깡끄, 끄르, 날르, 누르1, 누르2, 당그, 더트, 돌르, 둘르, 따끄, 따르, 마뜨, 마트, 몰르, 뭉끄, 배트, 벨르, 보트, 부르, 빨르, 뽈르, 서끄, 영끄, 올르, 조스, 질르, 쪼스, 찌르, 패트, 흘트, 할트, 훌트, 흘르
3음절어간 : 거:다르, 까불르, 꼬실르, 둘러쓰, 때울르, 떠들르, 저질르, 접질르, 주물르, 지달르, 찌우르, 찌울르

36) §5.2.2의 논의는 배주채(1991a)의 논의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그러나 다루는 자료가 조금 달라졌고 분석방식도 달라진 데가 있다.

4음절어간 : 시분그르, 콜로그르

語幹末音 '으'는 모음어미 앞에서 脫落한다. 이것을 '으'탈락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끄-어→꺼, 당그-어→당거, 따르-어→따러,
뽈르-어→뽈러, 꼬실르-아→꼬실라, 거:다르-어→거:다러

'으'탈락 : 어간말음 '으'는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으'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1음절어간 : 푸
2음절어간 : 가쁘, 가프, 감프, 고프, 골므, 노프, 덤브, 바쁘, 부프, 시:쁘, 시:프, 아프, 야프, 어프, 지프, 탐브

'푸-'는 基底形이 /프-/ 인데 맞춤법에 따라 표기할 때는 '푸-'로 적기로 한다. /프-/ 의 활용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프-고→푸고, 프-먼→푸먼 (원순모음화1)
프-어→퍼 ('으'탈락)

2음절어간들은 맞춤법에 따른 표기 자체가 基底形이 된다. 활용양상은 다음에서 보듯이 '푸-'의 경우와 같다.

가프-고→가푸고, 가프-먼→가푸먼, 가프-어→가퍼

'푸고, 퍼', '가푸고, 가퍼'와 같이 활용하는 어간에 대해 '으'어간 /프

-, 가프-// 등을 基底形으로 설정하는 것이, 형태소내부에 공시적인 음운규칙(원순모음화)이 적용되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抽象的인 분석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표준생성음운론에서 영어의 boy에 대해 //bœ// →/boy/와 같이 형태소내부에 공시적인 음운규칙이 적용되도록 허용했던 것은 抽象性을 전혀 制約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태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형태소내부'에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交替하지 않는 부분'에 음운규칙이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형태소내부라고 표현되어 왔던 것은 실은 형태소의 교체하지 않는 部分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抽象性 防止 裝置로 배주채(1989:18f)는 다음과 같은 基底形條件을 세운 바 있다.

> 기저형조건 : 형태소의 결합에서 교체를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형태음소표시를 음소표시와 일치시킨다.

이 조건은 예를 들어 '물'과 같은 형태소에 대해 '믈'과 같은 기저형을 설정하고 원순모음화규칙을 적용해 표면형 '물'을 도출할 가능성을 排除한다. 모음 '우'는 교체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기저형에서도 달라져서는 안된다.

//프-고// →/푸고/에서 어간 내부에서의 분절음연결 'ㅍ-으'에 원순모음화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언뜻 보면 //믈// →/물/과 같은 추상적인 분석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물'에서 어간 내부의 ㅁ과 '우'의 분절음연결은 형태소 '물'의 어떤 表面形에서도 그대로이므로(교체가 없으므로) 기저에서도 그대로 설정해야 한다. 반면에 '푸고'에서 어간 내부의 ㅍ과 '우'의 연결은 '퍼'에서는 ㅍ과 ϕ의 연결로 나타난다. 즉 어간 말에서 '우~ϕ'의 交替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 '푸-'의 교체하지 않는 부분은 ㅍ뿐이다. 交替하는 部分 '우'와 ϕ에 대해서는 기저에서 달

리 설정될 수 있다.

형태소 '푸-, 가프-'의 基底形을 // 푸-//, // 가푸-// 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푸-어→퍼', '가푸-어→가퍼'를 위해 양순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脫落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이라 볼 수 없다.37)

또 基底形을 // 푸/프-//, // 가푸/가프-// 와 같이 둘씩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형태의 單一化가 추구되어 '퍼' 대신 '풔:'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방언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어간의 기저형이 // 프-//, // 가프-// 와 같이 단일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38)

이제 §5.2.1.1에서 세운 원순모음화1이 '프-고, 가프-고'와 같은 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입력에 어간말음 '으'도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원순모음화1 : 어간말음이나 어미두음 '으'가 양순음 뒤, 자음 앞에서 '우'로 바뀐다. (필수적)

'으'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包含되어야 한다.

1음절어간 : 지, 찌, 치
다음절어간 : 가지, 도:지, 따지, 모:지, 빠지, 시치, 지지, 쪼치, 찰지, 처지, 타지, 탐지, 터지, 퉁지, 내래찌, 닳아지, 떨어지, 바:라지, 버:러지, 볼가지, 씨러지, 잉깨지, 자빠지, 재미지, 짋어지, 어푸러지, 오그라지, 옹그라지, 자드라지

37) 이 점은 김성규(1989)에서도 지적되었다.
38) 김성규(1989)는 그밖에 '퍼'를 "단일 어휘소"(우리의 관점에서는 化合基底形. 주43 참조)로 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방안을 따라야 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1음절어간은 '지-, 찌-, 치-'이고 다음절어간은 주로 '지-'에서 형성된 합성어간이다.

이들을 '이'어간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활용양상이 '이'어간과 다르기 때문이다.[39]

'이'어간
기:-어→게:, 이:-어→예:
비비-어→비배, 아니-어→아내, 흘리-어→흘래
건지-어→건재, 다치-어→다채, 엎지-어→업째
'으'어간
지-어→저, 찌-어→쩌, 치-어→처
빠지-어→빠저, 시치-어→시처, 어푸러지-어→어푸러저

'이'어간은 어간말음 '이'가 어미 '-어'와 연결되어 '에'(비어두에서는 '애')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모두 'X이-'(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앞)와 'X-'(모음어미 앞)의 두가지 異形態를 가진다. '지고, 저, 빠지고, 빠저'와 같은 활용은 마치 '푸고, 퍼, 가푸고, 가퍼'와 같다. 'X으-'와 같은 형태를 基底形으로 설정하고 前舌母音化와 '으'탈락을 이용하여 활용형을 도출할 수 있다.[40] 기저형과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표기는 맞춤법에 따라 '지-, 빠지-'와 같이 하기로 한다).

---

39) 형태소내부에 음운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위의 '푸-, 가프-' 등의 기저형 설정문제 참조.

40) 여러 다른 방언에 보이는 이들의 변칙성은 이병근(1973:141~3, 1978/1979:34~5), 이승재(1980a:102), 최명옥(1980:166, 1982:107~11), 정인상(1982:60~5)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익섭(1972)는 강릉방언에서 이들과 함께 '던자(던지-어), 마사(마시-어), 훔차(훔치-어)' 등을 오히려 정칙적인 것으로 보고 '게(기-어), 베(비-어), 세(시-어 算), 살페(살피-어), 돌레(돌리-어), 디데(디디-어), 뜨세(뜨시-어 溫)' 등을 변칙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 즈-// (지-), // 쯔-// (찌-), // 츠-// (치-)
// 빠즈-// (빠지-), // 시츠-// (시치-), // 어푸러즈-// (어푸러지-)
즈-고→지고, 즈-어→저
빠즈-고→빠지고, 빠즈-어→빠저

§5.2.1.2에서 설정한 전설모음화는 다음과 같이 다시 修正한다.

전설모음화 : 어간말음이나 어미두음 '으'가 파찰음 뒤, 자음 앞에서 '이'로 바뀐다. (필수적)

多音節語幹 중 '도:지-, 빠지-, 찰지-, 어푸러지-' 등 '지-'에서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형성된(또는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합성어간이 1음절어간 '지-'와 활용양상이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로 끝난 다음절 어간 중 '나:두-, 냅:두-, 내:주-'와 같이 1음절어간 '두-, 주-'에서 형성된 어간들의 활용양상이 '우'로 끝난 1음절어간과 같은 것(§5.2.2.2)과 비슷한 현상이다.

도:지- : 도:지고, 도:지먼, 도:저
빠지- : 빠지고, 빠지먼, 빠저
찰지- : 찰지고, 찰지먼, 찰저
어푸러지- : 어푸러지고, 어푸러지먼, 어푸러저

다음 어간들처럼 말음절이 '지'이면서 '지-'어간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건지고, 건지먼, 건재'와 같이 '이'로 끝난 語幹의 活用을 한다.

건지, 다지, 뒤지, 뒤:지, 떤지, 엎지, 잡지, 쪼지, 취지

다만 '취지-'는 '지-'어간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어간이다.

'가지-, 따지-, 시치-, 지지-, 쪼치-'는 '지-'어간과 관련이 없는 '으'어간이다. 이 중 '시치-, 쪼치-'는 '싳-, 쫓-'과 같은 1음절 자음어간에서 발달한 것인데, 옛 '-아'활용형 '시처(←싳-어), 쪼차(←쫓-아)'가 지금까지 그대로 쓰인 결과 '으'어간으로 분석될 수 있게 된 것이다.[41)]

옛 활용
∥싳-∥ : 싳고, 싳으먼/시치먼/, 싳어/시처/
∥쫓-∥ : 쫓고, 쫓으먼/쪼치먼/, 쫓아/쪼차/
지금의 활용
∥시츠-∥ : 시치고, 시치먼, 시처
∥쪼츠-∥ : 쪼치고, 쪼치먼, 쪼차

옛 활용에서 매개모음어미 활용형을 /시치-먼/으로 분석하고 어간을 '시치-'와 같이 해석한 다음 자음어미에 그것을 연결한 것이 지금의 활용이다. '쪼치-'는 첫음절 모음이 '오'인 '으'어간이므로 어미 '-아/어' 중 '-아'를 취한다.

'르'어간 중 일부는 말모음이 '으'이지만 '으'어간에 속하지 않고 '르'다형어간에 속한다(§5.3.5 참조).

'으'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아'가 선택되느냐 '-어'가 선택되느냐 하는 것은 §5.1.2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첫음절 모음이 '오'인 2음절어간('즈'어간 제외)에 '-아'가 연결되고 나머지 경우에 '-어'가 연결된다. 그리고 3음절어간 중 '꼬실르-'도 '-아'를 취한다. '-아'가 연결된 활용형을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42)]

---

41) '시치-'는 모음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쉬으먼, 쉬으라고, 쉬어, 쉬었다.
42) '따르-, 뺄르-, 갈르-, 날르-, 까불르-, 때울르-'는 '따러~따라, 뺄러~뺄라, …'와 같이 '-어'연결형과 '-아'연결형이 공존한다.

고파, 골마, 노파, 돌라, 몰라, 보타, 올라, 조사, 쪼사, 쪼차, 홀타, 꼬실라

5.2.2.2. '오'어간과 '우'어간

'오'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어간 : 꼬:, 보
2음절어간 : 들오, 해:보
3음절어간 : 내:다보, 내러오, 대래보, 델다보, 들어보, 들어오, 올라오, 올로오, 체:다보
4음절어간 : 딜애다보

다음절어간은 모두 '보-'가 연결된 복합어간이다.

어간말음 '오'는 母音語尾 '-아'와 결합하여 '와'가 된다. 이때 w반모음화와 더불어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난다.

꼬:-아→꽈:, 보-아→봐:

w반모음화1 : 어간말음 '오'가 '아' 앞에서 w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보상적 장음화 : 두 음절이 축약이나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이 되면 장음을 가지게 된다. (필수적)

다만 '오-'(來)의 활용에서는 報償的 長音化가 일어나지 않는다(이는 다른 방언들도 마찬가지다). 오-아→와. '와'가 장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보상적 장음화에 대한 例外로 남겨두는 방안도 있고, '오-'의 '-아'활용형을 '와'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오-}+{-아}에 대해 化合基

底形 ∥와∥를 설정하는 방안도 있으며,[43] 基底形을 '오-(자음어미, '으'계 어미 앞)/와-(모음어미 앞)'로 설정하여 '와-아→와'와 같이 도출하는 방안, 또는 基底形을 '오-(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앞)/w-(모음어미 앞)'로 설정하여 'w-아→와(wa)'와 같이 도출하는 방안도 있다. 어휘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기저형을 달리 잡는 방안을 택하되 그 방안들 중 이형태를 그대로 基底形으로 설정하는 마지막 방안을 따르기로 한다(§5.3.7 참조).

보상적 장음화에 따른 장음은 1음절어간의 활용형에만 나타나고 2음절어간과 3음절어간의 활용형에서는 短音化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다. 그리고 비어두음절의 '봐'는 w탈락에 의해 '바'로 바뀐다.

해:보-아→해:봐→해:바, 들오-아→들와 /드롸/,
대래보-아→대래봐→대래바, 내러오-아→내러와,
딜애다보-아→딜애다봐→딜애다바

단음화 : 장음은 비어두에서 단음화한다. (필수적)[44]
w탈락1 : w는 비어두 양순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우'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어간 : 꾸:, 누, 두, 주:, 주, 후:
다음절어간 중 '두-, 주-'가 연결된 복합어간 : 나:두, 냅:두, 내:주, 두러누
그밖의 2음절어간 : 가두, 가추, 개루, 개우, 게우, 깨우, 나꾸, 나누, 낫우, 내루, 냄구, 늦구, 당구, 대루, 돋구, 돋우, 디루, 떨추, 떨쿠,

43) 중세국어의 {-더-}+{-오-}에 대한 기저형 ∥-다-∥나 불어의 {à}+{le}에 대한 ∥o∥ 등도 화합기저형의 예이다.
44) 발화 차원에서의 단음화는 환경이 다르다. §6.1.2 참조.

띄우, 메수, 메우, 모우, 모투, 몰류, 묵후, 바꾸, 바수, 바추, 배우, 보꾸, 부루, 불우, 비우, 사구, 사루, 삭후, 세우, 소꾸, 식후, 썩후, 쏘우, 야우, 에우, 예우, 외우, 이루, 익후, 잡수, 장구, 제우, 질우, 찡구, 채우, 치우, 키우, 타추, 태우, 피우

1音節語幹은 '-어'를 취한다. 어간말음 '우'와 어미 '어'가 w반모음화를 거쳐 '워'가 되는데 역시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난다.

꾸:-어→꿔:, 누-어→눠:, 두-어→둬:, 주-어→줘:, 후:-어→훠:

w반모음화2 : 어간말음 '우'는 '어' 앞에서 w로 바뀐다. (필수적)

2音節語幹 중 1음절어간 '두-, 주-'가 연결된 복합어간도 '-어'를 취한다. 비어두의 '둬:, 줘:'는 비어두단음화 때문에 '둬, 줘'로 실현되는데 수의적으로 '도, 조'로 축약되기도 한다.[45]

나:두-어→나:둬:→나:둬→나:도
내:주-어→내:줘:→내:줘→내:조
두러누-어→두러눠:→두러눠→두러노

'워'축약 : '워'는 비어두 자음 뒤에서 '오'로 바뀐다. (수의적)

그밖의 2音節語幹들은 단일어간도 있고 피・사동어간도 있다. 이들은 모두 '-아'를 취한다. w반모음화와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고 단음화가 일어나 활용형의 마지막 음절이 '와'로 실현된다.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45) '두러누-'도 '-어'를 취해 '두러눠'로 쓰인다. 단음절 어간 '*눟-'(눕다)에서 온 것이므로 '-어'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두러눠'는 '두러노'로 되는 일이 드물다.

치조음 ㄷ, ㅌ, ㄴ, ㄹ, ㅅ일 때는 수의적인 w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냉구-아→냉과:→냉과
나꾸-아→나꽈:→나꽈
묵후-아→묵화:→묵화 /무콰/
가추-아→가촤:→가촤
개우-아→개와:→개와
가두-아→가돠:→가돠→가다 (w탈락)
개루-아→개롸:→개롸→개라 (w탈락)
나누-아→나놔:→나놔→나나 (w탈락)
잡수-아→잡솨:→잡솨→잡사 (w탈락)

w탈락2 : w는 비어두 치조음 뒤에서 탈락한다. (수의적)

5.2.2.3. '아'어간

'아'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 단모음어간 : 가, 나, 사, 싸, 자, 짜, 차, 타, 파
1음절 장모음어간 : 까:, 꽈:, 따:, 싸:, 짜:
다음절어간 : 겁나, 단나, 맛나, 인나, 차가, 가무타, 내러가, 넘어가, 들어가, 어긋나, 올라가, 일어나, 제금나, 질어나

'아'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아/어' 중 어느것이 선택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아'활용형이 어간 자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중 '-아'가 선택되고 同母音脫落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46]

46) 이승재(1990)은 중부방언에서 '아, 어'의 모음조화를 일관성있게 기술하기

가-아→가, 까:-아→까:, 단나-아→단나, 가무타-아→가무타

이때 語幹母音이 탈락하는지 語尾母音이 탈락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어간모음이 탈락한다고 하면 활용형의 형태분석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ㄱ-아(가), ㄲ:-아(까:),[47] 단ㄴ-아(단나), 가무ㅌ-아(가무타)

활용형 '까:'에서 모음 '아'는 어미의 형태로 분석하고 ㄲ과 장음은 어간의 형태로 분석하게 된다. 어간의 형태가 'ㄲ:'이 되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분석이 아닐 수 없다.

語尾母音이 脫落한다고 보면 활용형의 형태분석은 다음과 같이 된다.

가-φ, 까:-φ, 단나-φ, 가무타-φ

이렇게 분석하면 '아'어간은 둘 이상의 이형태를 가지지 않아 패러다임이 아주 규칙적이 된다.

가-고, 가-면, 가-φ
단나-고, 단나-면, 단나-φ

通時的 變化에서 '-아'활용형의 말음 '아'가 語幹의 一部로 취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낳-'은 60대 이하에서 '나:-'와 공존한다(§5.2.1.4 참조). '낳-' 대신 '나:-'라는 어간이 생기게 된 과정에는 유추적 평준화

위해 '가-어→가'와 같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47) 'ㄲ:'에 표시한 장음은 ㄲ에 걸린 것이 아니고 ㄲ이 속하게 되는 음절에 걸릴 장음이다.

(analogical levelling)가 작용했다. 다음과 같은 '낳-'의 활용계열에서 어간의 두 이형태를 單一化한 것이 새 어간 '나:-'이다.

/낳-/ : 낳고, 나:먼, 나:

매개모음어미 활용형과 모음어미 활용형에 나타나는 '나:'를 어간으로 해석하여 자음어미 앞에도 쓰게 된 것이다. 모음어미 활용형 '나:' 전체를 語幹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나:-'의 활용형들은 다음과 같이 형태 분석하기로 한다.

/나:-/ : 나:-고, 나:-먼, 나:-ϕ

한편 정인상(1982:68)은 통영방언에서 어간말음 '아'와 어미두음 '아'가 만났을 때 語幹의 聲調인 高調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 어간말음 '아'가 탈락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타고(LL), 타서(LL)'에 비추어보아 '가고(HL), 가서(LL)'의 '가(H)-아서(LL)'에서 H를 가진 어간말음 '아'가 탈락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조표시는 어간형태소나 어미형태소마다 基底聲調表示가 부여되어 있고 그것들이 분절음끼리의 음운과정에 맞추어 실현된다는 식의 기술보다 어간형태소나 어미형태소가 어절(곡용형이나 활용형 등)의 聲調型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낫다(정연찬 1974, 김차균 1977, 이혁화 1994). 정연찬(1974)에 따르면 통영방언에서 '가-'라는 어간은 뒤에 오는 語尾의 종류에 따라 HL_0, LHL_0, RL_1 세가지 성조형 중 하나로 실현된다(LHL_0형은 2음절 성조표시는 LL이다). '가-'에 '-아서, -아도, -았-, -느-, -더-, -거-, -겠-, -으시-' 등이 연결된 활용형은 LHL0형으로 실현된다.

가서(LL), 가도(LL), 갔다(LL), 갔십니다(LHLL),
가는(LL), 가나?(LL),
가더라(LHL), 가거라(LHL), 가겠다(LHL), 가시면(LHL),
가시더라(LHLL), 가겠십니다(LHLLL)

따라서 '가(H)-아서(LL)→가서(LL)'와 같은 식의 聲調變動을 생각할 수는 없다. 결국 성조의 실현이 어간말음 '아'와 어미두음 '아' 중 어느쪽이 탈락했는지를 말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곽충구(1991:136~7, 349/1994:171~2, 399)도 19세기 함북 육진방언에서 聲調의 실현을 가지고 語幹末音 '아'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자구(LH 자-고) 자두(HL 자-아도) 자따(HL 자-았-다)'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자(L)-아두(HL)→자두(HL)'와 같은 식의 성조변동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함경방언의 성조도 어절 단위의 聲調型을 중심으로 기술될 수 있으므로(김차균 1988) 성조의 실현을 가지고 어간말음 '아'가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48]

그러므로 '가-아→가' 등에 나타나는 '아'탈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아'탈락 : 어미두음 '아'는 기저의 '아'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아'탈락의 환경을 '기저의 '아' 뒤'로 명시한 것은 同母音縮約(§5.2.1.4

48) 그밖에 어미의 '아'가 탈락한 증거로 중세국어 자료를 들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의 '펴~펴아'와 같은 자유변이를 보면 어간말음 '어' 뒤에서 어미두음이 탈락한 것으로 해석된다(한영균 1988). 또 어미 '아'가 어간말음보다 강도가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여러 방언에서 어미 '아'가 어간말음에 따라 여러가지 변동을 입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어미 '아'가 강도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승재(1990)에서 중부방언의 '아, 어'의 모음조화를 일관성있게 기술하기 위해 '가-어→가'와 같은 도출과정을 상정한 것도 어미의 탈락으로 처리한 예가 된다.

참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낳-으면→나으면→)나아면→나:면'에서는 앞모음 '아'가 기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동모음축약이 일어난다고 본다. 또 §5.2.1.2에서 언급한 '-아:꼬/어:꼬'(-앗고/엇고)의 연결에서는 어미두음이 탈락할 때 장음은 탈락하지 않고 어간말음에 얹혀 나타난다. 파-아:꼬→파:꼬

先語末語尾 '-으꺼이-'는 모음어미 '-어'를 취하는데 '-으꺼-'에 '-어'가 연결되면 '-으꺼'로, '-으꺼이-'에 '-어'가 연결되면 '-으꺼여'로 실현된다.

그라-꺼-어→그라꺼, 그라-꺼이-어→그라꺼여,
있-으꺼-어→이쓰꺼, 있-으꺼이-어→이쓰꺼여

이때 語尾頭音 '어'도 '어' 뒤에서 탈락함을 알 수 있다. '아'탈락과 유사한 음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탈락 : 어미두음 '어'는 기저의 '어'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5.2.2.4. '애'어간과 '외'어간

'애'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 단모음어간 : 캐, 패
1음절 장모음어간 : 개:, 깨:, 내:, 대:, 때:, 매:, 배:, 빼:, 새:, 재:, 째:, 채:, 패:
다음절어간 : 건:내, 꿔:매, 날래, 놀:래, 달개, 만내, 문대, 문때, 문태, 뭉개, 바래, 바:래, 보태, 뺃:대, 삐대, 지:깨, 지:대, 짬:매, 쨈:매, 쪼개, 취해, 포개, 나무래, 달어매, 볼가내, 울과내, 좋아베, 찔벅대

'캐-, 패-'는 화자에 따라 장모음어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60대 이하에서는 항상 장모음어간으로 쓰여 '애'로 끝난 1음절 단모음어간이 없다.

'외'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괴:, 되, 되:, 쇠:

'애'어간과 '외'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은 '애'로 끝난다. 이들 어간에 결합하는 母音語尾의 기저형은 '-아'일 수도 있고 '-어'일 수도 있다.

'-아'가 연결되는 경우
X애-아 : 패-아→패:, 개:-아→개:, 건:내-아→건:내
X외-아 : 되-아→돼:, 되:-아→돼:
'-어'가 연결되는 경우
X애-어 : 패-어→패:, 개:-어→개:, 건:내-어→건:내
X외-어 : 되-어→돼:, 되:-어→돼:

'아'와 '어' 중 '아'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면형의 말모음 '애'로 도출될 모음으로서는 같은 低母音인 '아'가 중모음인 '어'보다 더 적격이기 때문이다. '아'가 어간말음 '애, 외' 뒤에서 '애'로 前舌化하고 어간말음과 縮約되어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기술한다.49) 구체적인 도출과정과 필요한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

49) 이승재(1980a:98~9)는 구례지역어의 '되-아→돼:'에 대해 '외'가 일단 w로 반모음화되는데 '외'가 원래 가졌던 [−grave] 자질(즉 전설성)이 뒤따르는 모음 '아'에 넘겨져 '애'가 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의 이동현상은 달리 찾아 보기 어려운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방식을 취한다.

'OL'전설화	동모음축약 보상적 장음화	단음화

패-아	→	패애	→	패:		
개:-아	→	개:애	→	개:		
건:내-아	→	건:내애	→	건:내:	→	건:내

'아'전설화	w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되-아	→	되애	→	돼:
되:-아	→	되:애	→	돼:

'아'전설화 : 어미두음 '아'는 '애, 외' 뒤에서 '애'로 바뀐다. (필수적)
동모음축약 : 같은 모음이 연결되면 한 음절로 축약된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w반모음화3 : 어간말음 '외'는 '애' 앞에서 w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보상적 장음화 : 두 음절이 축약이나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이 되면 장음을 가지게 된다. (필수적)
단음화 : 장음은 비어두에서 단음화한다. (필수적)

'개:-, 되:-'와 같이 원래 長音을 가진 어간의 경우에도 동모음축약이나 w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규칙의 공허한 적용이다). '건:내-'와 같은 多音節語幹의 경우에도 동모음축약이 일어날 때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는데 단음화로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

5.2.2.5. '이'어간과 '위'어간

'이'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음절어간 : 기:, 디:, 띠:, 미:, 비:, 삐:, 시:, 이:, 피:

2음절어간 : 가시, 간히, 갈기, 갈리, 갈치, 감:치, 개리, 갤치, 갬기, 거:치, 건지, 걸:치, 고치, 골:리, 괴이, 괴피, 구시, 굶기, 근치, 긁히, 기리, 기:시, 깍지, 깔리, 깝치, 깽기, 깽끼, 꺼치, 꼬시, 꽁치, 꾀이, 꿥히, 꿀리, 꿔미, 끼리, 끓이, 내리, 넬치, 넣이, 넹기, 놕이, 놓이, 뉘비, 니리, 널이, 다시, 다지, 다치, 닥치, 달기, 달리, 달비, 대리, 댇기, 댐기, 댕기, 댕이, 돌리, 뒹키, 뒤:지, 뒤끼, 뒤지, 듣키, 들리, 들치, 들키, 디이, 딛키, 딜기, 딜이, 딜키, 따시, 딸리, 딸리, 때리, 떾이, 땡기, 떤지, 떨리, 떨치, 뛰리, 띠이, 띧기, 마시, 마치, 맞히, 매이, 맥히, 맹기, 맹이, 맬기, 메이, 모:시, 모이, 몰리, 몽치, 무치, 묻히, 미리, 미치, 믹이, 믹히, 바치, 받치, 받히, 발:씨, 발:치, 배기, 배끼, 백이, 백히, 번:치, 벌:리, 베끼, 베리, 벳기, 보시, 부치, 불키, 붙이, 비:끼, 비비, 비치, 빌리, 빗기, 빠치, 뺏:기, 뻬시, 뻗치, 뽀치, 뿔리, 삐리, 새리, 생기, 세리, 쉮이, 숙히, 쉭이, 쉼키, 시기, 신끼, 쌔이, 쌕이, 쏟히, 쐬이, 쒸시, 씨이, 아니, 안치, 앙치, 애끼, 애리, 앵기, 앵기, 엎지, 에리, 엥기, 영치, 올리, 욂기, 위기, 이:삐, 이기, 입히, 자:시, 자치, 잡지, 잽히, 쟁기, 쟁이, 적시, 전디, 절리, 접치, 제기, 제끼, 제리, 죄이, 죽이, 지키, 짊기, 째이, 쨈:미, 쪼지, 쬐이, 쮜시, 찍히, 찡기, 채리, 채이, 취리, 취지, 췩이, 치이, 타치, 텀치, 텡기, 퉝기, 틀리, 패이, 풀리, 핑기, 허치, 헤비, 홀:기, 홀리, 훌리, 홈치

3음절어간 : 걸거치, 궁굴치, 꼬불치, 꼼백이, 끄직기, 나댕기, 뒤배끼, 들맥이, 들썩이, 들앵기, 따라지, 딸썩이, 떠들씨, 뜰썩이, 말:해이, 보대끼, 보딩끼, 생객히, 성가시, 오글씨, 오글치, 인내끼, 자물씨, 자빨씨, 자빨치, 짊어미, 찌글씨

4음절어간 : 돌아가시, 일어내끼, 잡어댕기, 주저앙치, 줏어생기

'위'로 끝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뀌:, 뉘:, 뒤:, 뛰:, 쉬:, 쥐:

'이'로 끝난 1음절 어간과 '위'로 끝난 1음절 어간의 '-아'활용형은 '에'로 끝난다.[50] 語尾의 기저형은 '아'와 '어' 중 '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면형의 말모음 '에'로 도출될 모음으로서는 같은 中母音인 '어'가 저모음인 '아'보다 더 적격이기 때문이다. '어'가 어간말음 '이, 위' 뒤에서 '에'로 前舌化하고 어간말음과 縮約되어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구체적인 도출과정과 필요한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전설화	y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어두 y탈락
기:-어	→ 기:에	→ 계:	→ 게:
이:-어	→ 이:에	→ 예:	

	'어'전설화	w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뒤:-어	→ 뒤:에	→ 뒈:

50) 60대 이하에서는 '이'로 끝난 1음절 어간의 활용형 '게:, 데:, 세:' 등이 모두 '기:, 디:, 시:'와 같이 실현되고 '위'로 끝난 1음절 어간의 활용형 '뒈:, 쉐:, 줴:' 등이 모두 '뒤:, 쉬:, 쥐:'와 같이 실현된다(또 젊은 세대에서는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노년층의 발음에서도 이러한 발음이 자주 나타난다.

'어'전설화 : 어미두음 '어'는 '이, 위' 뒤에서 '에'로 바뀐다. (필수적)
y반모음화 : '이'는 '에' 앞에서 y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w반모음화4 : 어간말음 '위'는 '에' 앞에서 w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보상적 장음화 : 두 음절이 축약이나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이 되면 장음을 가지게 된다. (필수적)
어두 y탈락 : y가 어두의 자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단음절 '이'어간과 '위'어간은 모두 長音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상적 장음화가 공허하게만 일어난다.

'이'로 끝난 多音節 語幹도 모음어미 '-에'를 취하지만 '에'가 비어두 음절에서 음운론적으로 '애'(E)가 되므로 결국 '애'(E)로 실현된다. 그리고 보상적 장음화에 따른 장음은 단음화에 따라 실현되지 않으며 비어두음절의 二重母音 '얘'(yE)는 초성의 종류에 따라 출현이 제약된다. 초성이 없거나 초성이 ㄴ이거나 초성과 앞음절 종성이 모두 ㄹ이면 yE가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수적 y탈락이 일어난다. 초성이 없을 때는 수의적으로 y탈락이 일어난다.

y탈락 없음
아니-어→아냬,[51] 깔리-어→깔래, 흘리-어→흘래
수의적 y탈락
괴이-어→괴얘→괴애, 디이-어→디얘→디애
필수적 y탈락
가시-어→가섀→가새,[52] 갇히-어→갇해→/가채/

51) '아니-'의 '-아'활용형은 '아냬'로도 나타나지만 '아니여'로도 나타난다. '아니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를 '안(부정부사)+이-'로 분석하여 지정사어간의 활용(§5.3.9 참조)을 따른 경우이다. '산(山)-이여→산이여' 참조.

갈기-어→갈개→갈개, 괴피-어→괴패→괴패
깽끼-어→깽깨→깽깨, 개리-어→개래→개래
비비-어→비배→비배, 다지-어→다재→다재
나댕기-어→나댕개→나댕개, 성가시-어→성가새→성가새

비어두 y탈락1 : 비어두의 초성이 없는 음절에서 y가 탈락한다. (수의적)
비어두 y탈락2 : 비어두의 초성이 있는 음절에서, 그 초성이 ㄴ이 아니고 앞음절 말음과 그 초성의 연결이 ㄹㄹ이 아닐 때, y가 탈락한다. (필수적)

ㄴ이나 ㄹㄹ 뒤에서 y가 탈락하지 않는 것은 /nyE/와 /rryE/가 음성적으로 각각 [ɲE], [ʎʎE]로 실현되어 탈락할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음 뒤에서 y가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한 것이다.

先語末語尾 '-으시-' 뒤에도 모음어미 '-어'가 연결된다. '어'전설화, y반모음화, 보상적 장음화, 단음화, 비어두 y탈락2를 거쳐 '-으새'로 도출된다.

하-시-어→하시-애→하섀:→하섀→하새

先語末語尾 '-으꺼이-' 뒤에는 모음어미 '-어'가 연결된다. 이 어미의 말

52) '새'는 물론 [ʃE]로 실현된다. 이 [ʃE]를 '섀'/syE/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1에서 보았듯이 전설모음 앞에서 ㅅ은 [ʃ]로 실현된다. 만약 [ʃE]를 '섀'/syE/로 분석한다면 이 방언에 '새'/sE/라는 음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음+반모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있고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없다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음절구조제약을 가지는 언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 '이'가 지정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지정사어간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5.3.9 참조).

5.3. 다형어간

5.3.1. ㄹ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편의상 음장과 음절수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제시한다.

1음절 단음어간
글, 달, 델, 들, 불, 욜, 일, 잘, 절, 질
1음절 장음어간
벌:, 썰:
1음절 장음/단음 교체어간
갈*, 걸*, 골*, 굴*, 깔*, 꿀*, 끌*, 날*, 널*, 놀*, 늘*, 달*, 덜*, 돌*, 떨*, 말*, 몰*, 물*, 불*, 빌*, 뿔*, 살*, 설*, 쓸*, 씰*, 알*, 얼*, 열*, 울*, 일*, 절*, 질*, 털*, 틀*, 폴*, 풀*
다음절어간
가물, 거칠, 건들, 궁굴, 까:불, 내:불, 너끌, 다물, 대:들, 드물, 떠들, 뚜둘, 매물, 맨들, 맹글, 몽글, 미쓸, 붙들, 비:틀, 삐:틀, 서:뜰, 서들, 시들, 야물, 어끌, 어질, 여물, 원뜰, 자울, 찌끌, 찌울, 찡글, 쳐들, 달라들, 당당글, 딘내불, 따닥글, 따둑글, 찔벅글, 취깨들

이들을 單一基底形을 가진, ㄹ어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선 이들 어간은 최소한 'Xㄹ-'과 'X-'의 두 異形態로 실현된다.

Xㄹ- : 모음어미, 자음어미(ㄴ어미 제외), '-으로, -으면' 앞
(들어 ; 들고, 들소, 들재, 들드라 ; 들로, 들먼)
X- : 매개모음어미('-으로, -으먼' 제외), ㄴ어미 앞
(드까, 드신다, 드씨요, 드럼, 드마, 드요, 들라고 ; 드냐, 드니라)

만약 'Xㄹ-'을 기저형으로 보고 ㄹ脫落規則으로 이 교체를 기술한다면 ㄹ이 ㄲ, ㅅ, ㅆ, ㄹ, ㅁ, ㄴ, y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예시의 편의상 '으'탈락규칙도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본다.

	'으'탈락		ㄹ탈락	
들-으까	→	들까	→	드까
들-으신다	→	들신다	→	드신다
들-으씨요	→	들씨요	→	드씨요
들-으럼	→	들럼	→	드럼
들-으마	→	들마	→	드마
들-은	→	들ㄴ	→	든
들-으요	→	들요	→	드요

그러나 이러한 ㄹ탈락규칙은 일반성도 자연성도 가지지 못한다. '들고, 물:꼬(묻고 問)'를 보면 ㄲ 앞에서 ㄹ이 탈락할 이유가 없고, '들소(드오), 들새(들세)'를 보면 ㅅ, ㅆ 앞에서 ㄹ이 탈락할 이유가 없으며, '들로(들러), 들먼'을 보면 ㄹ, ㅁ 앞에서 ㄹ이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규칙은 一般性이 없다. 그리고 ㄹ탈락의 음운론적 환경이 되는 ㄲ, ㅅ, ㅆ, ㄹ, ㅁ, ㄴ, y가 자연부류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규칙은 自然性도 없다.

따라서 이들 어간은 多形語幹으로 처리한다. 그 基底形과 선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저형 : // X ㄹ/X-//
// X-// : 매개모음어미('-으로, -으면' 제외), ㄴ어미 앞
(드까, 드신다, 드씨요, 드럼, 드마, 드요, 들라고 ; 드냐, 드니라)
// X ㄹ-// : 그밖의 경우
(들어 ; 들고, 들소, 들재, 들드라 ; 들로, 들면)

音長交替가 있는 단음절 어간(위의 '갈-*, 걸-*' 등)은 조건에 따라 세 가지 이형태를 가진다.

Xㄹ- : 모음어미 앞
(놀아, 놀았다)
Xㄹ:- : 자음어미(ㄴ어미 제외),'-으로, -으면' 앞
(놀:고, 놀:재, 놀:로, 놀:면)
X:- : 매개모음어미('-으로, -으면' 제외), ㄴ어미 앞
(노:까, 노:신다, 노:씨요, 노:마, 노:요, 노:냐, 노:니라)

음장교체도 다중기저형을 설정하여 기술하므로 이런 어간은 세가지 基底形을 가지게 된다.

기저형 : // Xㄹ/Xㄹ:/X:-//
선택조건
// X:-// : 매개모음어미('-으로, -으면' 제외), ㄴ어미 앞
(노:까, 노:신다, 노:씨요, 노:마, 노:요, 노:냐, 노:니라)
// Xㄹ:-// : 그밖에 자음 앞
(놀:고, 놀:재, 놀:로, 놀:면)
// Xㄹ-// : 그밖에 모음 앞
(놀아, 놀았다)

어미의 형태음운론적인 종류를 참조해야 하는 'X:-'의 선택이 맨 먼저 이루어진다.

多形語尾인 매개모음어미와의 연결은 다음과 같다.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은 §5.1.3에서 보았듯이 //-으X(ㄹ 이외의 자음뒤)/X(ㄹ이나 모음뒤)// 이다.

{놀-}+{-으까}
→//노:-//+{-으까} (어미 {-으까} 앞에서 '노:-'가 선택된다)
→//노:-//+//-까// (어간말음이 모음이므로 어미는 '-까'가 선택된다)
→노:까

{놀-}+{-으먼}
→//놀/놀:/노:-//+//-먼// (어간말음이 ㄹ이나 모음이므로 어미는 '-먼'이 선택된다)
→//놀:-//+//-먼// (어미두음이 자음이므로 어간은 '놀:-'이 선택된다)
→놀:먼

結論的으로 종래에 ㄹ로 끝난 단형어간으로 처리해오던 어간들은 'Xㄹ/X-'이나 'Xㄹ/Xㄹ:/X:-'을 기저형으로 가지는 다형어간이 된다.

活用樣相이 特殊한 어간들이 있다. '델-'(데리-)은 다음과 같은 한정된 어미와의 결합형만 쓰인다.

데꼬(데리고), 델로(데리러), 델어(데려),
델다~델어다~델으다(데려다)[53]

53) '델으다'는 '델어다'에서 비어두 '어>으'(3장의 주4 참조)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데끄, 델다'가 정상적인 ㄹ다형어간의 활용형(델고, 델어다)과 다른 점 또한 특수하다.

'말-*'(勿)에 종결어미 '-아, -아라'가 연결된 활용형은 '말어, 말어라' 외에 '마:, 마:라'도 나타난다. 연결어미 '-아'나 '-아도, -아서, -아야~아사'가 연결될 때는 그렇지 않다.

'글-, 욜-, 일-, 절-'은 각각 '그라-, 요라-, 이라-, 저라-'와 자유변이한다. 다만 전자가 모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을 가지지 못한 점이 특수하다. '글-'의 예를 본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음어미 활용형	: 글고, 글드라, 글재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 글먼, 긍깨, 그까
모음어미 활용형	: *글어

'글-'의 모음어미 활용형은 '그라-'의 활용형인 '그래'를 대신 쓴다. '그라-, 요라-, 이라-, 저라-'는 '아'다형어간(§5.3.6 참조)이다.

'때리-'도 자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 앞에서는 '땔-*'이라는 자유변이형을 가진다. 모음어미 활용형은 '때리-'의 활용형 '때래'를 대신 쓴다.

자음어미 활용형	: 땔:고, 땔:드라, 땔:재
매개모음어미 활용형	: 땔:먼, 땡:깨, 때:까[54]
모음어미 활용형	: *땔어

'때리고>때르고>땔:고, 때리먼>때르먼>땔:먼'과 같이 어중의 '리>르'에서 모음 '으'가 탈락하고 음절수 감소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를 통해 '땔

54) 진도지역어를 기록한 채정례 구술(1991)에 다음 예들이 전사되어 있다.

땔든만(때리더니만. 39면, 81면), 땝디다(때립디다. 105면),
때는(때리는. 105면), 땔기는(때리기는. 113면)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55) '뗄어'라는 모음어미 활용형이 쓰이지 않으므로 음장교체를 가진 어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때래'를 염두에 두면 완전한 활용을 하는 어간이 되었을 때 음장교체를 가진 어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잠정적으로 음장교체를 가진 어간에 넣어둔다.

'불-'(보조동사 '버리-')의 모음어미 활용형 '불어' 중에서 '-었-'과의 연결형은 '불었-' 대신에 '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묵어) 불었어~붔:어, (자빠져) 불었겄다~붔:겄다

이것은 '부렀-(불었-)>부릈->붔:-'과 같은 통시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56)

---

55) 어중의 '리>르>ㄹ'의 통시적 변화는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허리끈>허르끈>헐끈, *머리ㅋ락>머르크락>멀크락
*건드리->건드르->건들-, *두드리->뚜두르->뚜둘-
*찡그리->찡그르->찡글-, *다독-거리->따둑-그르->따둑-글-
*ᄫ리-(보조동사)>버리->브리->부리->부르->불-

문법적 의미가 강한 다음 표현들에서는 '리>르>ㄹ'의 변화 이후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은단 말이다~-은단 말다~-은단 마다 (…한단 말이다)
-은단 말이재~-은단 말재~-은단 마재 (좀 …할 것이지)
-은단 말이시~-은단 말시~-은단 마시 (…한단 말일세) .

56) 『한국구비문학대계 6:3(전남 고흥군편)』(1984)에 다음 예들이 전사되어 있다.

해붔단 말이여(해 버렸단 말이야. 39면),
돌라붔다 말이여(훔쳐 버렸단 말이야. 342면),
죽어붔으이(죽어 버렸으니. 352면)

5.3.2. ㅎ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Xㅎ/X-'어간
놓-1, 놓-2
'Xㅎ/X우-'어간
좋:-

'Xㅎ/X-'어간('놓-1'은 본동사, '놓-2'는 보조동사이다)은 ㅎ어간(§5.2.1.4 참조)과 비슷하나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長音을 가지지 않는 점이 다르다.

놓고 /노코/, 노면, 놔:

'놓-'을 ㅎ어간으로 보면 다른 ㅎ어간의 도출, 예를 들어 '꽁-으면→꼬으면→꼬오면→꼬:면'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同母音縮約에 따른 報償的 長音化가 '놓-으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이는 어휘적인 例外를 인정하는 추상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저형을 둘로 잡아야 할 것이다. // 놓(자음어미 앞)/노-(그밖)// . '-아'활용형 /놔:/는 '노-아'로부터 w반모음화와 보상적 장음화를 통해 기술된다.

'Xㅎ/X우-'어간(좋:-)은 기저형과 그 활용형이 다음과 같다.

// 좋:(자음어미 앞)/조:우-(그밖)//
좋:고 /조:코/, 조:우면, 조:와

모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 앞에 쓰이는 기저형 '조:우-'의 활용양상은 일반적인 '우'어간('배우-, 쏘우-, 야우-, 피우-' 등)과 똑같다(배우면, 배

와, …).

5.3.3. ㅂ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두 形容詞임이 특징이다.

곱:, 떱*, 맵, 밉, 쉽:, 잡2, 춥, 가찹, 개법, 고:맙, 괴롭, 나찹, 더듭, 더:럽, 떠:럽, 뚜껍, 매럽, 무접, 무섭, 방갑, 불법, 사:납, 서:럽, 실접, 싸:납, 싸:넙, 씨럽, 아깝, 아숩, 어둡, 에럽, 여:럽, 우:섭, 우틉, 잘럽, 제럽, 짤럽, 퉁접, 패:럽, 해:롭, 간지럽, 근지럽, 꺼치럽, 미끄럽, 보드랍, 부끄럽, 시끄럽, 어지럽, 이:무럽, 자그럽, 사치시럽

이들의 基底形은 ∥Xㅂ(자음어미 앞)/X우-(그밖)∥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떱:-'(暑)만은 ∥떱:/떠우-∥ 와 같이 음장교체가 있다. 몇 활용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곱:/고:우-	: 곱:고, 곱:드라, 고:우먼, 고:웅깨, 고:와
떱:/떠우-	: 떱:고, 떱:드라, 떠우먼, 떠웅깨, 떠와
춥/추우-	: 춥고, 춥드라, 추우먼, 추웅깨, 추와
더듭/더드우-	: 더듭고, 더듭드라, 더드우먼, 더드웅깨, 더드와

모음어미는 기저형 'X우-'에 연결되므로 '우'로 끝난 2음절 이상의 어간에 붙는 셈이 되어 항상 '-아'로 나타난다. 'X우-아'는 'X와:→X와'와 같이 w반모음화와 보상적 장음화, 비어두 단음화를 거친다. 고:우-아→고:와:→고:와, 더드우-아→더드와:→더드와.

기저형을 ∥Xㅂ(자음앞)/Xw-(모음앞)∥ 로 잡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두가지 점에서 위의 방안보다 不利하다. 첫째, '아'계 어

미와 결합할 때 '-아/어'의 선택조건으로 w 뒤에서는 '-아'가 선택된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의 방안에 따르면 다른 '우'어간('배우-, 쏘우-, 야우-, 피우-' 등)이나 '좋:/조:우-'가 '-아'를 취하는 것과 함께 '우'로 끝난 다음절 어간이 '-아'를 취한다고 一般化하여 기술할 수 있으므로 ㅂ다형어간에 대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ㅂ다형어간도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는 '우'로 끝난 다음절 어간이다). 둘째,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w와 '으'가 만나면 '우'로 된다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은 다른 곳에서 공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負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저형을 ∥Xㅂ(자음앞)/Xw-(모음앞)∥로 잡는 방안보다 우리의 방안을 따르는 것이 낫다.

5.3.4. ㄷ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에는 '듣-'(聞) 한가지가 있다. 표준어의 '걷-, 묻-, 싣-'은 §5.2.1.5에서 본 바와 같이 ㄹㅎ이나 ㄹㆆ을 말음으로 가진다. 또 '긷-'(汲)은 '질르-'로 재구조화되었다. '듣-'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듣뜨라, 드르먼, 드릉깨, 드러/

자음어미 앞의 基底形이 '듣-'인 것은 분명하다.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의 基底形은 '드르-'일 수도 있고 'ᄃᆶ-'이나 'ᄃᆶ-'일 수도 있다. '드르-, ᄃᆶ-, ᄃᆶ-' 중에서 어느것이 기저형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드르-'로 잡아둔다. 'ᄃᆶ-, ᄃᆶ-'로 잡으면 'ᄃᆶ-어→드러, ᄃᆶ-어→드러'에서 어간말 ㅎ탈락 또는 어간말 ㆆ탈락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고 '드르-'로 잡으면 '드르-어→드러'에서 '으'탈락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후자가 더 자연성이 큰 음운과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듣(자음어미 앞)/드르-(그밖)//

5.3.5. '르'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르, 끄르, 너르, 누르*3, 모르*, 무르, 바르, 보르, 부르, 이르, 찌르, 버무르, 처지르

이들의 基底形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다만 '누르-3(壓), 모르-(不知)'는 음장교체가 있다.57)

// X르르(모음어미 앞)/X르-(그밖)//

몇 활용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고르/골르-// : 고르고, 고르먼, 골라
// 누르/눌:르-// : 누르고, 누르먼, 눌:러
// 모르/몰:르-// : 모르고, 모르먼, 몰:라58)
// 버무르/버물르-// : 버무르고, 버무르먼, 버물러

모음어미 앞에서 말음 '으'는 탈락한다(골르-아→골라). 또 모음어미는

---

57) 젊은 세대에서는 '르'다형어간이 모두 모음어미 앞의 형태 쪽으로 단일화되어 쓰인다.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난 것이다.

// 골르-// : 골르고, 골르먼, 골라
// 눌:르-// : 눌:르고, 눌:르먼, 눌:러

58) '모르겄-'은 '몰겄-'으로도 나타난다. 모르겄다~몰겄다, 모르겄소~몰겄소, 모르겄드랑께~몰겄드랑께, 모르겄습디다~몰겄습디다.

첫음절 모음이 '오'일 때 '-아', 그밖에는 '-어'가 선택된다.

5.3.6. '아'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은 '하-'와 '하-'에서 형성된 합성어간들이다.[59)]

1음절어간 : 하
2음절 지시사 어간 : 그라, 어짜, 어차, 요라, 이라, 저라[60)]
그밖의 합성어간
(2음절어간) 과:하, 권:하, 귀:하, 급하, 겸:하, 놀:하, 독하, 둔:하, 딱하, 만:하, 망하, 못:하, 부:하, 빈:하, 뻰:하, 뻙:하, 생하, 성하, 쉴:하, 실하, 안하, 요:하, 용:하, 장:하, 중:하, 지:하, 진하, 징하, 짠:하, 착하, 칠하, 탁하, 토하, 통하, 파하, 펄:하, 펜하, 피하, 필:하, 하:야, 환:하, 휜:하, 혹:하, 흠:하
(3음절어간) 가늘하, 가직하, 감:사하, 갈잔하, 개운하, 고약하, 괘씸하, 괜찬하, 귀찬하, 깝깝하, 깡:깡하, 깨깟하, 께울하, 꼽꼽하, 꿉꿉하, 날날하, 널널하, 뚤:럼하, 뚱뚱하, 마:다하, 멍청하, 모:질하, 미런하, 미안하, 방:사하, 부족하, 불쌍하, 빡빡하, 뺏뺏하, 뻣뻣하, 뾔쪽하, 생각하, 서눌하, 서운하, 쉴찬하, 시시하, 시언하, 씽씽하, 쎈찬하, 씨언하, 앙퉁하, 얇실하, 얌:전하, 어리하, 엥간하, 오직하, 옹:삭하, 우선하, 웅큼하, 이:상하, 잘잘하, 점:잔하, 조:찬하, 조용하, 지댄하, 진찬하, 질개하, 질쪽하, 짜잔하, 짭짭하, 짱짱하, 쫑:긋하, 쬐:깐하, 착실하, 척척하, 추접하, 캄:캄하, 크댄하, 튀미하, 틉틉하, 헤:꼽하
(4음절어간) 부지런하, 아짐찬하, 어중간하, 에징간하, 엥간찬하, 조

59) 이들이 중앙어에서 'X아/X애-'와 같은 다중기저형을 가진 '애'변칙어간임은 최명옥(1988)에서 논의되었다.
60) '그라-, 요라-, 이라-, 저라-'의 어원적 표기는 '글하-, 욜하-, 일하-, 절하-'와 같이 될 수 있으나 표준어의 맞춤법에서 적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그막하, 쪼그막하
(5음절어간) 거무시름하, 낭창낭창하, 어둑어둑하, 얼멍얼멍하, 주렁주렁하

이들의 活用樣相은 다음과 같다.

하- : 하고, 하면, 해:
그라- : 그라고, 그라면, 그래
성하- : 성하고, 성하면, 성해
가늘하- : 가늘하고, 가늘하면, 가늘해

1음절어간인 '하-'를 제외하면 基底形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X애(모음어미 앞)/X아-(그밖)//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그라-/그래-// : 그라고, 그라면, 그래
// 성하-/성해-// : 성하고, 성하면, 성해

母音語尾는 '-아'가 선택된다고 본다. '건:내-'와 같은 '애'로 끝난 다음절 어간의 경우와 도출과정이 같다(§5.2.2.4 참조). '아'전설화, 동모음축약, 보상적 장음화, 비어두 단음화를 겪어 도출된다.

그래-아→그래-애→그래:→그래
성해-아→성해-애→성해:→성해

1음절어간 '하-'의 경우에는 모음어미 앞의 基底形을 短音語幹으로 설정할 것인지 長音語幹으로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 해(모음어미 앞)/하-(그밖)//
// 해:(모음어미 앞)하-(그밖)//

이 두가지 중 어느쪽을 택해도 '-아'활용형 '해:'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해-아→해-애→해:(동모음축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의 실질적 적용)
해:-아→해:-애→해:(동모음축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의 공허한 적용)

그런데 경기 일부 지역의 방언에서 '해고, 해니까, 해:'와 같은 새 활용 계열이 나타나 기저형이 短音의 // 해-// 로 單一化된 것을 볼 수 있다. '-아'활용형 '해:'에 들어있는 어간의 기저형이 短音의 '해-'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을 참고하면 이 방언의 '-아'활용형 '해:'도 // 해-아// 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 중 모음어미 앞의 기저형을 단음의 '해-'로 잡는 방안을 따르기로 한다.

// 해(모음어미 앞)/하-(그밖)//

'만:하-, 쉴:하-, 안하-, 펜하-, 같잔하-, 괜찬하-, 귀찬하-, 쎈찬하-, 점:잔하-, 아짐찬하-, 엥간찬하-'는 자음어미 앞에서 '하'의 '아'가 탈락한 형태 '많:-, 슳:-' 등으로도 쓰인다.

망:코(많:고), 만:채(많:재), 만:쏘(많:소), 만:내(많:내),
쉴:타(슳:다), 같잔캐(같잖개), 점:잔내(점:잖내), 엥간찬타(엥간찮다)

5.3.7. '오'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은 다음 하나다.

오

§5.2.2.2에서 보았듯이 '오-'(來)는 다른 '오'어간과 달리 '-아'가 연결될 때 w반모음화에 따른 報償的 長音化를 일으키지 않고 短音의 '와'로 실현된다. 보상적 장음화가 어휘적 예외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어간 '오-'가 다음과 같은 多重基底形을 가진 것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 w(모음어미 앞)/오-(그밖)//

5.3.8. '이'다형어간

여기에 속한 語幹은 다음 하나다.

이2

'이-2'(戴)를 '이'로 끝난 단형어간으로 보지 않고 多形語幹의 하나로 보는 것은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의 활용양상이 '이'로 끝난 단형어간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어간
기:-어→게:, 이:-어→예:,
비비-어→비배, 아니-어→아내, 훌리-어→훌래
건지-어→건재, 다치-어→다채, 엎지-어→엎째

이-2

이-어→여

'이-2'는 첫째, 어미두음 '어'를 '에'로 前舌化시키지 않고, 둘째, y반모음화에 따른 報償的 長音化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어'전설화와 보상적 장음화에 대한 例外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오-'(來)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기저형을 달리 잡음으로써 기술하기로 한다. 기저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y(모음어미 앞)/이-(그밖)//

5.3.9. 지정사어간

指定詞語幹 '이-' 역시 '이'로 끝난 單形語幹과 다른 활용양상을 보인다. §5.3.8에서 본 '이-2'와도 활용양상이 조금 다르다. 지정사는 항상 명사나 그에 상당하는 성분 뒤에 붙어 쓰이므로 명사에 붙은 형태 자체를 가지고 활용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배-고, 배-면, 배-여

집-이고, 집-이면, 집-이여

지정사어간의 異形態를 조사하면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앞	모음어미 앞
모음 뒤	ϕ-	y-
자음 뒤	i-	iy-

이 네가지 이형태에서 서로를 서로로부터 음운론적으로 자연스럽게 導

出해낼 수 있는 경우는 iy에서 i를 도출하는 것뿐이다. iy와 같은 하강 이중모음이 표면에 중성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음절구조제약에 따른 음운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집-iy-고→집-i-고(집이고)

자음앞 y탈락 : y는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나머지 이형태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 기저형을 '이-'로 잡고,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i→iy(집-iy-어)와 같은 음운과정,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일어나는 i→y(배-y-어)와 같은 음운과정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이'로 끝난 단형어간의 활용을 참고하면 變則的이다. 둘째, 기저형을 y-로 잡고,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y→iy(집-iy-어)와 같은 음운과정,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y→i(집-i-다)와 같은 음운과정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自然스럽지 않다(i첨가나 y→i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셋째, 기저형을 iy-로 잡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iy→y(배-y-어)와 같은 음운과정을 설정하여 기술할 수도 있으나 '이'의 탈락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넷째, 위의 어느 방안을 따르든 이형태 ϕ를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 i나 y의 탈락으로 도출해야 하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이 될 수 없다.

자연스러운 음운과정만을 설정하여 지정사어간의 네가지 이형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基底形을 ϕ-, y-, iy- 셋을 설정해야 한다.[61] 基底

61) 二重母音體系에 들어 있지 않은 iy를 기저형에 설정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2장에서 본 이중모음체계를 비롯한 자음체계, 모음체계는 표면음소의 체계이지 形態音素의 체계는 아니다. 子音群이 표면음소의 차원에서는 설정되지 않지만 형태음소의 차원에서는 용언어간말에 설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음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 ㆆ을 어간말자음

形과 그 선택조건은 다음과 같다.[62]

/φ-/y-/iy-/

선택조건
- /φ-/ : 모음 뒤이면서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 앞
- /y-/ : 모음 뒤이면서 모음어미 앞
- /iy-/ : 자음 뒤

先語末語尾 '-으꺼이-'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면 '-으꺼얘'로 실현되지 않고 '-으꺼여'로 실현된다. '-으꺼이-'의 말음 '이'가 지정사에서 왔기 때문에 지정사의 활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4. 음운현상

어간과 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음운현상들에 대해서는 §5.2와 §5.3에서 어간을 末音別로 고찰하면서 그때그때 논의했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음운과정의 관점에서 綜合的으로 다룬다.

음운과정은 표면형들을 한정된 기저형으로부터 導出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음운과정의 설정에는 제약이 따라야 한다. 음운과정이 음운론적인 自然性(자연부류에 의거하여 일어남)과 普遍性(예외를 가지지 않음)을 가지지 못하면 추상적인 기저형과 도출과정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5.2와 §5.3에서 용언어간의 다양한 활용을 기술하고 음운과정을 설정할 때 추상적인 분석을 배제하기 위해 그러한 점

군의 말음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ㆆ이 기저형을 구성하는 분절음(즉 형태음소)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62) 배주채(1991a)에서는 i도 기저형의 하나로 설정하여 기저형을 넷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형태 i를 기저형 iy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 여기에서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을 염두에 두었다. 이제 앞에서 설정된 음운과정들의 目錄을 확정하고 음운과정을 중심으로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을 記述한 후, 음운과정간의 關係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5.4.1. 음운과정의 목록

어간별 기술에서 따로따로 설정한 음운과정들 중 본질적으로 같은 音韻過程인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은 마땅히 단일한 형식으로 統合해야 한다. 결국 동일한 음운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이 통합되어야 하는지 보자.

어간말 ㅎ탈락 : 어간말음 ㅎ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어간말 ㆆ탈락 : 어간말음 ㆆ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 어간말 후음탈락 : 어간말음 ㅎ, ㆆ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ㅎ과 ㆆ은 후음으로서 공명자음과 모음 사이, 또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弱化되기 쉽다. 이들이 어간말음일 때는 이러한 음운환경에서 똑같이 脫落한다. 그러므로 어간말 후음탈락이라는 단일한 음운과정으로 통합한다.

ㆆ축약 : 어간말음 ㆆ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경음이 된다. (필수적)
ㅎ축약 : 어간말음 ㅎ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유기음이 된다. (필수적)

⇒ 후음축약 : 어간말음 ㅎ, ㆆ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각각 유기음, 경음이 된다. (필수적)

ㅎ과 ㆆ이 인접한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縮約되는 현상도 한가지 음운과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 두 후음이 각각 유기성이나 긴장성과 같은 資質로 바뀌기 쉽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을 후음축약이라는 단일한 음운과정으로 통합한다.

w반모음화1 : 어간말음 '오'가 '아' 앞에서 w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w반모음화2 : 어간말음 '우'는 '어' 앞에서 w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w반모음화3 : 어간말음 '외'는 '애' 앞에서 w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w반모음화4 : 어간말음 '위'는 '에' 앞에서 w로 바뀐다(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 w반모음화 : 어간말음 '오, 우, 외, 위'는 각각 '아, 어, 애, 에' 앞에서 w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원순모음이 평순모음 앞에서 w라는 반모음으로 바뀌는 점이 공통적이다. 모음충돌을 피한다는 動機도 같고 원순모음이 w로 바뀐다는 變動의 方向도 같다. 따라서 w반모음화라는 한가지 음운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전설화 : 어미두음 '아'는 어간말음 '애, 외' 뒤에서 '애'로 바뀐다. (필수적)
'어'전설화 : 어미두음 '어'는 어간말음 '이, 위' 뒤에서 '에'로 바뀐다. (필수적)

⇒ '아, 어'전설화 : 어미두음 '아, 어'는 어간말음 '애, 외, 이, 위' 뒤에서 각각 '애, 에'로 바뀐다. (필수적)

'아'탈락 : 어미두음 '아'는 기저의 '아'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어'탈락 : 어미두음 '어'는 기저의 '어'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 '아, 어'탈락 : 어미두음 '아, 어'는 기저의 '아, 어'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아'전설화와 '어'전설화, 그리고 '아'탈락과 '어'탈락은 각각 入力과 出力과 環境이 아주 평행적이다. 각각이 결국 같은 음운과정이다.

그런데 원순모음화1(필수적)과 원순모음화2(수의적)는 똑같이 원순모음화이지만 適用의 必須性이 다르므로 통합할 수 없다. w탈락1(필수적), w탈락2(수의적)의 경우와 비어두 y탈락1(수의적), 비어두 y탈락2 (필수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통합하지 않는다.

이제 活用에서 일어나는 음운과정의 目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63] 편의상 입력과 출력이 어떤 종류의 음인가에 따라 네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 자음에 관한 음운과정(입력이나 출력이 자음인 것)
'는'탈락, 어간말 후음탈락, 후음축약, 자음군의 자음탈락, 비음뒤 경음화
② 모음에 관한 음운과정(입력이나 출력이 반모음이 아니고 모음인 것)
'으'탈락, '아, 어'전설화, '아, 어'탈락, 동모음축약, '워'축약, '으'동화, 원순모음화1, 원순모음화2,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③ 반모음에 관한 음운과정(입력이나 출력이 반모음인 것)
w탈락1, w탈락2, w반모음화, 비어두 y탈락1, 비어두 y탈락2, 어

63) 물론 음절에 관한 제약에 따른 음운과정으로 §3.3에서 제시된 것들 중 평폐쇄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ㄷ탈락도 활용에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두 y탈락, 자음앞 y탈락, y반모음화
④ 음장에 관한 음운과정(입력과 출력이 모두 음장인 것)
보상적 장음화, 단음화

5.4.2. 자음에 관한 음운과정

이제 音韻過程들을 中心으로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을 기술한다. §5.2와 §5.3에서의 기술을 다시 정리하는 셈이 된다. 도출의 예는 각 유형의 어간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개씩만 보인다.

(1) '는'탈락 : '-는다'의 '는'은 비음 뒤에서 탈락한다. (수의적)

이것은 子音어간이나 일부 多形語幹(구체적으로 말하면 '-는다' 앞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기저형을 가지는 어간)에 어미 '-는다'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우선 鼻音化가 일어나 어간말음이 비음이 되면 그 비음 뒤에서 '는'이 탈락한다.

폐쇄음어간 : 잡-는다→잠는다→잠다
치찰음어간 : 빗-는다→빋는다→빈는다→빈다
비음어간 : 끈-는다→끈다
ㅎ어간 : 낳-는다→낟는다→난는다→난다
자음군어간 : 늙-는다→늑는다→능는다→능다
ㅎ다형어간 : 놓-는다→녿는다→논는다→논다
ㄷ다형어간 : 듣-는다→든는다→든다

자음군 ㄾ, ㅀ, ㅀ어간에 '-는다'가 연결되면 자음군의 자음탈락이 일어나 'ㄹ+는다'가 되므로 '는'탈락이 일어날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유음화가 일어난다(핥-는다→할는다→할른다, 앓-는다→알는다→알른

다).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춘 음절 하나가 통째로 탈락하는 점에서 '는'탈락은 달리 찾아볼 수 없는 特異한 音韻過程이다.

(2) 어간말 후음탈락 : 어간말음 ㅎ, ㆆ이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ㅎ어간이나 ㅀ, ㅭ어간에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후음 ㅎ, ㆆ이 共鳴子音과 母音 사이에서 음성적인 동화로서 有聲音化되는 것이 탈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ㅎ어간 : 놓-아→나아→나:
자음군 ㅀ, ㅭ어간 : 싫-어→시러

(3) 자음군의 자음탈락 : 어간말자음군의 강도가 약한 자음이 그 뒤에 경음이나 공명자음이 올 때 탈락한다. (필수적) (강도 : 비음>양순폐쇄음, 연구개폐쇄음>유음>치조폐쇄음과 후음)

이것은 이른바 子音群單純化 現象의 하나이다. 자음군어간에 자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硬音化가 일어날 환경이면 우선 경음화가 일어나 어미두음이 경음화된 후에 자음탈락이 일어난다. 語尾頭音이 ㄴ일 때는 경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므로 경음화와 관계없이 자음탈락이 일어난다.

자음군어간 : 홅-고→홅꼬→홀꼬 (경음화가 일어난 후)
홅-는다→할는다→할른다 (경음화와 관계없이)

(4) 후음축약 : 어간말음 ㅎ, ㆆ은 뒤따르는 평폐쇄음, 평파찰음과 축약되어 각각 유기음, 경음이 된다. (필수적)

이것은 이른바 축약으로서의 有氣音化·硬音化이다. ㅎ어간이나 ㄶ, ㅀ 어간, 그리고 ㅎ다형어간에 ㄱ, ㄷ, ㅈ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ㅎ어간 : 낳-고→나코
자음군 ㄶ, ㅀ어간 : 싫-고→실코, 삶:-고→실:꼬
ㅎ다형어간 : 놓-고→노코

(5) 비음뒤 경음화 : 평음이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으로 바뀐다. (필수적)

이것은 鼻音어간이나 ㄻ어간에 ㄱ, ㄷ, ㅈ, ㅅ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비음어간 : 끈-고→끈꼬
자음군 ㄻ어간 : 젊:-다→젊:따→점:따

5.4.3. 모음에 관한 음운과정

(6) '으'탈락 : 어간말음 '으'는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으'어간이나 ㄷ다형어간, '르'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으'어간 : 뜨-어→떠
ㄷ다형어간 : 드르-어→드러
'르'다형어간 : 골르-아→골라

(7) '아, 어'탈락 : 어미두음 '아, 어'는 기저의 '아, 어'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ㅏ'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으꺼이-'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ㅏ'어간 : 가-아→가
선어말어미 '-으꺼이-' : 있-으꺼-어→이쓰꺼

'ㅏ'와 'ㅏ', 'ㅓ'와 'ㅓ'의 연결에서 같은 모음끼리 만나면 母音衝突을 피하기 위해 뒷모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8) '으'동화 : '으'는 앞모음에 완전동화된다. (필수적)

이것은 ㅎ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ㅎ어간 : 낳-으면→나으면→나아면→나:면

어간말 후음탈락이 일어난 후 어미두음 '으'가 앞모음에 直接順行同化된다.

(9) '아, 어'전설화 : 어미두음 '아, 어'는 '애, 외, 이, 위' 뒤에서 각각 '애, 에'로 바뀐다. (필수적)

이것은 '애, 외, 이, 위'어간이나 'ㅏ'다형어간의 말음 '애, 외, 이, 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나고 先語末語尾 '-으시-'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나며 ㅎ어간 중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이'인 어간(찧-)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애'어간 : 개:-아→개:애→개:
'외'어간 : 되-아→되애→돼:
'이'어간 : 기:-어→기:에→계:→게:
'위'어간 : 뛰-어→뛰-에→뛔:
'아'다형어간 : 해-아→해애→해:
선어말어미 '-으시-' : 하-시-어→하시애→하새:→하새:→하새
ㅎ어간 : 짛-어→지어→지에→졔:→제:

'짛-'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면 語幹末 喉音脫落이 일어난 후 어간의 모음 '이'와 어미두음 '어'가 만나 '어'가 '에'로 전설화된다. 어느 경우에나 앞모음의 前舌性이 直接順行同化를 일으키는 것이다.

(10) 동모음축약 : 같은 모음이 연결되면 한 음절로 축약된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이것은 ㅎ어간에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나고 '애' 어간이나 '아'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ㅎ어간 : 낳-아→나아→나:, 낳-으면→나으면→나아면→나:면
'애'어간 : 캐-아→캐애→캐:
'아'다형어간 : 해-아→해애→해:

ㅎ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語幹末 喉音脫落이 일어난 후에 어간말음절의 모음 '아, 어'와 어미두음 '아, 어'가 만나 일어난다. ㅎ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말 후음탈락과 '으'동화가 일어난 후 어간말음절의 모음과 어미두음이 같은 모음이 되어 일어난다.

	어간말 후음탈락		'으' 동화		동모음축약	
낳-으먼	→	나으먼	→	나아먼	→	나:먼
옇-으먼	→	여으먼	→	여어먼	→	여:먼
꽇-으먼	→	꼬으먼	→	꼬오먼	→	꼬:먼
짛-으먼	→	지으먼	→	지이먼	→	지:먼

'애'어간과 '아'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면 어미두음 '아'가 '애'로 '아, 어'전설화를 겪은 후에 '애'와 '애'가 만나 '애:'로 축약된다.

(11) '워'축약 : '워'는 비어두 자음 뒤에서 '오'로 바뀐다. (수의적)

이것은 '우'로 끝난 2음절어간 중 '두-, 주-'로 끝난 복합어간 '나:두-, 냅:두-, 내:주-' 등에 모음어미의 두음 '어'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우'어간 : 나:두-어→나:둬:→나:둬→나:도

어간말음 '우'가 어미두음 '어' 앞에서 w반모음화하고 난 후에 '워'가 '오'로 축약된다.

(12) 원순모음화1 : 어간말음이나 어미두음 '으'가 양순음 뒤, 자음 앞에서 '우'로 바뀐다. (필수적)

이것은 양순음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나고, '양순음+으' 어간에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일어난다. 兩脣音어간에는 폐쇄음 ㅂ, ㅍ어간, 비음 ㅁ어간, 자음군 ㄻ, ㄼ어간이 있다. 이때는 語尾頭音 '으'가 '우'로 원순모음화된다. '兩脣音+으'어간에는 1음절 어간으로 '푸-'(기저형은 //프-//)가 있고 2음절어간으로 '므, 브, 쁘, 프'어간들('골므-, 덤브-, 바쁘-, 가프-' 등)이 있다. 이때는 語幹末音

'으'가 '우'로 원순모음화된다.

폐쇄음 ㅂ, ㅍ어간 : 입-으면→이부먼
비음 ㅁ어간 : 남-으먼→나무먼
자음군 ㄻ, ㄼ어간 : 얇-으먼→얄부먼
'으'어간 : 프-고→푸고

어느 경우에나 兩脣子音에 의한 直接順行同化이다.

(13) 원순모음화2 : 어미두음 '으'가 원순모음을 가진 음절 뒤에서 '우'로 바뀐다. (수의적)

이것은 어간말음절 모음이 '오, 우'이고 자음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난다.

폐쇄음어간 : 녹-으먼→노구먼
치찰음어간 : 붓-으먼→부수먼
자음군어간 : 홅-으먼→홀투먼

語尾頭音 '으'가 어간말음절 모음 '오, 우'에 間接順行同化되어 '우'로 된다.

(14) 전설모음화 : 어간말음이나 어미두음 '으'가 파찰음 뒤, 자음 앞에서 '이'로 바뀐다. (필수적)

이것은 우선 ㅈ어간에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난다. 이때는 어미두음 '으'가 ㅈ의 전설성에 直接順行同化되어 '이'로 된다. 그리고 전설모음화는 '파찰음(ㅈ, ㅉ, ㅊ)+으'어간에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일어난다. 이때는 어간말음 '으'가 파찰음의 전설성에 直接順行同化되어 '이'로 된다. '파찰음+으'어간에는 1음절어간으로 '지-, 찌-, 치-'(기저형은 각각 //즈-//, //쯔-//, //츠-//)가 있고 표기상 '지, 찌, 치'로 끝난 상당수의 다음절어간도 이에 속한다.

ㅈ어간 : 늦-으면→느지면
'으'어간 : 츠-고→치고, 가즈-먼→가지먼

(15) 움라우트 : 어간말음절의 후설모음이 모음 '이'를 가진 음절 바로 앞에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 (수의적)

이것은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後舌母音 '으, 어, 아, 우, 오'인 어간에 名詞形語尾 '-기'가 연결될 때 일어난다.

폐쇄음어간 : 녹-기→녹끼→뇍끼
치찰음어간 : 붓:-기→붇:기→붇:끼→북:끼→뷕:끼
비음어간 : 남:-기→남:끼→낭:끼→냉:끼
ㅎ어간 : 낳-기→나키→내키
자음군어간 : 늙-기→늙끼→늑끼→닉끼
'으'어간 : 뜨-기→띠기
'오'어간 : 보-기→뵈기
'우'어간 : 두-기→뒤기
'아'어간 : 가-기→개기
ㅎ다형어간 : 놓-기→노키→뇌키
ㅂ다형어간 : 춥-기→춥끼→축끼→췩끼
ㄷ다형어간 : 듣-기→듣끼→득끼→딕끼
'아'다형어간 : 하-기→해기
'오'다형어간 : 오-기→외기

이것은 어간말음절의 후설모음이 어미 '-기'의 모음 '이'의 전설성에 間接逆行同化되어 전설모음이 되는 것이다. 국어의 움라우트에서 동화음 '이'와 피동화음인 후설모음 사이에 낀 介在子音은 모두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어야 한다. 母音어간에 '-기'가 연결되면 ㄱ이 개재자음으로서 적격하다. 子音어간에 '-기'가 연결되면 어간말자음이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면 괜찮지만 치조음이나 경구개음이면 개재자음으로서 부적격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ㄹ을 제외한 치조음이나 경구개음 뒤에 '-기'가 연결되면 수의적인 調音位置同化가 일어날 환경이 되므로 어간말자음이 수의적으로 연구개음이 되어 개재자음으로서 적격하게 된다. 이때 움라우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X다형어간과 자음군 ㄾ, ㅀ, ㅀ어간에 '-기'가 연결되면 ㄹ이 개재자음으로 부적격하기 때문에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들-기→*딜기, 핥-기→할끼→*핼끼, 옳-기→올키→*욀키

5.4.4. 반모음에 관한 음운과정

(16) w반모음화 : 어간말음 '오, 우, 외, 위'는 각각 '아, 어, 애, 에' 앞에서 w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이것은 우선 圓脣母音 '오, 우, 외, 위'어간이나 基底形 중의 하나가 圓脣母音어간(ㅎ다형어간(놓/노-, 좋:/조:우-), ㅂ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그리고 ㅎ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이때는 어간말음 ㅎ이 語幹末 喉音脫落을 통해 탈락한 후 도출과정에서 '오-아'라는 모음연결이 생겨 이 음운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오'어간 : 보-아→봐:
'우'어간 : 두-어→둬:

'외'어간 : 되-아→되애→돼:
'위'어간 : 뛰-어→뛰-에→뛔:
ㅎ다형어간 : 노-아→놔:
ㅂ다형어간 : 추우-아→추와:→추와
ㅎ어간 : 꽇-아→꼬아→꽈:

(17) y반모음화 : '이'는 '에' 앞에서 y로 바뀐다. (보상적 장음화를 수반한다.) (필수적)

이것은 우선 '이'어간이나 先語末語尾 '-으시-'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그리고 ㅎ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이때는 어간말음 ㅎ이 語幹末 喉音脫落을 통해 탈락한 후에 어미두음 '어'가 '에'로 前舌化하고 나서 일어난다.

'이'어간 : 기:-어→기:에→계:→게:
선어말어미 '-으시-' : 하-시-어→하시애→하섀:→하섀→하새
ㅎ어간 : 짛-어→지어→지에→졔:→제:

(18) w탈락1 : w는 비어두 양순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양순음+오'로 끝난 다음절어간 '해:보-'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비어두에서 '봐'와 같은 音節이 制約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오'어간 : 해:보-아→해:봐:→해:봐→해:바

(19) w탈락2 : w는 비어두 치조음 뒤에서 탈락한다. (수의적)

이것은 '치조음+우'로 끝난 다음절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비어두에서 '놔, 돠, 롸, 솨, 톼'와 같은 音節이 어느 정도 制約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우'어간 : 가두-아→가돠:→가돠→가다

(20) 비어두 y탈락1 : 비어두의 초성이 없는 음절에서 y가 탈락한다. (수의적)

이것은 어간말음절이 '이'인 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비어두에서 '얘'와 같은 音節이 어느 정도 制約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이'어간 : 모이-어→모이얘→모얘:→모얘→모애

(21) 비어두 y탈락2 : 비어두의 초성이 있는 음절에서, 그 초성이 ㄴ이 아닐때, 또는 앞음절 말음과 그 초성의 연결이 ㄹㄹ이 아닐 때, y가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어간말음절이 '장애음+이'이거나 'ㅁ+이'인 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또는 어간말음절이 'ㄹ+이'이고 그 앞음절의 종성이 ㄹ이 아닌 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또 先語末語尾 '-으시-'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비, 삐, 피, 디, 띠, 티, 시, 씨, 지, 찌, 치, 기, 끼, 키, 미'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와 '모음+리'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이'어간 : 갈기-어→갈기얘→갈걔:→갈걔:→갈개
선어말어미 '-으시-' : 하-시-어→하시얘→하섀:→하섀→하새

'이'와 모음어미의 두음 '어'가 만나면 '어'가 前舌化되어 '에'가 되고 '이+에'가 '예'로 y반모음화하며 그 音節의 構造(자음+예)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22) 어두 y탈락 : y가 어두의 자음 뒤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우선 '자음+이'의 구조를 가진 1음절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위의 비어두 y탈락2와 마찬가지로 '이-어→이에→예'로 '자음+예'의 音節構造가 생겨나면 어두에서 이것이 制約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이것은 또 ㅎ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어간말음 ㅎ이 語幹末 喉音脫落을 통해 탈락하면 '자음+이'의 구조를 가진 1음절어간과 구조가 같아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어간 : 기:-어→기:에→계:→게:
ㅎ어간 : 짛-어→지어→지에→졔:→제:

(23) 자음앞 y탈락 : y는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 (필수적)

이것은 指定詞語幹의 한 기저형 iy-에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가 연결될 때 나타난다. 基底形을 '이-'로 잡으면 이 음운과정은 필요 없다. 기저형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異形態 '이-'를 기저형 iy-에서 도출하게 된 데서 필요하게 된 음운과정이다.

지정사어간 : (집)-iy-고→(집)이고

5.4.5. 음장에 관한 음운과정

(24) 보상적 장음화 : 두 음절이 축약이나 반모음화에 의해 한 음절이 되면 장음을 가지게 된다. (필수적)

이것은 다른 음운과정에 自動的으로 隋伴되는 음운과정이다. 同母音縮約, w半母音化, y半母音化에 항상 수반된다. 동모음축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ㅎ어간 : 낳-아→나아→나:
'애'어간 : 캐-아→캐애→캐:
'아'다형어간 : 해-아→해애→해:

w반모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오'어간 : 보-아→봐:
'우'어간 : 두-어→둬:
'외'어간 : 되-아→되애→돼:
'위'어간 : 뛰-어→뛰-에→뛔:
ㅎ어간 : 곻-아→고아→과:
ㅎ다형어간 : 노-아→놔:
ㅂ다형어간 : 추우-아→추와:→추와

y반모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이'어간 : 갈기-어→갈기애→갈개:→갈개:→갈개
선어말어미 '-으시-' : 하-시-어→하시애→하섀:→하섀→하새

(25) 단음화 : 장음은 비어두에서 단음화한다. (필수적)

이것은 동모음축약, w반모음화, y반모음화에 따른 報償的 長音化로 非語頭에 長音이 생겼을 때 나타나고, 축약형 '-아:꼬/어:꼬'(-아 갖고 §5.2.1.2 참조)가 연결될 때도 나타난다. '애'어간, '아'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同母音縮約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로, '오'어간, '우'어간, ㅂ다형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w半母音化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로, '이'어간, 선어말어미 '-으시-'에 모음어미가 연결될 때는 y半母音化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로 비어두에 장음이 생기게 되고 이 장음이 短音化되는 것이다. 그리고 축약형 '-아:꼬/어:꼬'의 장음은 '떷:고(떠 갖고), 퐞:고(파 갖고)' 등에서는 어두에 놓이므로 유지되지만 '찍엊고(찍어 갖고), 맹글앚고(맹글아 갖고)' 등에서는 비어두에 놓여 단음화된다.

'애'어간 : 만내-아→만내애→만내:→만내
'아'다형어간 : 성해-아→성해애→성해:→성해
'오'어간 : 해:보-아→해:봐:→해:봐→해:바
'우'어간 : 개우-아→개와:→개와
ㅂ다형어간 : 추우-아→추와:→추와
'이'어간 : 갈기-어→갈기애→갈개:→갈개:→갈개
선어말어미 '-으시-' : 하-시-어→하시애→하새:→하새→하새
어미 '-아:꼬/어:꼬' : 찍-어:꼬→찌거:꼬→지거꼬

이제까지(§5.4.2~§5.4.5) 본 음운과정들은 音節構造制約과 音節連結制約에 따른 것들이 많다. (3)자음군의 자음탈락과 (4)후음축약은 終聲制約에 따른 것이다. 종성으로 자음군이나 후음이 부적격한 데 동기가 있는 것이다. (6)'으'탈락, (7)'아, 어'탈락, (8)동모음축약, (9)'워'축약, (22)w반모음화, (23)y반모음화는 母音連結制約이 동기가 된다.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들이다. (10)'으'동화, (11)'아, 어'전설화도 궁극적으로 (8)이나 (22)를 통해 모음충돌을 피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

로 音節連結制約에 따르는 음운과정이 된다. (16)w탈락1, (17)w탈락2, (19)비어두 y탈락2, (20)어두 y탈락, (21)자음앞 y탈락은 초중성연결의 제약 때문에 반모음을 탈락시켜 音節構造를 改善하고 있다.

이 음운과정들의 대부분은 脫落이고 그밖에 同化와 縮約이 많다. (12)원순모음화1, (13)원순모음화2, (14)전설모음화, (15)움라우트가 동화이다. (11)'아, 어'전설화도 同化의 일종으로 보인다. 前舌性 자질에 의한 동화로 보이므로 움라우트와 비슷한 음운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축약에는 (4)후음축약, (8)동모음축약, (9)'워'축약이 있다.

5.4.6. 어간별 음운과정 목록

각 語幹의 活用에 관여하는 음운과정을 모두 제시하고 예를 보인다. §3.3에서 다룬 음운과정들에는 별표(*)를 붙여 표시한다.

1. 폐쇄음어간

*평폐쇄음화 : 덮-고→덥고→덥꼬

*경음화 : 덮-고→덮꼬→덥꼬

*비음화 : 덮-는→덤는

*조음위치동화 : 받-고→받-꼬→박꼬

*ㄷ탈락 : 받-소→받쏘→바쏘

'는'탈락 : 잡-는다→잡는다→잡다

원순모음화1 : 입-으면→이부면

원순모음화2 : 녹-으면→노구면

움라우트 : 녹-기→녹끼→뇍끼

2. 치찰음어간

*평폐쇄음화 : 빗-고→빋고→빋꼬

*경음화 : 빗-고→빋고→빋꼬

*비음화 : 빗-는→빈는
*조음위치동화 : 빗-고→빗꼬→빋꼬→빅꼬
*ㄷ탈락 : 빗-소→빋소→빋쏘→비쏘
'는'탈락 : 빗-는다→빋는다→빈는다→빈다
원순모음화2 : 붓-으먼→부수먼
전설모음화 : 늦-으먼→느지먼
움라우트 : 붓:-기→붇:기→붇:끼→북:끼→뷐:끼

3. 비음어간
*조음위치동화 : 끈-고→끈꼬→끙꼬
비음뒤 경음화 : 끈-고→끈꼬
'는'탈락 : 끈-는다→끈다
원순모음화1 : 남-으먼→나무먼
움라우트 : 남:-기→남:끼→낭:끼→냉:끼

4. ㅎ어간
*평폐쇄음화 : 낳-는→낟는→난는
*경음화 : 낳-소→낟소→낟쏘→나쏘
*비음화 : 낳-는→낟는→난는
*ㄷ탈락 : 낳-소→낟소→낟쏘→나쏘
후음축약 : 낳-고→나코
'는'탈락 : 낳-는다→낟는다→난는다→난다
어간말 후음탈락 : 낳-아→나아→나:
'으'동화 : 낳-으먼→나으먼→나아먼→나:먼
동모음축약 : 낳-아→나아→나:
보상적 장음화 : 낳-아→나아→나:
w반모음화 : 꽇-아→꼬아→꽈:
'아, 어'전설화 : 짛-어→지어→지에→졔:→제:
y반모음화 : 짛-어→지어→지에→졔:→제:

어두 y탈락 : 짛-어→지어→지에→졔:→제:
움라우트 : 낳-기→나키→내키

5. 자음군어간

*평폐쇄음화 : 싫-소→실ㄷ소→실ㄷ쏘→실쏘
*경음화 : 훑-고→훑꼬→할꼬
*비음화 : 늙-는→늑-는→능는
*유음화 : 훑-는→할는→할른
*조음위치동화 : 붊:-고→붊:꼬→붑:꼬→복:꼬
*ㄷ탈락 : 싫-소→실ㄷ소→실ㄷ쏘→실쏘
자음군의 자음탈락 : 훑-고→훑꼬→할꼬
후음축약 : 싫-고→실코
'는'탈락 : 늙-는다→늑는다→능는다→능다
비음뒤 경음화 : 젊:-다→젊:따→점:따
어간말 후음탈락 : 싫-어→시러
원순모음화1 : 얇-으면→얄부먼
원순모음화2 : 훑-으면→홀투먼
움라우트 : 늙-기→늙끼→늑끼→닉끼

6. '으'어간

'으'탈락 : 뜨-어→떠
원순모음화1 : 프-고→푸고
전설모음화 : 츠-고→치고
움라우트 : 뜨-기→띠기

7. '오'어간

w반모음화 : 보-아→봐:
보상적 장음화 : 보-아→봐:
단음화 : 해:보-아→해:봐:→해:봐→해:바

w탈락1 : 해:보-아→해:봐:→해:봐→해:바
움라우트 : 보-기→뵈기

8. '우'어간
w반모음화 : 두-어→둬:
보상적 장음화 : 두-어→둬:
단음화 : 개우-아→개와:→개와
'워'축약 : 나:두-어→나:둬:→나:둬→나:도
w탈락2 : 가두-아→가돠:→가돠→가다
움라우트 : 두-기→뒤기

9. '아'어간
'아, 어'탈락 : 가-아→가
움라우트 : 가-기→개기

10. '애'어간
'아, 어'전설화 : 개:-아→개:애→개:
동모음축약 : 캐-아→캐애→캐:
보상적 장음화 : 캐-아→캐애→캐:
단음화 : 만내-아→만내애→만내:→만내

11. '외'어간
'아, 어'전설화 : 되-아→되애→돼:
w반모음화 : 되-아→되애→돼:
보상적 장음화 : 되-아→되애→돼:

12. '이'어간
'아, 어'전설화 : 기:-어→기:에→계:→게:
y반모음화 : 기:-어→기:에→계:→게:

어두 y탈락 : 기:-어→기:에→계:→게:
보상적 장음화 : 갈기-어→갈기애→갈개:→갈개:→갈개
단음화 : 갈기-어→갈기애→갈개:→갈개:→갈개
비어두 y탈락1 : 모이-어→모이애→모애:→모애→모애
비어두 y탈락2 : 갈기-어→갈기애→갈개:→갈개:→갈개

13. '뛰'어간
'아, 어'전설화 : 뛰-어→뛰-에→뛔:
w반모음화 : 뛰-어→뛰-에→뛔:
보상적 장음화 : 뛰-어→뛰-에→뛔:

14. ㄹ다형어간
(없음)

15. ㅎ다형어간
*평폐쇄음화 : 놓-는→녿는→논는
*경음화 : 놓-소→녿소→녿쏘→노쏘
*비음화 : 놓-는→녿는→논는
*ㄷ탈락 : 녿-소→녿소→녿쏘→노쏘
후음축약 : 놓-고→노코
'는'탈락 : 놓-는다→녿는다→논는다→논다
w반모음화 : 노-아→놔:
보상적 장음화 : 노-아→놔:
움라우트 : 놓-기→노키→뇌키

16. ㅂ다형어간
*경음화 : 춥-고→춥꼬
*비음화 : 춥-내→춤내
*조음위치동화 : 춥-고→춥꼬→축꼬

w반모음화 : 추우-아→추와:→추와
보상적 장음화 : 추우-아→추와:→추와
단음화 : 추우-아→추와:→추와
움라우트 : 춥-기→춥끼→축끼→췩끼

17. ㄷ다형어간
*경음화 : 듣-고→듣꼬
*비음화 : 듣-는→든는
*조음위치동화 : 듣-고→듣꼬→득꼬
*ㄷ탈락 : 듣-소→듣쏘→드쏘
'는'탈락 : 듣-는다→든는다→든다
'으'탈락 : 드르-어→드러
움라우트 : 듣-기→듣끼→득끼→딕끼

18. 'ㄹ'다형어간
'으'탈락 : 골르-아→골라

19. '아'다형어간
'아, 어'전설화 : 해-아→해애→해:
동모음축약 : 해-아→해애→해:
보상적 장음화 : 해-아→해애→해:
단음화 : 성해-아→성해애→성해:→성해
움라우트 : 하-기→해기

20. '오'다형어간
움라우트 : 오-기→외기

21. '이'다형어간
(없음)

22. 지정사어간
자음앞 y탈락 : (집)-iy-고→(집)이고

5.4.7. 음운과정간의 관계

음운과정을 규칙화한 音韻規則이 도출과정에 적용될 때 그 順序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理論的인 態度에 따라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우리는 抽象性을 制約하기 위해 제안된 Hooper(1976: 18~20)의 無順條件(No Ordering Condition)을 따르기로 한다. 무순조건은 규칙들이 연속적으로(↔동시적으로) 적용되며, 같은 규칙이 여러 번 적용되어도 좋고, 모든 규칙은 구조기술만 맞으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한다는 명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적용되지 못하도록 규칙순을 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분석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규칙순은 규칙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內在的 規則順이다.

두 규칙이 아무런 相互作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규칙이 無關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음화규칙과 조음위치동화규칙은 서로 무관하다. 예를 들어 '옷-만→옴만'과 같은 도출과정에는 비음화규칙도 적용되고 조음위치동화도 적용된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적용이 다른 한쪽의 적용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는다. 어느것이 먼저 적용되어도 좋다.

비음화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 옷-만→옫만→온만→옴만
조음위치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 옷-만→옫만→옵만→옴만

또 w탈락규칙1과 단음화규칙도 서로 무관하다.

w탈락규칙1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 해:보-아→해:봐:→해:바:→해:바
단음화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 해:보-아→해:봐:→해:봐→해:바

두 규칙이 상호작용을 하여 가지는 內在的 規則順은 給與順序이다. A규칙의 적용으로 B규칙의 입력이나 환경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에 A규칙－B규칙의 순서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A규칙이 B규칙을 급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잡-는다→잠다'는 鼻音化規則과 '는'脫落規則이 적용되어 도출된다. 이 두 규칙중 '는'탈락규칙은 '잡-는다'에 적용될 수 없다.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음화규칙은 '잡-는다'에 적용될 수 있다. 비음화규칙이 여기에 적용되면 '잠는다'가 도출된다. '는'탈락규칙은 비로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는 環境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비음화규칙과 '는'탈락규칙은 內在的으로 비음화규칙이 먼저 적용되도록 順序가 정해진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가두-아→가다'는 w半母音化規則과 w脫落規則2(그리고 보상적 장음화규칙과 단음화규칙)가 적용되어 도출된다. '가두-아'에는 w탈락규칙2가 적용될 수 없다. 입력이 될 w가 없기 때문이다. w반모음화규칙은 '가두-아'에 적용될 수 있다. w반모음화규칙이 여기에 적용되면(그리고 보상적 장음화와 단음화가 뒤이어 적용되면) '가돠'가 도출된다. w탈락규칙2는 비로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 규칙의 入力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가돠'는 수의적 w탈락규칙2의 적용으로 '가다'로 도출된다. 따라서 w반모음화규칙과 w탈락규칙2는 그 順序로 적용될 수밖에 없도록 內在的으로 결정되어 있다.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규칙들은 給與順序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無關한 경우도 있다. 급여순서의 예를 모두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음에 관한 규칙이 급여하는 경우
경음화규칙－ㄷ탈락규칙 : 받-소→받쏘→바쏘
경음화규칙－자음군의 자음탈락규칙 : 홅고→홅꼬→할꼬
비음화규칙－'는'탈락규칙 : 잡-는다→잠는다→잠다
조음위치동화규칙－움라우트규칙 : 받-기→박끼→백끼
자음군의 자음탈락규칙－유음화규칙 : 홅-는→할는→할른
어간말 후음탈락규칙－'으'동화규칙 : 낳-으면→나으면→나아면→나:면
어간말 후음탈락규칙－동모음축약규칙 : 낳-아→나아→나:
평폐쇄음화규칙－비음화규칙 : 낳-는→낟는→난는

이 중에서 평폐쇄음화규칙과 비음화규칙의 관계는 평폐쇄음화규칙이 비음화규칙에 대해 入力을 給與하는 경우이다. 평폐쇄음화규칙이 적용됨으로써 ㅎ이 비음화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입력 ㄷ으로 바뀐다. 나머지 관계는 모두 앞의 규칙이 뒤의 규칙에 대해 環境을 給與하는 경우이다.

② 그밖의 경우
'아, 어'전설화규칙－w반모음화규칙 : 되-아→되애→돼:
'으'동화규칙－동모음축약규칙 : 낳-으면→나으면→나아면→나:면
w반모음화규칙－'워'축약규칙 : 나:두-어→나:둬:→나:도
'아, 어'전설화규칙－동모음축약규칙 : 캐-아→캐애→캐:
w반모음화규칙－w탈락규칙1 : 해:보-아→해:봐:→해:바:→해:바
w반모음화규칙－w탈락규칙2 : 가두-아→가돠:→가다:→가다
y반모음화규칙－비어두 y탈락규칙1 : 모이-어→모이애→모얘:→모애:→모애
y반모음화규칙－비어두 y탈락규칙2 : 비비-어→비비애→비뱨:→비배:→비배
y반모음화규칙－어두 y탈락규칙 : 기-어→기에→계:→게:

보상적 장음화규칙－단음화규칙 : 개우-아→개와:→개와

이 중에서 '아, 어'전설화규칙－w반모음화규칙의 경우는 앞의 규칙이 뒤의 규칙에 環境을 給與하는 경우이다. 위에 제시된 예에서 '아, 어'전설화규칙은 '아'를 '애'로 전설화시킴으로써 '외'가 w로 반모음화할 수 있는 환경('애' 앞)을 급여한다. 나머지 관계는 모두 앞의 규칙이 뒤의 규칙에 入力을 給與하는 경우이다.

給與順序를 가지는 경우 외에는 모든 규칙들의 관계가 無關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칙들의 관계는 무관한 관계라 할 수 있다.

6. 발화에서의 음운현상

음운론적 기술과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發話이다.[1] 單語는[2] 발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발화의 最小單位이므로 발화의 음운론적 기술과 설명을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데 유리한 단위이다. 4장과 5장은 그러한 단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음운현상 중 곡용과 활용의 경우만 다루었다. 그러나 발화에는 단어라는 단위만 가지고는 적절한 기술과 설명이 不可能한 음운현상들이 존재하므로 발화 자체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현상들은 주로 운율적(prosodic)인 것들이다. 운율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변별적 자질로보다 표현적(expressive) 자질이나 형상적(configurative) 자질로 쓰이기에 알맞다. 표현적, 형상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발화라는 단위에 걸려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인 기능을 가진다.

6.1. 운율적 음운현상

---

1) '발화'(utterance)는 두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화행위(佛 énonciation)와 발화체(佛 énoncé)가 그것이다. Lyons(1977:26)은 utterance-act와 utterance-signal로 구별하고 있다. 우리는 '발화'를 주로 후자의 뜻으로 사용한다.
2)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이른바 音韻論的 單語를 뜻하는 것이다.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론적 단어로 구별하는 일은 발화음운론 연구(유필재 1994:18~21)나 통사론 연구(박진호 1994:4~9)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1.1. 음조

이 방언의 발화는 音調의 실현이 두드러진다.[3] 저조와 고조의 음폭이 커서 외지인은 경상방언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음조의 차이로 單語가 辨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聲調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음조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豫測할 수 있다. 우선 음조의 예측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겠다.

6.1.1.1. 음조의 실현

아래에 高調를 2, 低調를 1로 적어 발화에 대한 音調表示를 제시한다.

저:른 둠벙물도 질러다 묵고.
2 1 1 2 1 1 1 2 1 1 1
(저런 먼 데 있는 웅덩이물도 길어다 먹고.)

솥애서 불을 때:서 올로온 것도 짐:이고.
2 2 1 1 2 2 1 1 2 1 1 1 2 1 1
(솥에서 불을 때서 올라온 것도 '짐'(김)이고.)

같은 사:람 묵고 사:는 거이라도 다: 틀리재.
1 2 2 1 1 2 2 1 1 1 1 1 2 2 2 1
(다 같이 사람 먹고 사는 것이라도 다르지.)

3) 음조는 pitch의 번역어로서 소리의 높이를 가리킨다. 억양도 실제로는 주로 음조로 실현되나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여기서 다루는 음조와 구별된다. §6.1.1의 음조에 대한 논의는 배주채(1991b)의 논의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서:숙은 오:곡애가 안 들고 지장은 오:곡애가 들었어.
2 1 1 2 1 1 1 1 2 1 1 2 1 2 1 1 1 1 2 1[4)]
(조는 오곡에 안 들고 기장은 오곡에 들었어.)

여기 제시된 발화에서 각 어절을 음조표시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제한된 몇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1 : 안
2 : 다:
1-1 : 묵고, 것도
1-1-1-1 : 거이라도
2-1 : 저:른, 때:서, 사:람, 사:는, 들고
2-1-1 : 짐:이고, 서:숙은
2-1-1-1 : 오:곡애가
2-2-1 : 솥애서, 틀리재
1-2 : 불을, 같은, 묵고
1-2-1 : 질러다, 올로온, 지장은, 들었어
1-2-1-1 : 둠벙물도

이렇게 음조표시된 자료들을 더 다양하게 검토하면 2음절 이상의 어절의 音調型이 音節數別로 세가지씩 추출된다.

2음절 : 2-1, 2-2, 1-2
3음절 : 2-1-1, 2-2-1, 1-2-1
4음절 : 2-1-1-1, 2-2-1-1, 1-2-1-1

4) 이들 발화 끝의 음조인 저조(1)에는 더 낮은 저조(0)가 바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강억양의 실현이므로 음조표시에서 제외한다. §6.1.4(억양)에서 자세히 다룬다.

5음절 : 2-1-1-1-1, 2-2-1-1-1, 1-2-1-1-1
……

위의 자료 중에서 '안(1), 들고(2-1), 묵고(1-1), 것도(1-1), 거이라도(1-1-1-1)'는 여기 제시한 음조형 중에 들지 않는데 이들은 음조형이 걸리는 단위와 관련지어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음조를 決定하는 요소는 音長과 子音種類이다. 우선 어두음절이 長音을 가질 때는 제1음절이 고조, 제2음절이 저조이다(2-1의 음조형).

2-1형
명사, 부사 : 사:람, 송:곳, 영:감, 오:곡, 택:시, 화:리(화로), 뻘:쌔(벌써 오래전에), 한:년(항상)
명사+조사 : 돈:이, 돈:도, 빙:(病)을, 니:가(네가), 새:(鳥)만
용언어간+어미 : 때:서, 사:는, 얻:어, 풀:재, 담:고

어두음절이 短音을 가질 때는 다음과 같이 어두음절의 초성이 어떤 자음인가에 따라 2-2 또는 1-2의 음조형을 가진다.

어두음절의 초성이 { 된소리, 유기음, ㅅ, ㅎ일 때 : 2-2의 음조형
　　　　　　　　　　없거나 그밖의 자음일 때 : 1-2의 음조형

2-2형
명사, 부사 : 껍덕(껍질), 사탕, 쌀밥, 상투, 쪼각(조각), 콩밥, 판자, 활쌀(화살), 실상(사실상), 찰코(차라리), 혹시
명사+조사 : 땅은, 솟(솥)을, 쎄(혀)가, 청(꿀 淸蜜)도, 콩만, 활(弓)로
용언어간+어미 : 깔아, 떠서, 썩어, 찌고, 크개, 풀어, 하고

1-2형

명사, 부사 : 기분, 나무, 눈썹, 머심(머슴), 밑천, 밥통, 보리, 연탄, 인사, 주먹, 기껏, 당아(아직), 바로, 아까, 우선, 전부

명사+조사 : 대(竹)가, 밥도, 배를, 봄에, 집이, 죽(粥)도

용언어간+어미 : 가서, 늦어, 보면, 온나(오너라), 익고, 잡재

세가지 음조형의 실현에는 어절의 형태론적 구조 등 비음운론적인 요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순수히 음운론적인 요소만으로 각 어절의 음조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第3音節부터는 어느 경우에나 모두 低調이다. 셋째 음절 이하의 음절수를 더 늘려도 음조형이 변하지 않는 다음 예를 보면 분명하다.

사:램이,	사:램이나,	사:램이라도,	사:램이라고는
2 1 1	2 1 1 1	2 1 1 1 1	2 1 1 1 1 1
쌀뱁이,	쌀뱁이나,	쌀뱁이라도,	쌀뱁이라고는
2 2 1	2 2 1 1	2 2 1 1 1	2 2 1 1 1 1
머심이,	머심이나,	머심이라도,	머심이라고는
1 2 1	1 2 1 1	1 2 1 1 1	1 2 1 1 1 1

따라서 모든 어절에 대해 음절수를 초월한 다음 세가지 音調型을 설정할 수 있다.[5)]

---

5) 배주채(1991b)에서 언급했듯이 김차균(1969, 1977:§6.2)은 전남 광주방언에서, 임성규(1988)은 전북방언에서 이 방언과 똑같은 세가지 음조형을 확인하였다. 각 음조형이 선택되는 조건도 같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가지 음조형이 전라방언 전체의 특질임을 암시한다. 한편 Jun(1989)는 전남 광주방언에서 LHL0과 HHL0의 두가지 음조형을 설정했다. 어두음장과 관련없이 어두초성의 종류에 따라 음조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노(LH)란(L), 사(HH)람(L), 나(L)물(HL), 밤(LHL, 夜), 살(HL). '노(LH), 물(HL), 밤(LHL), 살(HL)' 등에 표시된 음조는 김차균(1969, 1977), 임성규(1988)이나 필자의 자

2-1-1_0의 음조형 : 2-1, 2-1-1, 2-1-1-1, 2-1-1-1-1, … (2-1형으로 약칭)

2-2-1_0의 음조형 : 2-2, 2-2-1, 2-2-1-1, 2-2-1-1-1, … (2-2형으로 약칭)

1-2-1_0의 음조형 : 1-2, 1 2 1, 1-2-1-1, 1-2-1-1-1, … (1-2형으로 약칭)

단음절 어절도 세가지 음조형 중 하나를 가지게 되어 2-1형이나 2-2형은 2로, 1-2형은 1로 실현된다.

종(1) 멧 개 치디냐? (종 몇 번 치더냐?)
그 칼(2) 어이서(어디서) 났냐?
통:(2) 몰:라.

단음절 어절에 강세가 놓이면 원래의 음조형에 관계없이 고조(2)와 장음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6.1.3 참조).

음조의 실현을 더 精密하게 관찰하면 각 발화를 4단계 음조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2단계 음조표시 아래 4단계 음조표시를 제시한다.

저:른 둠벙물도 질러다 묵고.
2 1 1211 121 11
4 2 1321 121 11

솥애서 불을 때:서 올로온 것도 짐:이고.
221 12 2 1 121 11 2 11
332 12 3 2 132 21 2 11

료를 통해서 볼 때 아주 의심스럽다. 적어도 '물, 밤, 살'의 끝 L은 음조형의 일부가 아니라 억양의 일부이다.

같은 사:람 묵고 사:는 거이라도 다: 틀리재.
1 2 2 1 1 2 2 1 1 1 1 1 2 2 2 1
1 2 3 2 1 2 4 3 2 2 2 1 3 3 3 1

서:숙은 오:곡애가 안 들고 지장은 오:곡애가 들었어.
2 1 1 2 1 1 1 1 2 1 1 2 1 2 1 1 1 1 2 1
4 3 2 3 2 2 1 1 2 1 1 3 2 3 2 2 1 1 2 1

대체로 文頭의 장음을 가진 음절의 고조는 4로, 나머지 고조는 3으로 나타나고 어두의 저조 바로 뒤의 고조는 2로 나타난다. 또 어말의 저조는 1로, 어중의 저조는 2로 나타난다.

2단계 음조표시가 4단계 음조표시로 실현되는 데는 強勢나 抑揚과 같은 요소도 關與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강세를 받은 어절의 음조는 音幅이 유난히 크게 실현된다. 고조가 더욱 높은 음조로 실현된다. 예를 들어 위의 발화에서 '솥애서'에 강세가 놓이지 않을 때는 3-3-2로 실현되지만 강세가 놓이면 4-4-2로 실현된다. '불을'에 강세가 놓이지 않으면 1-2로 실현되지만 강세가 놓일 때는 1-3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문말억양이 음조에 미치는 영향은 §6.1.4에서 간략히 다룬다.

음조가 연결될 때 음조끼리의 영향으로 생기는 순수히 音調的인 현상도 4단계 음조표시의 실현에 관여한다. 그러한 현상으로는 遲延現象과 豫測現象이 있다. 지연현상은 높은 음조에서 낮은 음조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둠벙물도, 서:숙은, 오:곡애가
1 3 2 1 4 3 2 3 2 2 1

여기서 '물, 숙, 곡애' 등은 고조와 저조 사이에 낀 저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음절 고조의 지연으로 말음절 저조보다 더 높게 실현된다. 豫測現

象은 1-2형의 첫음절에 나타난다. 첫음절의 저조가 둘째음절의 고조에 예측동화되어 고조만큼 높게 또는 고조보다 조금 낮게 실현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아래쪽 두 줄의 음조표시가 그 예이다.

둠벙물도, 질러다, 불을
1 3 2 1　1 2 1　1 2
2 3 2 1　2 2 1　2 2
3 3 2 1

6.1.1.2. 음조구

이상과 같은 어절 단위의 音調型으로 說明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다. 위의 자료에서 '안(1), 들고(2-1), 묵고(1-1), 것도(1-1), 거이라도(1-1-1-1)'가 그러한 예이다. 여기서 音調型이 걸리는 單位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음조형은 語節에 걸리는 것으로 가정해 왔는데 실은 그것은 부정확한 것이다. 어절이 이어진 構成에도 하나의 음조형이 걸리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음조형이 걸린 어절 또는 어절연결을 [ ]로 묶어 표시해 보자.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도] [두:가지] [아닝가 말이여].
1 2 1 1　1 1　1 1　1 2　2 1 1　1 2 1　1 1 1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두가지 아닌가 말이야. '집'과 '짚'을 가리킴)

[그러믄] [가심이 대래서] [사:람 죽겄어].
1 2 1　1 2 1　1 1 1　2 1　1 1 1
(그러면 가슴이 거북해서 사람 죽겠어.)

[꼽은 거보고] [꼽다 글재].
22 111 22 11 (꽂는 걸 가리켜 '꽂는다'고 하지.)

[머리 우개 있는 사마구는] [안 파야 써].
12 11 11 1111 1 21 1
(머리털 난 데 있는 사마귀는 빼지 말아야 해.)

[자석을 잘못 두먼은] [에미 애비] [욕을 얻어먹인다].
121 11 111 12 11 12 11111
(자식을 잘못 두면 어미 아비 욕을 먹인다.)

[감재 노로 가자].
12 11 11 (고구마 놓으러 가자.)

이와 같이 하나의 음조형이 걸린 어절 또는 어절연결을 音調句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위의 세가지 음조형은 음조구에 걸린다고 一般化할 수 있다.[6]

발화 안에서 어절 또는 어절연결이 音調句를 形成하는 데는 文法的, 意味的 요소가 관여한다. 문법적 요소가 음조구의 형성에 관여하는 한 예로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과 같은 구성에서 관형사 '이, 그, 저'는 독립된 음조구로 쓰이는 일이 없다. 또 제한적 관계절은 피수식명사와 하나의 음조구를 이루어야 한다. 위의 '머리 우개 있는 사마구는'은 [머리 우개 있는] [사마구는]과 같이 음조구가 형성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통사구조가 음조구의 형성에 관여하는 양상은 統辭論的 硏究와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의미적 요소로는 强調가 음조구의 형

6) 이현복(1974)에서 서울말의 강세가 어절에나 말토막(음조구와 비슷한 단위)에나 같은 방식으로 놓인다고 하고 강세가 실현되는 단위로서 말토막을 세운 것도 본고에서 음조구를 설정한 것과 비슷한 태도이다.

성에 주로 관여한다. 강조받는 말은 강세를 받음과 동시에 音調句의 처음이 된다(강조강세에 대해서는 §6.1.3 참조). 강조받는 말이 앞 어절과 함께 음조구가 되는 일은 없다. 위의 [꼽은 거보고] [꼽다 글재]에서는 '꼽다'가 강조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꼽은 거보고 꼽다 글재]와 같이 음조구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음조구가 반드시 '꼽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7] 음조구의 형성에 대한 문법적, 의미적 요소의 관여에 대해서는 문법론과 의미론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語節이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음조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절이 될 수 있는 단위 중 일부는 독립된 음조구로 나타나지 못한다. 形式名詞는 음운론적인 자립성이 약해 음운론적 단어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8] 이 방언의 형식명사도 독립된 음조구가 되지 못하고 앞에 오는 수식성분과 한 음조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음조구를 [ ]로 감싸는 대신 음조구와 음조구 사이(즉 음조구경계)에 작은 역삼각형(∇)을 표시하기로 한다.)

그날 올 지 앙께 ∇안 오고 ∇그 ∇뒷:날 왔등마.
(그날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 다음날 왔더구먼.)
밥 할 중도 ∇모른 거이 ∇시집을 가? (밥 할 줄도 모르는 것이 시집을 가?)
아조 ∇잘한 철로 ∇생각을 한단 말이요.
(아주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

7) Jun(1989)는 광주방언의 음조형에 대해 실험음성학적인 자료를 이용하면서 음조형이 음조구(그의 술어로는 "phonological phrase(음운론적 구)")를 영역으로 한다는 점과 음조구 형성이 강조와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8) 유필재(1994:21~6)는 형식명사, 보조용언, 부정부사 '못, 안'이 독립된 음운론적인 단어가 되지 못함을 논의하고 있다. 형식명사, 보조용언은 앞 요소와의 사이에, '못, 안'은 뒷 요소와의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이다.

에랬을 직애보톰 ∇그랬어.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
니 ∇없:는 년애 왔다 갔능갑다. (너 없는 동안에 왔다 갔나 보다.)
이 집 ∇진: 제가 ∇한 ∇삼십년 ∇됐:내. (이 집 지은 지가 한 삼십년 됐네.)
근다고 ∇호자 ∇와 불 수가 ∇있가니? (그렇다고 혼자 와 버릴 수가 있겠어?)
꼽은 거보고 ∇꼽다 글재. (꽂는 걸 가리켜 '꽂는다'고 하지.)

위의 예들에서 '지, 중, 거, 철로, 직애, 제, 수'는 형식명사로서 앞에 오는 수식성분과의 사이에 음조구경계가 없다. 그러나 몇몇 형식명사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처럼 獨立된 音調句를 이루는 때가 있다.

잊어 불었을 ∇리:가 ∇없:어. (잊어 버렸을 리가 없어.)
잊어 불었을 ∇텍이 ∇없:어. (잊어 버렸을 턱이 없어.)
지:가 낳았음 ∇뿔로 ∇이 집이서 ∇그걸 ∇줄라 ∇그꺼여?
(제가 낳았더라도 이 집에서 그 아이를 주려고 하겠어?)
아적젤 내 ∇베: 자칠 ∇판이여. (아침나절 내내 베어댈 판이야.)

이때는 형식명사 '리:, 텍, 뿔로, 판' 등이 강조강세를 받기 때문에 음조구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補助用言도 독립된 음조구가 되기 어려울 듯하지만 실제로는 강조강세를 받아 獨立된 音調句를 이루는 예들이 많이 발견된다.

우리까장 ∇다: 묵어 ∇불었소. (우리끼리 다 먹어 버렸소.)
숫댕이불을 ∇이롸 ∇갖고 ∇적쇠애다 ∇꿔:.
(숯불을 일으켜 가지고 석쇠에다 구워.)
뻬따구만 ∇과: ∇지먼 ∇그만 ∇때:고. (뼈다귀만 고아지면 그만 때고.)
한 ∇사:년이나 ∇쉐: ∇졌능갑다. (한 4년이나 쉬어졌나 보다.)

떡 잔 ∇자:새 ∇보씨요. (떡 좀 드셔 보세요.)
애:기가 ∇울어 ∇싼:다고. (아기가 울어 댄다고.)
애:기 잔 ∇세와 ∇바:라. (아이 좀 세워 봐라.)
델으다 ∇줬:응께 ∇또 ∇델로 ∇가. (데려다 줬으니까 또 데리러 가.)

여기서 보조용언 '불었소, 갖고, 지면, 졌능갑다, 보씨요, 싼:다고, 바:라, 줬:응께' 등이 그러한 예이다.

관형사도 뒤에 오는 피수식명사와의 결합이 밀접한 요소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는 관형사 홀로 음조구를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사:년이나 ∇쉐: ∇졌능갑다. (한 4년이나 쉬어졌나 보다.)
요 ∇끄터리를 ∇톡:톡 ∇뿔라. (요 끄트머리를 똑똑 부러뜨려.)
벨 ∇요:한 일을 ∇다: 봤소. (별 괴상한 일을 다 봤소.)
아:무 ∇이:생이 ∇없:드랑마. (아무 이상이 없더라더구만.)
오:만 ∇밭애가 ∇지슴 ∇천지여. (오만 밭에 김(잡초) 천지야.)
먼: ∇씨갓이든지 ∇배:먼 ∇소까 ∇내:야재. (무슨 씨(種)든지 배면 솎아 내야지.)
멋한 ∇갱아지는 ∇잘 ∇짓:도 ∇안해. (어떤 강아지는 잘 짖지도 않아.)
이른 ∇대막가지 같은 걸로 ∇쒀새 ∇여:. (이런 대막대기 같은 걸로 쑤셔 넣어.)

독립된 음조구를 잘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 副詞가 이웃 단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밥 잔 ∇만:썩 ∇묵어라. (밥 좀 많이 먹어라.)
이리 잔 ∇빽:짝 ∇앙소. (이리 좀 바짝 앉소.)
단:장을 다 씨러 붔습디다. ((예상치도 않게) 담장을 쓰러뜨려 버렸습

디다.)

서:숙은 ∇오:곡애가 ∇안 들고 ∇지장은 ∇오:곡애가 ∇들었어.

(조는 오곡에 안 들고 기장은 오곡에 들었어.)

머리 우개 있는 사마구는 ∇안 파야 써.

(머리털 난 데 있는 사마귀는 빼지 말아야 해.)

돌 안애 ∇못: 건 애기는 ∇못: 걺고. (돌 안에 못 걷는 애기는 못 걷고.)

설:애도 ∇집이를 못 내려오개 해. (설에도 집에를 못 내려오게 해.)

'잔~잠'(좀. 요청의 의미 가짐)과 '다:'(다. 예상치 못한 경우임을 가리킴)는 앞에 다른 말이 있으면 항상 그것에 붙어 음조구 처음에 놓이는 것을 피한다. 또 否定副詞 '못'은 항상 뒤에 오는 피수식 서술어와 함께 같은 음조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否定副詞 '안'도 항상 뒤에 오는 피수식 서술어와 함께 같은 음조구를 형성하는데 修辭的인 부정의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

지금도 ∇활 ∇안 ∇쏘운다고?

(지금도 활이란 것을 쏘지 않는가? 수사의문)

그라믄 ∇안 ∇휘:져 불겄소?

(그러면 휘어져 버리지 않겠소? 수사의문)

'하다'形容詞의 '하다'는 단어의 일부인데도 음조구가 될 수 있다.

가늘∇하다, 개운∇하다, 거무시름∇하다, 괜찬∇하다, 깨깟∇하다, 뚱뚱∇하다, 미지근∇하다, 삐쭉∇하다, 쉴찬∇하다, 시컴∇하다, 쌩쌩∇하다, 쎈찬∇하다, 어중간∇하다, 조그막∇하다, 지댄∇하다, 착실∇하다, 척척∇하다, 캄캄∇하다

이들은 특히 語根末音節이 表現的 長音을 가지고 발음될 때 '하다'가

음조구로 잘 나타난다(표현적 장음은 §6.1.2.2 참조). 또 '단음절어근+하다'의 구조를 가진 다음 색채형용사들에서 '하다'가 음조구로 나타날 수 있다.

겸:∇하다 /꺼:∇마다/, 놀:∇하다, 뻙:∇하다 /뻴:∇가다/, 펄:∇하다, 혹:∇하다

'달디달다'와 같이 어근형성접미사 '-디-'가 붙어서 만들어진 反復形容詞도 두 음조구로 발음될 수 있다.

꼬시디∇꼬시다, 달디∇달다, 독하디∇독하다, 만:하디∇만:하다, 쓰디∇쓰다, 야물디∇야물다, 쩗:디∇쩗:다, 좁디∇좁다, 틍겁디∇틍겁다

이상에서 보듯이 音調句가 될 수 있는 최소의 單位는 어절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절은 문법론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흔히 音韻論的 單語라고 부르는 단위가 음조구가 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서 더 적절해 보인다. 음운론적 단어를 순환적이 아닌 방식으로 분명하게 規定하는 일은 음운론적 연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음운론적 단어가 문법적인 단위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타나는 음조구 중 가장 작은 것은 음운론적 단어와 일치하게 되지만 더 큰 것은 음운론적 단어의 연결과 일치하게 된다.[9] 각각의 발화에서 어떤 음운론적 단어의 연결이 음조구가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발화의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조건 등에 달려 있다. 똑같은 형태소들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도 음조구의 실현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9) 음조구는 발화음운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음운론적 구에 대응하는 단위가 된다. 실제로 Jun(1989)는 광주방언에 대한 논의에서 이 방언의 음조구와 같은 것을 음운론적 구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 연구 역시 음운론 밖의 여러 분야의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음조구는 리듬의 單位로 잘 활용된다. 말솜씨가 있는 사람의 발화는 각 음절이 가진 음조가 음조구의 전개에 맞추어 오르락내리락 하며 리듬감 있게 들린다. 리듬감 있게 들리는 발화 몇개를 보인다.

부굴 ∇부굴 ∇쏘리를 ∇해:. (부글부글 소리를 해.)
한 집이서 ∇한나썩 ∇두:개썩 ∇홍진 끝애 ∇다: ∇죽어.
(한 집에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홍역을 앓은 끝에 다 죽어.)
명월 때나 ∇지:새 때나 ∇식구가 ∇만:하믄 인자 ∇거그 ∇재기도 하고 ∇그요.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식구가 많으면 이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삐따구 곻는 것은 인자 ∇어느 ∇정도 ∇때:서 ∇삐따구만 ∇과: ∇지먼 ∇그만 ∇때:고.
(뼈 고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때서 뼈만 고아지면 그만 때고.)
늘: ∇밤나 ∇그저 ∇인∇내깨서 # 젓도 ∇주고 ∇이르큼 ∇세와도 ∇보고 ∇보둠아도 ∇보고 ∇어:차고 # 늘: ∇그래야 한단 말재, # 이 집이는 ∇그거이 ∇아니여, # 일:할라고.
(늘 밤낮 그저 일으켜서 젖도 주고 이렇게 세워도 보고 안아도 보고 어쩌고 늘 그래야 한단 말이지, 이 집은 그게 아니야, 일하려고.)

위의 마지막 예는 휴지(#)를 표기해 본 것이다. 휴지와 휴지 사이의 발화를 氣息群이라 한다. 음조구는 그 크기가 기식군보다 작거나 기식군과 같다. 나아가 기식군은 하나 이상의 音調句의 連鎖로 이해할 수 있다. 음조구가 모여 기식군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음운론적 단어, 음조구, 기식군이 발화음운론적인 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셋 사이의 관계를 바꿔쓰기규칙(rewriting rule)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식군→음조구^n (n≥1)
음조구→음운론적 단어^n (n≥1)

즉 기식군은 하나 이상의 음조구로 구성되고, 다시 음조구는 하나 이상의 음운론적 단어로 구성된다.

6.1.2. 음장

발화의 차원에서 실현되는 長音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변별적 장음(또는 어휘적 장음)이고 또 하나는 표현적 장음이다.

6.1.2.1. 어휘적 장음의 실현조건

§2.5에서 보았듯이 단어내부의 語彙的 長音은 어두에만 나타난다. 중앙어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 어두의 어휘적 장음은 기식군의 첫 음절에서는 그대로 실현되나 기식군의 첫 음절이 아닌 곳에서는 短音化된다고 기술되어 왔다(김완진 1972, 이병근 1986).

그런데 이 방언에서 기식군의 첫 음절이 아닌 곳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는 모두 音調句의 첫머리에 놓여 있다. 앞에서 본 예문들의 기식군의 처음과 끝에 휴지를 표시해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니 ∇없:는 년에 왔다 갔능갑다. #
\# 이 집 ∇진: 제가 # 한 # 삼십년 ∇됐:내. #
\# 잊어 불었을 ∇리:가 ∇없:어. #

삐따구만 ∇과: ∇지면 ∇그만 ∇때:고.
애:기가 ∇울어 ∇싼:다고.
벨 ∇요:한 일을 ∇다: 봤소.
밥 잔 ∇만:썩 ∇묵어라.
돌 안에 ∇못: 건 애기는 ∇못: 걺고.

위의 첫 예의 '니 ∇없:는'에서 '니'와 '없:는' 사이에는 휴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발음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 다만 음조형이 '니'에 따로, '없:는…'에 따로 걸린다는 것이 그 사이에 음조구경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 음조구의 첫 음절 '없:'에 어휘적 장음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같은 발화가 음조구 분계를 달리하여 실현된 다음 예를 보자.

이 집 진 제가 # 한 # 삼십년 ∇됐:내.
잊어 불었을 리가 ∇없:어.
삐따구만 ∇과: 지먼 ∇그만 때고.
애:기가 ∇울어 싼다고.

음조구의 처음에서 장음을 가졌던 음절들 '진:, 리:, 때:, 싼:'이 여기서는 음조구의 처음에 놓이지 않으면서 단음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조구의 처음에 놓이지 않은 단어의 장음은 短音化된다. 따라서 이 방언에서 어두의 語彙的 長音은 音調句의 첫 음절이 아닌 곳에서 短音化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5.2.2.2에서 설정했던 단음화는 발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단음화 : 장음은 음조구의 첫 음절이 아닌 곳에서 단음화한다. (필수적)

6.1.2.2. 표현적 장음

表現的 長音은 표현적 효과를 위해 발화상에 一時的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어의 표현적 장음에 대해서는 이병근(1986)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김창섭(1991)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김창섭(1991)에 따르면 표현적 장음화는 語頭音節의 장음화와 語根末音節의 장음화로 구분된다. 어두음절의 장음화는 정도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에 나타나는데 '정도높임'의 뉘앙스를 더해준다.[10]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는 '하다'형용사(조용:하다)와 그로부터 형성된 파생부사(조용:히), 어근복합에 의한 반복부사(조용:조용)의 선행어근에 나타난다. 그 선행어근이 강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정도높임'의 뉘앙스를 더해주고(길쩍:하다), 완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지시영역넓힘'의 뉘앙스를 더해준다(기름:하다). 어두음절의 장음화와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고(*높:직:하다), 어근 수준에 어휘적 장음이 있을 때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는 나타날 수 없다(*이:상:하다).

이 方言의 표현적 장음도 중앙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먼저 정도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어두음절의 장음화가 나타날 수 있다. ('::'는 변별적 장음에 표현적 장음이 더해진 것을 표기한 것이다. 변별적 장음만 가질 때보다 더 길게 발음되므로 표현적 장음이 얹혔음을 알 수 있다.)

명사 : 쩌::그(저기), 옛::날(옛날), 부::재(富者)
형용사 : 깨:깟하다, 빡:빡하다, 뺏:뺏하다, 뾔:쪽하다, 쌩:쌩하다, 어:차다, 지:댄하다, 질:쭉하다, 크:댄하다, 헤:꼽하다
동사 : 떤:지다, 어:차다

10) 어두음절에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에 대해서는 허웅(1965:111, 1985:121), 이병근(1970:23)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부사 : 기:껏, 늘:짱(늘), 달:랑, 따:뿍(가득, 듬뿍), 만:날, 아:조(아주), 잘:, 질::(제일), 질::로(제일), 짠:뜩(잔뜩), 타:빡(단번에 엎는 모양), 호:빡(흠뻑)

어두음절의 장음화 때문에 생긴 어두의 표현적 장음이 語彙的 長音으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부사들이 있다.

당:당(아직) : '당아'(아직)의 반복부사 '당아당아'에서 온 듯함.
보:로(바로) : 위치상 아주 근접해 있음을 뜻함.
뽀:끔(세게) : 잡아매는 정도의 강함을 뜻함.
뽀:짝(바짝) : 위치상 아주 근접해 감을 뜻함.
뻘:쌔(벌써) : '진작'의 뜻.
좀:해(좀처럼)
한:나(가득)[11]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를 보이는 '하다'形容詞의 예를 몇개 보인다. 이때 장음은 물론 모음에 걸린다. 다른 방언의 경우 종성이 공명자음일 때 그 공명자음이 장음으로 발음되는 일이 있지만 이 방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

가늘:하다, 개운:하다, 거무시름:하다, 깨깟:하다, 날날:하다, 납작:하다, 뚱뚱:하다, 미지근:하다, 삐틀:하다, 서늘:하다, 쉴찬:하다, 시컴:하다, 쌩쌩:하다, 쎈찬:하다, 얍실:하다, 어중간:하다, 응큼:하다, 조그막:하다, 지댄:하다, 질쭉:하다, 짱짱:하다, 착실:하다, 척척:하다, 틉틉:하다[12]

---

11) '껌:하다, 놀:하다, 뻙:하다, 펄:하다, 흑:하다'와 같은 색채형용사들이 가진 어두의 장음도 표현적 장음으로부터의 발달일 가능성이 있다. 중세국어의 '거머ᄒᆞ다, 누러ᄒᆞ다, 벌거ᄒᆞ다, 퍼러ᄒᆞ다, 허여ᄒᆞ다'는 어두음절이 상성이 아닌 거성을 가지고 있었다.
12) §6.1.1에서 본 것처럼 이들에서의 '하다'는 독립된 음조구가 될 수 있다(가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를 보이는 어근복합에 의한 反復副詞의 예를 몇개 보인다.

다문:다문(드문드문), 따박:따박(타박타박), 뚤래:뚤래(두리번두리번), 몰랑:몰랑, 쌔들:쌔들(시들시들), 아장:아장, 오불:오불(우글우글), 조랑:조랑, 지근:지근(지긋이 밟는 모양), 찐득:찐득(끈적끈적)

'하다'형용사의 어근에서 파생된 '이'系 副詞가 어근말음절의 장음화를 보이는 예는 많지 않다.

가만:이(가만히), 날날:이(나란히), 무단:이(무단히), 부지런:이

다른 부사의 제2음절에 장음화가 일어나는 예가 몇개 있다. 위에서 본 어근말음절의 장음화에 유추한 현상인 듯하다.

기양:(그냥),[13] 기연:이(기어이), 기영:꾸(기어코), 노상:, 보로:씨(겨우), 살모:시(살며시), 살째:기(살짝이)

6.1.3. 강세

국어에서 단어 차원의 辨別的 機能을 가진 강세는 없다. 이 방언의 강세도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강세는 주로 발화 속의 특정한 단어를 强調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이러한 강세를 强調强勢라 할 수 있다. (강세를 받은 단어에 밑줄을 친다.)

늘:ᄫ하다, 개운:ᄫ하다, …).

13) '기양: 몰라져 불어'(금세 말라 버려)에서와 같이 '금세'의 뜻으로 쓰일 경우이다.

가무탔단 건 ∇허리여, ∇허리. (가무탔다고 하는 것은 허리야, 허리)
감재는 ∇논다 그라재. (고구마는 '놓는다'고 하지.)
불애다가 ∇대:먼 ∇얼릉 대래, ∇솔까지란 것이.
(불에다가 대면 빨리 타, 관솔이란 것이.)
말이란 건 ∇어:디 ∇판자 우개다 ∇세와 나두고 ∇그러니.
(말(馬)이라는 것은 판자 위에다 세워 놔 두곤 하느니라.)
시리 ∇밋애가 떡이 엥갰다 그래. (시루의 밑에 떡이 붙었다고 해.)

위의 자료를 보면 강세를 받은 단어는 항상 音調句 첫머리에 놓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예에서 '떡이'를 강조할 때는 '떡이'가 독립된 음조구가 된다.

시리 ∇밋애가 ∇떡이 엥갰다 그래.

한 발화 안에서 상대되는 단어끼리 대조함으로써 강세를 두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거:넌애 했능가 ∇저거넌애 했능가 ∇몰겄다.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모르겠다.)
팔십 ∇서:잉가 ∇너:잉가 ∇가남이 ∇없:긍마. (여든 셋인지 넷인지 확신이 없구먼.)
빙:은 ∇한가진디 ∇약은 ∇아홉가지라고. (병은 한가진데 약은 아홉가지라고.)

각 발화에서 어떤 성분에 강조강세가 놓일 수 있는지는 강조에 대한 문법적, 의미적 연구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강조가 강세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單音節 語節에 강세가 놓이면 원래의 음조와 음장에 관계없이 항상

고조와 장음을 가지게 된다.

멋:(2) 주라고? (무엇 달라고?) – 물:(2)!
이건 ▽묵:(2) ▽아니요. (이건 묵이 아니에요.)
꼰:(2), ▽그것도 ▽말꼰 있고 ▽강꼰 있고.
(고누, 그것도 말고누 있고 강(江)고누 있고.)

위의 예에서 강세를 받은 단음절 어절들은 원래 '멋:(2), 물(1), 묵(1), 꼰(2)'과 같은 음조와 음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疑問詞는 항상 강세를 받는다. 다음에서 보듯이 의문사가 들어 있는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의심의문문에서 의문사가 항상 강세를 받는다.14)

누가 있소?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멀: 물어 볼라 그랑가? (설명의문문) (뭘 물어 보려고 그러는가?)
그때가 ▽언:재까? (의심의문문) (그때가 언제일까?)
언쩌닉에 ▽어이서 잤능가? (설명의문문) (엊저녁에 어디서 잤는가?)
글다가 ▽자빠지믄 ▽어찰라고 그나? (수사의문문)
(그러다가 자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들이 의문사가 아니고 不定稱으로 쓰일 때는 강세를 받지 않는다.15)

누든지 ▽물어 바 ▽싸:. (누구든지 물어 봐 대.)

14) 임홍빈(1988:96ff)에 따라 의문사절로 내포된 경우에만 간접의문이라 하고 최상위문으로 쓰인 경우에는 의심의문이라 한다.
15) 중앙어에서도 의문사가 강세를 받고 부정칭이 강세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상방언에서는 의문사와 부정칭의 성조가 다름이 보고되어 왔다 (최명옥 1976b:156, 1980:75~6, 서정목 1987:5장).

묵으꺼이 ∇머:이 ∇앙:끗도 ∇없:다. (먹을 것이 뭐 아무것도 없다.)
언:재 ∇우리집이 ∇와 ∇봤:능값재. (언제 우리집에 와 봤나 보지.)
어이서 ∇만:이 ∇본 얼굴이여.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어차다가 ∇거그를 ∇갔등값어. (어쩌다가 거기를 갔던가 봐.)

위의 첫 예에서 '누든지'는 강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든지'가 지니는 讓步의 意味가 강조를 허용하는 듯하다. "누가 가든지 ∇마찬가지여."와 같은 발화에서도 '누가'에 강조강세가 올 수 있다. 양보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부정칭은 강세를 받는 일이 없다.

'왜:'는 의문사로 쓰일 때도 강세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 윘나? (왜 웃나?)
왜: ∇윘:나? (왜 웃나?)

다른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항상 의문사에 焦點이 놓여 강세가 의문사에 놓이는 데 반해, 의문사 '왜'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아닌 성분에 초점이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잉'(응)은 평서문 끝에 붙어, 또는 단독으로 쓰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 항상 강세를 받는다. 이때 문말억양은 하강억양이다.

대:자(과연) ∇맛나요 ∇잉.

§6.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세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音調句의 形成이 영향을 받는다. 강세를 받는 성분은 반드시 음조구의 처음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 때문이다.

6.1.4. 억양

억양의 주된 機能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態度를 표시하는 것이다.16) 그래서 文體法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억양은 문체법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정밀한 의미를 표현한다. 또 문체법은 종결어미로 표현되므로 서술어와 함께 생략되는 수도 있으나 억양은 省略되지 않는다.

억양은 발화의 어느 부분에든지 나타날 수 있으나 발화의 끝에 나타나는 것이 기능이 뚜렷하다. 발화 끝의 억양(대개 이것을 文末抑揚이라 부르고 있다)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그것들이 문체법에 따른 문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과 호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方言의 기본적인 문말억양의 類型은 두가지이다. 平坦抑揚과 下降抑揚이 그것이다. 발화가 끝났는데도 하강하지 않고 있는 평탄억양은 有標的인 억양이다. 반면에 하강억양은 無標的인 억양이다. 다른 유형의 억양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적고 기술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탄억양과 하강억양만 다룬다.

6.1.4.1. 하강억양

下降抑揚은 중앙어의 하강억양과 똑같이 실현된다.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설명의문문에 나타난다. 중앙어에서 명령문, 청유문의 억양이, 평서문이 가지는 하강억양과 다른 것으로 기술하는 일이 많으나 이 방언의 명령문, 청유문의 억양은 평서문, 설명의문문의 억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명령문이 평서문보다 더 급한 하강억양을 가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명령문도 부드러운 명령을 나타낼 때는 완만한 하강억양을 가지며, 평서문도 단호함의 의미를 가질 때는 급한 하강억양을

---

16) 중앙어의 억양에 대해서는 임홍빈(1993) 참조.

가진다.

하강억양을 가지는 平敍文, 命令文, 請誘文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까장 ∇다: 묵어 ∇불었소. ↘ (평서문) (우리끼리 다 먹어 버렸소.)
오:만 ∇밭애가 ∇지슴 ∇천지여. ↘ (평서문) (오만 밭에 김(잡초) 천지야.)
설:애도 ∇집이를 못 내러오게 해. ↘ (평서문) (설에도 집에를 못 내려오게 해.)
애:기 잔 ∇세와 ∇바:라. ↘ (명령문) (아이 좀 세워 봐라.)
이리 잔 ∇뽀:짝 ∇앙소. ↘ (명령문) (이리 좀 바짝 앉소.)
떡 잔 ∇자:새 ∇보씨요. ↘ (명령문) (떡 좀 드셔 보세요.)
감재 노로 가자. ↘ (청유문) (고구마 놓으러 가자.)
이번애는 ∇가지 ∇맙:시다. ↘ (청유문)

이른바 約束文이나 許諾文, 警戒文 등도 하강억양을 가진다.

나:가 ∇감새. ↘ (약속문) (내가 감세.)
니:가 ∇가럼. ↘ (허락문) (네가 가렴.)
손 벨라. ↘ (경계문)

하강억양은 발화의 마지막 音調句 전체에 걸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마지막 음조구의 첫 고조가 걸린 음절부터 끝음절까지 음조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끝음절에서 완전히 낮아진다. 하강억양의 끝 음조는 발화 중간의 저조보다 더 낮은 음조(0)이다.

설:애도 ∇집이를 못 내러오개 해. ↘
2 1 1 　1 2 1 　1 　1 1 1 1 　1-0(0)

이번애는 ∇가지 ∇맙:시다. ↘
1 2 1 1　1 2　2　1 1-0(0)

멋: 주라고? － 물:! ↘
2-0

위의 앞쪽 두 예에서 발화 끝의 '해'와 '다'는 1-0처럼 저조(1)와 최저조(0)가 이어진 음조로 실현되기도 하고 단순한 최저조(0)로 실현되기도 한다. 위의 마지막 예(물:!)에서 보듯이 발화가 단음절 어절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음절의 원래 음조와 최저조(0)가 이어진 음조로 실현된다.
說明疑問文도 하강억양을 가진다. (밑줄은 강세를 표시한다.)

누가 있소? ↘
멀: 물어 볼라 그랑가? ↘ (뭘 물어 보려고 그러는가?)
언쩌닉애 ∇어이서 잤능가? ↘ (엊저녁에 어디서 잤는가?)
언재까지 갚으랍딩요? ↘ (언제까지 갚으랍디까?)
니 ∇들고 ∇댕이든 거 ∇어채 불었냐? ↘
(너 들고 다니던 것 어떻게 해 버렸냐?)
왜: 웃냐? ↘ (왜 웃냐?)
왜: ∇웃:냐? ↘ (왜 웃냐?)

설명의문문 형태의 修辭疑問文(설명수사의문문)에도 하강억양이 걸린다.

누가 있소? ↘
글다가 ∇자빠지믄 ∇어찰라고 그냐? ↘
(그러다가 자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 ∇잡거이 ∇머: 할라고 거가 앙겠으꺼여? ↘ 방애나 들앙겠재.↘

(그 잡것이 뭣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을 거야? 방에나 들어앉아 있지.)

니:가 ∇누구 욕을 믹일라고 그래 쌓나? ↘

(네가 누구 욕을 먹이려고 자꾸 그러느냐?)

왜: ∇뭣:나? ↘

하강억양은 疑心疑問文에도 나타난다. 의심의문문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화자 자신의 궁금증을 혼잣말처럼 표현한다. 종결어미 '-응가, -응고, -으까'가 의심의문을 나타낸다.17)

그때가 ∇언:재까? ↘ (설명의심의문문) (그때가 언제일까?)

언:재 우리집이 와 밨으까? ↘ (설명의심의문문) (언제 우리집에 와 봤을까?)

이 집이는 ∇차를 ∇누가 곶고 왔능고? ↘ (설명의심의문문)

(이 집은 차를 누가 가지고 왔는고?)

누가 ∇왔능가? ↘ (판정의심의문문) (누가 왔나?)

날이 궂을라 그라까? ↘ (판정의심의문문) (날이 궂으려고 그럴까?)

언:재 ∇우리집이 ∇와 ∇밨:으까? ↘ (판정의심의문문)

(언제 우리집에 와 봤을까?)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심의문문이나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심의문문이 모두 하강억양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인 판정의문문이 평탄억양으로만 실현되는 것과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

---

17) '-응고'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심의문문에만 쓰이고 '-응가'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심의문문에만 쓰인다.

6.1.4.2. 평탄억양

平坦抑揚은 주로 判定疑問文에 나타난다.

오늘 ∇가나? →
아칙애는 ∇어:디 ∇가샜습딩요? → (아침에는 어디 가셨었습니까?)
그걸보고 ∇싸랑부리라 그요? → (그걸 싸랑부리(씀바귀)라고 해요?)
노:인당애 기시다냐? → (노인회관에 계시다?)
나:가 ∇굶어 불재 ∇그걸 돌라 묵겄소? →
(내가 굶어 버리지 그걸 훔쳐 먹겠어요?)
더 묵을래, ∇밥? → (더 먹을래, 밥?)

평탄억양도 발화의 마지막 音調句 전체에 걸린다. 평탄억양의 음조적 實現方式은 두가지다. 첫번째 방식에서는 그 음조구의 첫 고조가 걸린 음절부터 끝음절까지 모두 고조로 실현되고 끝음절은 平坦한 高調의 餘韻을 약간 길게 남긴다. 그 음조구가 단음절 어절일 때는 원래의 음조형이 고조이든 저조이든 상관없이 평탄한 고조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마지막 음조구의 음조적 실현이 달라지는 것은 음조에 대한 억양의 간섭 현상이다.

오늘 ∇가나? →
1 2 　1 2-2

아칙애는 ∇어:디 ∇가샜습딩요? →
1 2 1 1 　2 1 　1 2 2 2 2-2

그걸보고 ∇싸랑부리라 그요? →
1 2 1 1 　2 2 2 2 2 　2 2-2

노:인당에 기시디나? →
2 2 2 2 2 2 2 2-2

나:가 ∇굶어 불재 ∇그걸 돌라 묵겠소? →
2 1 1 2 1 1 1 2 2 2 2 2 2-2

더 묵을래, ∇밥? →
1 2 1 1 2-2

위의 예에서 발화의 끝음절의 음조 2-2는 그 음절에 실현된 고조(2)에 평탄한 고조의 여운이 남음을 표시해본 것이다.

두번째 방식은 첫번째 방식과 모두 같으나 그 음조구의 끝음절이 저조(1)로 실현되고(끝음절에 앞서는 음절들에서부터 음조의 하강이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다), 平坦한 低調의 餘韻이 남는다. 이 여운이 없이 최저조(0)로 하강하는 下降抑揚과는 다르다. 끝음절이 그 음조구의 첫 고조를 가진 음절일 때는(아래의 세번째 예) 그 고조와 저조와 여운이 거기에 연달아 나타나거나(2-1-1) 저조와 여운만 나타난다(1-1). 그 음조구가 저조를 가진 단음절 어절일 때는(아래의 마지막 예) 평탄한 여운을 가진 低調로 실현된다(1-1).

그걸보고 ∇싸랑부리라 그요? →
1 2 1 1 2 2 2 2 2 2 2-1(1-1)

노:인당에 기시디나? →
2 2 2 2 2 2 2 2-1(1-1)

오늘 ∇가나? →
1 2 1 2-1-1(1-1)

더 묵을래, ▽밥? →
1 2 1 1 1-1

첫번째 방식의 평탄억양과 두번째 방식의 평탄억양은 語感의 차이를 가진다. 첫번째 방식이 더 분명한 의문을 표시하는 듯하다.

평탄억양은 反響疑問文에도 나타난다. 판정반향의문문이나 설명반향의문문이나 모두 평탄억양을 가진다. 일반적인 설명의문문이 하강억양으로만 실현되는 것과 다른 특이한 현상이다.[18)]

오늘 간다고? → (판정반향의문문)
누가 간다고? → (설명반향의문문)
누가 ▽간다고? → (판정반향의문문)

疑心疑問文은 평탄억양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설명의심의문문이나 판정의심의문문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의심의문문은 下降抑揚과 平坦抑揚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다. 두가지가 語感의 차이를 가지는 듯하다.

그때가 ▽언:재까? →
언:재 우리집이 와 밨으까? →
이 집이는 ▽차를 ▽누가 끗고 왔능고? →
누가 ▽왔능가? →
날이 궂을라 그라까? →
언:재 ▽우리집이 ▽와 ▽밨:으까? →

18) 임홍빈(1988:109~10)은 중앙어에서 의문사를 가진 설명반향의문문이 상승억양을 가지는 것을 반향의문문의 의문사가 인용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의문(반향의문이 아닌 의문)이 명제에 대한 의문인 데 반해 반향의문은 상대의 발화나 인식이나 생각에 대한 의문이므로 반향의문문의 의문사가 그 정확한 의미에서 의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판정의문문 형태의 修辭疑問文(판정수사의문문)에도 평탄억양이 걸린다.

우리가 ∇돈:이 ∇있소? →
그 ∇쬐:깐한 거이 ∇호자 ∇그걸 ∇잡어 ∇내:꺼여? →
(그 조그만 애가 혼자 그걸 잡을 수 있겠어?)
그 ∇잡거이 ∇빙:할라고 거가 앙겄으꺼여? → 방애나 들앙겄재? →
(그 잡것이 병 하려고(괜히) 거기에 앉아 있을 거야? 방에나 들어앉아 있지.)
지금도 ∇활 ∇안 ∇쏘운다고? → (지금도 활 쏘지 않는가?)
그라믄 ∇안 ∇휘:져 불겄소? → (그러면 휘어져 버리지 않겠소?)

판정수사의문문은 下降抑揚을 가질 수도 있다. 하강억양으로 발화되는 것이 더 단정적인 語感을 준다.

우리가 ∇돈:이 ∇있소? ↘
그 ∇쬐:깐한 거이 ∇호자 ∇그걸 ∇잡어 ∇내:꺼여? ↘
그 ∇잡거이 ∇빙:할라고 거가 앙겄으꺼여.↘ 방애나 들앙겄재.↘
지금도 ∇활 ∇안 ∇쏘운다고? ↘
그라믄 ∇안 ∇휘:져 불겄소? ↘

그러므로 하강억양으로 발화되는 판정수사의문문은 억양의 면에서 平敍文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첫 예문은 하강억양으로 발화되면 억양으로나 의미로나 '우리가 돈이 있다'는 뜻의 평서문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발화상황에서 話用論的으로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평탄억양은 화자의 의심을 나타내 의심의문문처럼 쓰이는 평서문에도 나타난다.

저 ∇할매가 ∇오늘은 ∇이:상하다? →

또 발화 끝에 '잉'(응)을 붙여 청자에게 자기 말이 전달된 것을 다시 確認하는 평서문에도 평탄억양이 나타난다. 분명히 화자가 자기의 의사를 청자에게 전했음을 표시한다.

그라믄 ∇고실고실하고 ∇참: ∇좋:소 잉. →
(그렇게 하면 고슬고슬하고 참 좋소, 응.)
열시 차 ∇말:고 ∇열한시 차 잉. →

긍정의 대답으로 쓰이는 '잉'은 상대방의 말이 자기에게 잘 전달되었음을 아울러 표시하기 위해 대개 평탄억양으로 발화한다. 아래의 을의 대답 '잉'이 그렇다.

갑 : 열시 차 ∇말:고 ∇열한시 차 잉. →
을 : 잉. →

갑 : 해 넘어가기 ∇전애 온나. ↘ (해 넘어가기 전에 오너라.)
을 : 잉. →

한편 '잉'(응)은 평서문 끝에 붙어, 또는 단독으로 쓰여 청자의 同意를 구하는 의미를 전달할 때 항상 강세를 받으며 하강억양으로 실현된다 (§6.1.3 참조).

음조, 음장, 강세, 억양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방언에서 音調句는 음조의 실현 단위일 뿐 아니라 다른 운율적 요소들(음장, 강세, 억양)의 실현과도 밀접하게 關聯된 단위이다. 강조강세에 의해 크기가 정해지는 단위이며 어휘적 장음과 문말억양의 실현 단위이기도 하다.

이 방언에서 音調句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은 音調가 다른 방언에 비해 큰 음폭으로 실현되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방언의 운율적 요소들을 기능별로 본다면 어휘적 장음은 변별적 기능을, 표현적 장음과 강세는 표현적 기능을, 음조와 억양은 형상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2. 음소적 음운현상

發話 次元에서 논의해야 할 音素的 音韻現象은 그리 많지 않다. 음소적 음운현상은 대부분 單語 次元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단어경계를 건너는 경우만 문제가 된다.[19]

單語境界를 건너서 일어나는 음소적 음운과정에는 단어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것과 단어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원래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단어경계를 건너서도 음운론적 조건이 맞으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연음, 자음동화, ㄱ, ㄷ, ㅂ 뒤의 필수적 ㅎ 탈락은 單語內部에서도 일어나고 單語境界를 건너서도 일어난다. 단어경계를 건너서 일어나는 예를 보자. (밑줄 부분 참조)

욕을 얻어믹인다. /요그러더미긴다/ (연음)
그것 한나 ∇못:하냐? /그거단나∇모:다냐/ (ㅎ탈락, 연음)
밥 한 그럭 /바방그럭/ (ㅎ탈락, 연음) (밥 한 그릇)
이:약 한 자리 /이:야간자리/ (ㅎ탈락, 연음) (이야기 하나)
장작 모와라. /장장모와라/ (비음화) (장작 모아라.)

---

19) 유필재(1994:63~79)는 음운론적 구 안에서 단어경계를 건너 적용되는 경음화, ㄴ첨가, 유음화의 예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밤새드럭 놀아도 /밤새드렁노라도/ (비음화) (밤새도록 놀아도)
고무줄을 널애서 /고무주를리래서/ (유음화) (고무줄을 늘여서)

위의 첫 예에서 '욕을'과 '얻어믹인다' 사이에 단어경계가 있으나 연음이 일어나고 있다. 사이에 休止가 없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ㅎ탈락,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현상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들은 音調句境界를 건너서도 이 음운과정들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그 칼 ∇어이서 났냐? /그카∇러이서난냐/ (연음)
사:마구도 ∇똑 ∇안 같어. /사:마구도∇또∇강가터/ (연음)
지금도 ∇활 ∇안 ∇쏘운다고? /지금도∇화∇란∇쏘운다고/ (연음)
머리가 ∇흑: ∇안 하고 ∇검어. /머리가∇흐:∇가나고∇거머/ (연음)
(머리가 하얗지 않고 검어.)
그대로 ∇딱 ∇놔: ∇두고 /그대로∇땅∇놔:∇두고/ (비음화)
전:하를 ∇혹 ∇나:가 받어도 /저:나를∇홍∇나:가바더도/ (비음화)
(전화를 혹시 내가 받아도)
한 삼십 ∇나:무 ∇됐:으꺼. /한삼심∇나:무∇돼:쓰꺼/ (비음화)
(한 서른남은 살쯤 됐을 거야.)
성:절을 ∇늦과라. /성:저를∇르꽈라/ (유음화) (성미를 누그러뜨려라.)
삐따구만 ∇과: ∇지먼. /삐따구망∇과:∇지먼/ (조음위치동화) (뼈만 고아지면)
옷∇궤:가 ∇있어. /옥∇궤:가∇이써/ (조음위치동화) (옷'궤'란 것이 있어.)

연음,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동화의 발생은 休止만이 막을 수 있다. 분절음이 연결된 곳이면 단어경계가 개재하든 음조구경계가 개재하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ㅎ脫落은 음조구경계를 건너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얼:마나 ∇깨깟∇하꺼이라고? (얼마나 깨끗하기나 하겠어?)
/얼:마나∇깨깓∇하꺼이라고/~/얼:마나∇깨까∇다꺼이라고/
한나썩 ∇두:개썩 ∇홍진 끝애 (하나씩 둘씩 홍역을 앓은 끝에)
/한나썩∇두:개썩∇홍징끄태/~/한나썩∇두:개써∇공징끄태/

ㅎ탈락은 음조구경계를 사이에 두는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단어경계를 건너서 비로소 일어나는 음운과정에는 우선 ㄴ添加가 있다. 이 역시 音調句境界와 관련 없이 일어난다.

집 인다. /짐닌다/ (ㄴ첨가, 비음화)
안 여물고 ∇몰라져 불어. /안녀물고∇몰라저부러/ (ㄴ첨가)
(안 여물고 말라 버려.)
조:운 ∇이:약 한 자리 하께. /조:운∇니:야간자리하께/ (ㄴ첨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할게.)
이른 ∇야섯이재. /이른∇냐서시재/ (ㄴ첨가) (일흔여섯이지.)
숫댕이불을 ∇이롸 ∇갖고 /수땡이부를∇리롸∇가꼬/ (ㄴ첨가, 유음화)
(숯불을 일으켜 가지고)

위의 첫 두 예는 단어경계를 건너서, 나중 세 예는 음조구경계를 건너서 ㄴ첨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을'冠形形 뒤 硬音化도 단어경계를 건너서 일어난다. 다만 이 경음화는 음조구경계를 건너는 경우에 수의성이 있다.

밥 할 중도 ∇모른 거이 /바발쭝도∇모릉거이/ (경음화)
(밥할 줄도 모르는 것이)
죽을 빙 /주글삥/ (경음화) (죽을 병)
퐅: 댁이 ∇이 댁이요? /퐅:때기∇이대기요/ (경음화) (팥 닭이 이 닭이요?)

인자는 ∇그른 일을 ∇할 ∇사:램이 ∇없:어. /인자는∇그른니를∇할∇싸:래미∇업:써/ (경음화, ㄴ첨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
호:박 싱굴 ∇구덕애다가 /호:박씽굴꾸더개다가/ (경음화, 수의적) (호박 심을 구덩이에다가)

그러나 어떤 음소적 음운과정도 休止를 건너 일어나는 것은 없다. 분절음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음운현상이란 음운현상이 아니기 쉽다. 分節音의 統合的인 連結이 음운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7. 결론

국어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는 각 地域方言의 자료에 대한 研究를 綜合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동안 각 지역방언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여러 方言圈에 대해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음운론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전남방언, 특히 그 한 하위방언권을 대표하는 高興方言의 자료를 音韻論的으로 고찰하였다. 이 방언의 순수한 모습을 간직한 노년층의 말을 조사하여 자료로 삼았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音素體系는 국어가 가질 수 있는 最大의 目錄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음 19개, 모음 10개, 반모음 2개). 특히 母音 중에서 '에'와 '애'의 구별이 남아있고 '위, 외'가 단순모음 [ü, ö]로만 실현된다. 다만 '에'와 '애'의 구별은 비어두에서 가능하지 않아 두 음소가 합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시적으로 비어두에서 '에'와 '애'가 中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二重母音도 단순모음과 평행하게 골고루 나타난다(예, 얘, 여, 야, 유, 요, 웨, 왜, 워, 와). 音長이 있는 다른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음과 단음의 구별은 어두에서만 가능하고 비어두에 장음이 나타나지 못한다.

音素配列의 방식을 音節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음절구조제약과 음절연결제약의 내용이 다른 방언들의 傾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절구조제약으로 초성제약, 중성제약, 종성제약, 초중성연결제약이 각각 설정될 수 있는데, 특히 양순음이나 파찰음과 '으'의 연결, 초성과 이중모음의 연결이 부분적으로 제약된다(초중성연결제약). 음절연결제약은 모

음충돌이나 자음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작용하는데 이에 따라 여러가지 자동적인 음운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들 음운과정도 대체로 다른 방언의 것들과 차이가 없다.

曲用에서의 음운현상은 명사와 조사의 음운구조와 그 연결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파악된다. 單形助詞는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자음충돌에 따른 음운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多形助詞는 주로 명사말음의 종류(자음과 모음)에 따라 두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음충돌이나 모음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名詞末子音의 체계는 통시적인 변화에 따라 단순화되어 있다. 명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 움라우트, y첨가와 같은 수의적인 음운과정이 일어난다.

活用에서의 음운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어미를 음운구조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單形語尾에는 子音語尾가 있는데 자음충돌에 따른 음운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多形語尾에는 모음어미와 매개모음어미가 있다. 母音語尾는 두가지 형태 '-아X/어X'를 기저형으로 가지고 있어 주로 어간말음절의 모음에 따라 선택된다. 媒介母音語尾는 '-으X'와 '-X'의 두가지 기저형을 가지는데 어간말음의 종류에 따라 자음충돌이나 모음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차이는 音韻過程 자체의 차이에서도 생기지만 어간과 어미가 가지는 基底形이 다른 데서도 생긴다. 單形語幹에는 子音어간에 폐쇄음(ㄱ, ㄲ, ㄷ, ㅌ, ㅂ, ㅍ)어간, 치찰음(ㅅ, ㅆ, ㅈ)어간, 비음(ㄴ, ㅁ)어간, ㅎ어간, 자음군(ㄺ, ㄻ, ㄼ, ㄾ, ㅀ, ㄶ, ㅂㅆ, ㄵ, ㅇㄲ, ㅇㄱ, ㅇㅈ)어간이 있다. 母音어간에 '이, 애, 위, 외, 으, 아, 우, 오'어간이 있다. '어, 에'어간은 없다. 多形語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ㄹ다형어간	ㅎ다형어간
ㅂ다형어간	ㄷ다형어간

'르'다형어간 'ㅏ'다형어간
'오'다형어간 'ㅣ'다형어간
지정사어간

活用에 나타나는 音韻過程에는 3장에서 본 것들 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자음에 관한 것
(1) '는'탈락
(2) 어간말 후음탈락
(3) 자음군의 자음탈락
(4) 후음축약
(5) 비음뒤 경음화

2. 모음에 관한 것
(6) '으'탈락
(7) '아, 어'탈락
(8) '으'동화
(9) '아, 어'전설화
(10) 동모음축약
(11) '워'축약
(12) 원순모음화1
(13) 원순모음화2
(14) 전설모음화
(15) 움라우트

3. 반모음에 관한 것
(16) w반모음화
(17) y반모음화
(18) w탈락1
(19) w탈락2
(20) 비어두 y탈락1
(21) 비어두 y탈락2
(22) 어두 y탈락
(23) 자음앞 y탈락

4. 음장에 관한 것
(24) 보상적 장음화
(25) 단음화

이들 음운과정을 규칙화한 音韻規則은 내재적 규칙순에 따라 적용된다. 규칙들은 서로 無關하거나 給與順序로 적용된다. 다른 규칙순은 상정할 필요가 없다.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基底形이 둘 이상인 형태소를 다수 설정하였다. 명사, 조사, 용언어간, 어미가 모두 얼마간의 다중기저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音韻過程의 자연성과 보편성을 지키고, 수적으로 많은 형태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소수의 例外를 무시하는 분석을 피하려는 具體音韻論的 태도에서 연유한 결과다

단어를 단위로 해서 적절한 기술과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은 發話 次元에서 다룰 수 있다. 韻律的 現象들이 특히 그렇다. 音調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세가지 音調型으로 실현된다. 어두음절이 장음이면 2-1형, 어두음절이 단음일 때 어두초성이 된소리, 유기음, ㅅ, ㅎ이면 2-2형, 어두초성이 없거나 그밖의 자음이면 1-2형으로 실현된다. 음조형이 걸리는 단위는 音調句이다. 음조구는 음운론적 단어나 그 연결이다. 각각의 발화에서 단어의 연결이 음조구로 실현되는 데는 文法的, 意味的 요소들이 작용한다. 의미적 요소 중 강조가 주로 관여하는데 강조강세를 받는 단어는 반드시 음조구의 처음이 된다.

語彙的 長音은 음조구의 처음이 아닌 곳에서 단음화된다. 감정 표현을 위한 表現的 長音이 어두음절이나 어근말음절에 나타날 수 있다. 발화에서 강조할 단어에 强勢가 놓인다. 의문사는 항상 강세를 받는다. 강세가 놓인 단어는 항상 음조구의 처음에 놓인다.

文末抑揚에는 하강억양과 평탄억양이 있다. 平坦抑揚은 중앙어의 상승억양에 해당하는데 평탄한 고조로 발음하는 방식과 발화 끝에서 평탄한 저조로 발음하는 방식이 있다. 주로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에 나타난다. 下降抑揚은 발화 끝에서 최저조(0)로 낮아지는 점에서 평탄억양과 구별된다. 문말억양은 하강억양이나 평탄억양이나 발화의 마지막 음조구 전체에 걸린다.

발화음운론적 단위로는 音韻論的 單語, 音調句, 氣息群이 설정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음운론적 단어가 음조구를 형성하고 하나 이상의 음

조구가 기식군을 형성한다.

단어내부에서 일어나는 音素的 音韻現象 중 자동적인 것들은 단어경계나 음조구경계를 건너서도 일어난다. 단어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발화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음소적 음운현상으로 ㄴ첨가과 '-을'관형형 뒤 경음화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발화 차원에서 비로소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휴지를 건너 일어나는 음소적 음운현상은 없다.

우리는 通時音韻論을 다루지 않았다. 이 방언의 음운론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고찰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참고한 이 방언의 音韻論的 再構, 장년층과 젊은 세대에서 일어난 통시적 變化에 대한 硏究 등을 통해서 이 방언의 음운론적 성격이 전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창석(1982), 「현대국어의 형태소분석과 음운현상」, 『국어연구』(서울대) 50.

______(1985),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______(1991), 「15세기의 음운이론에 대하여 : 음절의 삼분법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_(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 차자표기 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

곽충구(1991), 「함경북도 육진방언의 음운론」, 박사학위논문(서울대). 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기세관(1986), 「나로도 방언의 어휘 자료」, 『남도문화연구』(순천대) 2.

______(1993), 「내적 재구에 의한 전남방언사 연구」, 『남도문화연구』(순천대) 4.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서울대) 13.

______(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 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서울대) 11.

______(1973),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7, 탑출판사.

김주원(1984), 「통시적 변화의 한 양상 : 경상도 방언 "겉다" 구문의 경우」, 『언어학』 7.

김주필(1990), 「국어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과 음운 현상」, 『강신항교수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김차균(1969), 「전남 방언의 성조」, 『한글』 144.

______(1977),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박사학위논문(서울대). 1980, 과학사.

______(1988), 「성조이론의 비판적 고찰」, 『애산학보』 6.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1992), 「전북방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 : 4. 단어형성」, 『어학』(전북대) 19.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출판부.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서울대) 123.

박창원(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 고성지역어의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국어학』 16.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서울대) 91.

_____(1991a), 「고흥방언 '아'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1991b), 「고흥방언의 음장과 음조」, 『국어학』 21.

_____(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서울대) 17.

_____(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 11.

백두현(1990), 「영남 문헌어의 통시적 음운 연구」, 박사학위논문(경북대). 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_____(1990), 「방언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송철의(1991),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송하균(1991), 「고흥지역어의 이중모음연구」, 석사학위논문(서강대).

송하진(1985), 「전남 고흥지역의 고유 지명어 고찰」, 『국어국문학논문 요지집』(동국대).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7. 1978, 탑출판사.

유재원(1989), 「현대 국어의 된소리와 거센소리에 대한 연구」, 『한글』 204.

유필재(1994), 「발화의 음운론적 분석에 대한 연구 :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서울대) 125.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이기갑(1987), 「전남방언의 토씨체계」, 『장태진박사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______(1991a), 「이 봉원 노인의 벌교말」, 『그때는 고롷고롬 돼 있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2 : 벌교 농부 이 봉원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______(1991b), 「함 동정월 부인의 강진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거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5 : 가야금 명인 함 동정월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______(1992), 「전남방언 연구사」, 『남북한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이돈주(1978), 『전남 방언』(어문총서 206), 형설출판사.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 『논문집』(서울대 교양과정부) 1.
______(1970), 「Phonological & Morphophonological Studies in a Kyonggi Subdialect」, 『국어연구』(서울대) 20.
______(1973), 「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______(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이병근(1979)에 재수록.
______(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______(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______(1986),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______(1991), 「한 상숙 노인의 서울말」,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 서울 토박이 부인 한 상숙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이병선(1967), 「비모음화현상고 : 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7·38.
이봉원 구술(1991), 『그때는 고롷고롬 돼 있제』(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2 : 벌교 농부 이 봉원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이승재(1980a),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서울대) 45.
______(1980b), 「남부방언의 형식명사 '갑'의 문법 : 구례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______(1984), 「전북·경기·충북방언의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이승재(1986), 「해방이후의 방언연구사」, 『국어생활』 5.
_____(1987), 「전북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8.
_____(1990), 「방언 음운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_____(1991),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이해」, 『언어』 16.
_____(1992), 「융합형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10.
_____(1993), 「모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1.
이익섭(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3.
_____(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출판부.
이혁화(1994), 「금릉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119.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서울대) 10:2.
이희승(1931), 「'ㄹㄹ'바침의 무망을 논함」, 『조선어문학회보』 2. 이희승(1947) 『조선어학논고』(을유문화사)에 재수록.
임성규(1988), 「전북 방언의 음조와 강세」, 『국어국문학』 100.
임홍빈(1988), 「'무슨'과 '어떤'-의문에 대하여 : 의문의 통사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말』(연세대) 13.
_____(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전광현(1976), 「남원지역어의 어말-U형 어휘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소고 : 이중모음의 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국어학』 4.
정연찬(1974), 『경상도방언 성조연구』, 형설출판사. 1978, 탑출판사.
_____(1991), 「현대국어 이중모음 체계를 생각하여 본다」,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채정례 구술(1991), 『"에이 짠한 사람!" 내가 나보고 그라요』(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20 : 진도 단골 채 정례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32.
_____(1976a),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_____(1976b), 「현대국어의 의문법연구 : 서남경남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 · 사회과학) 15.
_____(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7.
_____(1980), 『경북동해안방언연구 : 영덕군 영해면을 중심으로』, 영남대출판부.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______(1988),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ə-, ɛ(jə)-, h-변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서울대) 24:1.
______(1990a), 「방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_(1990b), 「김 점호 부인의 안동말」, 『베도 숱한 베 짜고 밭도 숱한 밭 매고』(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 : 안동포 "길쌈 아낙" 김 점호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______(1990c), 「성 춘식 부인의 봉화말」,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8 : 영남 반가 며느리 성 춘식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______(1991), 「문 장원 노인의 부산 동래말」, 『동래 사람은 팔만 올리도 춤이 덴다 캤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7 : 동래 한량 문 장원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최소심 구술(1990), 『시방은 안해, 강강술래럴 안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 : 진도 강강술래 앞소리꾼 최 소심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최임식(1992), 「비모음화의 제약성」, 『계명어문학』 7.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 전주지역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최학근(1962), 『전라남도방언연구』(한국연구총서 17), 한국연구원.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1971(수정 5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6:3 : 전남 고흥군편』(김승찬 조사), 고려원.
______(1991), 『한국방언자료집 6 : 전라남도편』.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울산대) 4.
허 웅(1954), 「경상도방언의 성조」,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______(1965), 『국어음운학(개고신판)』, 정음사.
______(1968),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간'」, 『이숭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______(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東京 : 岩波書店.

Abercrombie, D.(1967), *Elements of General Phonetics*, Edinburgh Univ. Press.

Anderson, S.(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Catford, J.C.(1977), *Fundamental Problems in Phonetics*, Edinburgh Univ. Press.

Clark, J. & C. Yallop(1990),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and Phonolog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Jun, Sun-Ah(1989), The Accentual Pattern and Prosody of the Chonnam Dialect of Korean, in Kuno, S.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Harvard University.

Hooper, J.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Martinet, A.(1960), *Elément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Armand Colin.

부록1 : 조사 목록

1. 조사의 종류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문말조사 넷으로 나누어 따로 나열한다.
2. 물결표(~)는 자유변이를 나타내고 빗금(/)은 조건변이를 나타낸다. 이들에 대해서는 §4.1 참조.
3. 조사가 가지는 대표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표시하거나 해당되는 표준어 어형을 제시하여 풀이한다.

1. 격조사

이/가	[주격] 이/가
을/를~ㄹ	[대격] 을/를/ㄹ
으로/로	[부사격 : 도구] 으로/로
같이	[부사격 : 비교] 같이
마나	[부사격 : 비교] 만하게
보도~보돔~보동	[부사격 : 비교] 보다
맹이로~맹기로~맹키로	[부사격 : 비교] 처럼
더러	[부사격 : 처소] 더러
보고	[부사격 : 처소] 보고
애/이	[부사격 : 처소] 에
애가/이가	[부사격 : 처소] 에
애다/이다	[부사격 : 처소] 에다
애다가/이다가	[부사격 : 처소] 에다
애서/이서	[부사격 : 처소] 에서
한태	[부사격 : 처소] 한테
한트로	[부사격 : 처소] 한테로
아/야	[호격] 아/야

2. 보조사

마도~마동	[균등]	마다
썩	[균등]	씩
만	[단독]	만
뿐	[단독]	뿐
까장	[도급]	까지
도	[동일]	도
이나마나/나마나	[불만]	이나마/나마
이나따나/나따나	[불만]	이나마/나마
이나/나1	[선택]	이나/나
보토~보톰~보통	[시작]	부터
이라도/라도	[양보]	이라도/라도
이나/나2	[정도]	이나/나
할라	[첨가]	까지
할차	[첨가]	까지
조차	[첨가]	조차
이야/야~이사/사	[특별]	이야/야
은/는~ㄴ	[한정]	은/는~ㄴ

3. 접속조사

이랑/랑	[접속]	이랑/랑
하고	[접속]	하고

4. 문말조사

고	[인용]	고

부록2 : 어미 목록

1. 어미의 종류를 우선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고 어말어미를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나누어 따로 열거한다. '-드-'는 분석하되 분포가 아주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결합한 어미연결형도 표제항으로 넣는다. '-느-'는 분석하지 않는다.
2. 매개모음어미는 '으X'형을, 모음어미는 '아X'형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선어말어미 '-으시/시-'는 '-으시-'로만 표시한다. 어미에 붙이는 붙임표(-)는 모두 생략한다. 교체형 사이에 쓴 기호 중 '/~'의 의미는 §5.1.3 참조.
3. 어미의 기능이나 뜻을 간략히 제시하거나 해당되는 표준어 어형을 제시하여 풀이한다.

1. 선어말어미

겄	겠
드	더
았	았
으시	으시
으꺼~으꺼이	을 것이다
응갑	은가/나 보다

2. 전성어미

기	[명사형] 기
든	[관형형] 던
은	[관형형] 은

은~는	[관형형]	는
을	[관형형]	을

3. 연결어미

간디~가니	관대
개	게
고	고
그뎡	거든
근~그나	거나
기래	길래
느니~니	느니
니라~니라고	느라고
다~다가	다가
대끼	듯이
드니	더니
드라도	더라도
드럭	도록
든~든지	든지
든디	던데
든지	던지
등가1	든지
등가2	던가
등마~등마는	더니만
자	자
재만~재마는	지마는
아	아
아다	아다
아다가	아다가
아도	아도
아서	아서

아야~아사	아야
으까	[간접의문] 을까
으까미~으깨미~으까니	을까 봐
으꼬	[간접의문] 을꼬
으나	[선택] 으나
으나따나	으나마나
으나마나	으나마나
으니	으니
으로	으러
으먼	으면
은디/~는디	은데/는데
은지/~는지	은지/는지
을라	으랴
을라~을라고	으려고
을라말라	을락말락
을란지그나	으련마는
을막정	을망정
을씨럭	을수록
을쩐정	을지언정
을찌라도	을지라도
음사	으면야
음시로~음시롬~음시롱	으면서
응가/~능가	[간접의문] 은가/나
응가니/~능가니	은가/나 봐
응고/~능고	[간접의문] 은고/는고
응깨	으니까
응마/~긍마 ~응마는/~긍마는	건만

4. 종결어미

종결어미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경어법 : 해라체, 하소체(표준어의 하게체, 하오체에 해당), 하씨요체(표준어의 합쇼체, 해요체에 해당), 해체
▷ 서법 : 직설법, 회상법(평서법, 의문법만 있음)
직설법은 표시하지 않고 회상법만 '회상'이라고 표시한다.
▷ 문체법 : 평서법(감탄, 원칙, 약속, 허락, 경계 포함),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1) 해라체

은다~는다/다/라	[평서법]	는다/ㄴ다/다/라
드라	[회상/평서법]	더라
냐	[의문법]	냐
드냐~디냐	[회상/의문법]	더냐
아라~그라/니라~ㄴ나	[명령법]	아라/거라
자	[청유법]	자
으럼	[평서법 허락]	으렴
으마	[평서법 약속]	으마
을라~을래	[평서법 경계]	을라
아라	[평서법 감탄]	아라
니라	[평서법 원칙]	느니라

(2) 하소체

내	[평서법]	네
대	[회상/평서법]	데
웅가/~능가	[의문법]	은가/나
등가	[회상/의문법]	던가
소	[명령법]	으오
새	[청유법]	세
음새	[평서법 약속]	음세
으시	[평서법]	일세
으시	[명령법]	으이

(3) 하씨요체

으요~소	[평서법]	
읍디다~습디다	[회상/평서법]	읍디다/습디다
으요~소	[의문법]	
딩요	[회상/의문법]	
읍딩요~습딩요	[회상/의문법]	
으씨요	[명령법]	으세요
읍시다	[청유법]	읍시다
읍니꺄~습니꺄	[의문법]	
읍디꺄~습디꺄	[회상/의문법]	

(4) 해체

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아
딩이	[회상/의문법]	디
으깨	[평서법 약속]	을게
으까	[의문법]	을까
을래	[의문법]	을래
재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지
응구나~능구나/구나	[평서법 감탄]	는구나/구나
니	[평서법 원칙]	
드라고	[명령법]	

(5) 비종결어미에서 온 종결어미 : 해체에 해당

은디/~는디	는데
음시로~음시롬~음시롱	으면서
응깨	으니까
응마/~긍마	건만
응마는/~긍마는	건마는
그덩	거든
니라고	느라고

으까	[의심의문]
으꼬	[의심의문]
응가/~능가	[의심의문]
응고/~능고	[의심의문]

부록3 : 용언어간 목록

1. 다형어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ㅎ다형어간 : !ㅎ
ㅂ다형어간 : !ㅂ
ㄷ다형어간 : !ㄷ
'르'다형어간 : !르
'아'다형어간 : !아
'오'다형어간 : !오
'이'다형어간 : !이

ㄹ다형어간의 표제항은 ㄹ로 끝난 형태를 가지고 표기하고 다형어간의 표시(!ㄹ)를 생략한다. 지정사어간 '이-1'도 다형어간의 표시를 생략한다. 또 어간 '하다'와 '하다'가 표기에 드러난 '하다'합성어간은 '아'다형어간이지만 '!아' 표시를 생략한다. 음장의 교체가 있는 어간은 표제항 뒤에 '*'를 붙인다.

2. '~'는 자유변이형을 표시한다. '→'는 자유변이형 중 기준이 되는 어간을 참조하라는 뜻이다.
3. 품사는 형용사, 동사, 보조형용사, 보조동사로만 구분한다. 품사가 다른 것은 표제어도 달리 잡는다.
4. 피동사, 사동사는 그 용법이 특수화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의미 설명을 대신하여 표시한다.
5. 대응하는 표준어나 용례, 한자 등을 이용하여 뜻을 대강 밝힌다.

가늘하다	[형]	가늘다.
가다1	[동]	가다.
가다2	[보동]	가다.
가두다	[동]	가두다.
가무타다	[동]	허리를 삐다.
가물다	[동]	가물다.
가쁘다	[형]	숨이 가쁘다.
가시다1	[동]	통증이 가시다.
가시다2	[동]	애타다. 애태우다. '성이 가시다, 성을 가시다'로 쓰임.
가지다1	[형]	입맛이 까다롭다. '입이 가지다'와 같이 쓰임.
가지다2	[동]	가지다.
가직다	[형]	가직하다.
가직하다	[형]	가직하다.
가찹다 !ㅂ	[형]	가깝다.
가추다	[동]	갖추다.
가프다	[동]	→갚다.
간지럽다 !ㅂ	[형]	간지럽다.
갇히다	[동]	'가두다'의 피동.
갈기다	[동]	주먹으로 갈기다.
갈다*1	[동]	칼을 갈다.
갈다*2	[동]	갈다 替.
갈다*3	[동]	밭을 갈다.
갈르다	[동]	반으로 가르다.
갈리다	[동]	헤어지다.
갈치다1	[동]	가리키다. ~갤치다1.
갈치다2	[동]	가르치다. ~갤치다2.
긁다	[동]	긁다.
감다*1	[동]	눈을 감다.
감다*2	[동]	실을 감다.
감:사하다	[형]	고맙다.
감:치다	[동]	바늘로 감치다.
감프다	[형]	사람, 사물, 일 등이 다루기 힘들다.
같다	[형]	같다.
같잖하다	[형]	같잖다.

갚다	[동]	갚다. ~가프다.
개:다1	[동]	날이 개다.
개:다2	[동]	가루를 물에 개다.
개루다	[동]	→개리다3.
개리다1	[동]	빛을 가리다 支拂.
개리다2	[동]	음식을 가리다 擇.
개리다3	[동]	햇빛을 가리다 遮 ~개루다.
개볍다 !ㅂ	[형]	가볍다.
개우다	[동]	이불을 개다.
개운하다	[형]	개운하다.
갤치다1	[동]	→갈치다1.
갤치다2	[동]	→갈치다2.
갬기다1	[동]	'감다1'의 피동사.
갬기다2	[동]	'감다2'의 피동사.
거:다르다	[동]	거들다.
거뜨다	[동]	힘껏 치워내다.
거무시름하다	[형]	거무스름하다.
거:치다	[동]	거치다 經由.
거칠다	[형]	거칠다.
건:내다	[동]	건너다.
건들다	[동]	건드리다.
건지다	[동]	건지다.
걷다1	[동]	소매를 걷다.
걷다2	[동]	거두다.
걸거치다	[동]	걸리적거리다.
걸다*1	[형]	땅이 걸다 肥.
걸다*2	[동]	옷을 걸다.
걸르다	[동]	거르다 濾過.
걸:치다	[동]	걸치다.
겷다*	[동]	길을 걷다. ~겷다*.
겷다*	[동]	→겷다*.
겸다*	[형]	겸다.
겁나다	[형]	놀랄 만큼 크거나 많다.
게우다	[동]	게우다.

고르다1 !르	[동]	땅바닥을 고르다.
고르다2 !르	[형]	크기가 고르다.
고:맙다 !ㅂ	[형]	고맙다.
고약하다	[형]	고약하다.
고치다	[동]	고치다.
고프다	[동]	고프다.
골다*	[동]	코를 골다.
골:리다	[동]	놀리다.
골므다	[동]	곪다.
곱다	[형]	손이 곱다 無感覺
곱:다 !ㅂ	[형]	마음씨가 곱다.
곻다	[동]	뼈를 고다.
과:다	[동]	물이 고이다.
과:하다	[동]	과하다 過.
괘씸하다	[형]	괘씸하다.
괜찬하다	[형]	괜찮다.
괴:다1	[동]	엄살 피우며 조르다.
괴:다2	[동]	술이 괴다 醱酵.
괴롭다 !ㅂ	[형]	괴롭다.
괴이다	[동]	등이 배기다.
괴피다	[동]	물이 고이다.
구시다	[동]	굳다.
굴다*	[동]	곯다 減少.
굵:다	[형]	굵다.
굶다*	[동]	굶다.
궁굴다	[동]	뒹굴다, 구르다.
궁굴치다	[동]	굴리다.
궂다	[형]	궂다.
권:하다	[동]	권하다 勸.
귀찬하다	[형]	귀찮다.
귀:하다1	[동]	구하다 求.
귀:하다2	[형]	귀하다 貴.
굶기다	[동]	'굶다*'의 사동.
그라다1 !아	[형]	그렇다. ~글다1.

그라다2 !아	[동]	그리하다. ~글다2.
근지럽다 !ㅂ	[형]	가렵다.
근치다	[동]	그치다.
글다1	[형]	→그라다1.
글다2	[동]	→그라다2.
긁다	[동]	긁다.
긁히다	[동]	'긁다'의 피동
급하다	[형]	급하다 急
기:다1	[형]	그것이다.
기:다2	[동]	땅을 기다.
기리다1	[동]	그림을 그리다.
기리다2	[동]	코를 골다.
기:시다	[동]	계시다.
까:다1	[동]	껍질을 까다.
까:다2	[동]	감하다 減
까:불다	[동]	아이가 까불다.
까불르다	[동]	키를 까부르다.
깍지다	[형]	가파르다.
깔다*	[동]	방석을 깔다.
깔리다	[동]	'깔다*'의 피동
깔앉다	[동]	→깔앙ㄱ다.
깔앙ㄱ다	[동]	가라앉다. ~깔앉다 ~깔앙ㅈ다.
깔앙ㅈ다	[동]	→깔앙ㄱ다
감다*	[동]	머리를 감다.
깝깝하다	[형]	답답하다.
깝치다	[동]	재촉하다.
깡:깡하다	[형]	단단하다.
깡끄다	[동]	→깡ㄲ다.
깡ㄲ다	[동]	깎다. ~깡끄다.
깨깟하다	[형]	깨끗하다.
깨:다1	[동]	잠이 깨다.
깨:다2	[동]	유리를 깨다.
깨우다	[동]	'깨:다1'의 사동.
깽기다	[동]	'깜다*'의 사동.

꺵끼다	[동]	'깡ㄲ다'의 피동.
꺼치다	[동]	꺼뜨리다.
꺼치럽다 !ㅂ	[형]	피부에 닿는 느낌이 껄끄럽다.
껌:하다	[형]	꺼멓다.
께울하다	[형]	게으르다.
꼬:다	[동]	→꽣다.
꼬불치다	[동]	구부리다.
꼬시다1	[형]	고소하다.
꼬시다2	[동]	꾀다 誘.
꼬실르다	[동]	그슬리다.
꼼백이다	[동]	가만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다.
꼽꼽하다1	[형]	꼽꼽하다 濕.
꼽꼽하다2	[형]	꼼꼼하다 詳.
꼽다1	[동]	손가락을 꼽다 曲.
꼽다2	[동]	비녀를 꽂다.
꽁치다	[동]	다리를 삐다.
꽣다	[동]	새끼를 꼬다. ~꼬:다.
꾀이다	[동]	'꽣다'의 피동.
꼽히다	[동]	'꼽다2'의 피동.
꾸:다1	[동]	고기를 굽다.
꾸:다2	[동]	꿈을 꾸다.
꿀다*1	[동]	무릎을 꿇다.
꿀다*2	[동]	발을 구르다.
꿀리다	[동]	'꿀다*1'의 사동.
꿔:매다	[동]	꿰매다.
뀌:다1	[동]	꿰다.
뀌:다2	[동]	방귀를 뀌다.
뀌미다	[동]	꾸미다.
끄다	[동]	끄다.
끄르다 !르	[동]	묶인 것을 끄르다.
끄직다	[동]	끌다 引. ~끄집다.
끄직기다	[동]	'끄직다'의 피동.
끄집다	[동]	→끄직다.
끈다	[동]	끊다.

끌다*	[동]	→끓다*.
끓다*	[동]	끓다. ~끌다*.
끕끕하다	[형]	꿉꿉하다 濕
끼리다	[동]	잠긴 것을 끄르다.
낋이다	[동]	'끓다'의 사동.
나꾸다	[동]	낚다.
나누다	[동]	나누다.
나다1	[동]	나다 出.
나다2 ·	[동]	일정한 기간을 나다 經過
나다3	[보동]	나다.
나댕기다	[동]	나다니다.
나:두다	[동]	놔두다.
나무래다	[동]	나무라다.
나찹다 !ㅂ	[형]	낮다.
날날하다	[형]	나란하다.
날다*1	[동]	새가 날다. ~날르다.
날다*2	[동]	베를 날다.
날래다	[형]	날래다.
날르다	[동]	→날다*1.
남다*	[동]	남다.
낫다*1	[형]	낫다 勝.
낫다*2	[동]	병이 낫다.
낫우다	[동]	치료하다.
낭창낭창하다	[형]	낭창낭창하다.
낳다	[동]	낳다.
내:다1	[동]	내다.
내:다2	[보동]	내다 能力.
내:다보다	[동]	내다보다.
내래찌다	[동]	떨어지다.
내러가다	[동]	내려가다.
내러오다	[동]	내려오다.
내루다	[동]	→내리다2.
내리다1	[동]	사람이 차에서 내리다.
내리다2	[동]	선반에서 짐을 내리다. ~내루다.

내:불다	[동]	내버리다.
내:주다	[동]	돈을 거슬러주다.
낼치다	[동]	떨어뜨리다.
냄구다	[동]	'남다*'의 사동.
냅:두다	[동]	내버려두다.
냉이다	[동]	'낳다'의 사동.
너끌다	[동]	덩굴지다.
너르다 !르	[형]	너르다.
널널하다	[형]	널찍하다.
널다*	[동]	빨래를 널다.
넘다*	[동]	넘다.
넘어가다	[동]	넘어가다.
넹기다	[동]	'넘다*'의 사동.
노프다	[형]	→높다.
녹다	[동]	녹다.
놀다*	[동]	놀다.
놀:래다	[동]	놀라다.
놀:하다	[형]	노랗다.
놓다1 !ㅎ	[동]	놓다.
놓다2 !ㅎ	[보동]	놓다.
뇍이다	[동]	'녹다'의 사동.
뇧이다	[동]	'놓다1'의 피동.
누다	[동]	오줌을 누다.
누르다1	[형]	누렇다.
누르다2	[동]	눋다.
누르다3 !르	[동]	누르다 壓.
눠:다	[동]	눕히다.
눠비다	[동]	이불을 누비다.
늘다*	[동]	늘다.
늙다	[동]	늙다.
늦구다	[동]	늦추다.
늦다	[형]	늦다.
니리다	[형]	느리다.
닐이다	[동]	늘이다, 늘리다.

다물다	[동]	입을 다물다.
다시다	[동]	입을 다시다.
다지다	[동]	땅을 다지다.
다치다1	[동]	다리를 다치다.
다치다2	[동]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건드리다.
닥치다	[동]	닥치다.
단나다	[동]	달아나다.
달개다	[동]	달래다. ~달기다.
달기다	[동]	→달개다.
달다	[형]	맛이 달다.
달다*	[동]	단추를 달다.
달라들다	[동]	달려들다.
달리다1	[동]	'달다*'의 피동.
달리다2	[동]	접수시키다, 등록하다.
달비다	[동]	달리다 走.
달어매다	[동]	달아매다.
닭다*	[동]	닭다.
닭아지다	[동]	닭다.
담다*	[동]	담다.
당구다	[동]	담그다.
당그다	[동]	당기다.
당당글다	[동]	불평하다.
닿다	[동]	닿다.
대:다	[동]	손을 대다.
대:들다	[동]	대들다.
대래보다	[동]	만져보다.
대루다	[동]	→대리다1.
대리다1	[동]	다리미로 다리다. ~대루다.
대리다2	[동]	달이다.
대리다3	[동]	장작 따위가 불이 붙어 타다.
대리다4	[동]	쓰거나 떫은 것을 먹어 뱃속이 보깨다.
댇기다	[동]	문을 닫다.
댐기다	[동]	'담다*'의 피동.
댕기다1	[동]	다니다. ~댕이다.

댕기다2	[동]	불을 댕기다.
댕이다	[동]	→댕기다.
더듬다	[동]	더듬다.
더듭다 !ㅂ	[형]	솜씨가 서툴러서 더디다.
더:럽다 !ㅂ	[형]	더럽다.
더트다	[동]	물건을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다.
덖다	[동]	고기를 덖다.
덜다*	[동]	덜다.
덤브다	[동]	덤비다.
덮다	[동]	덮다.
델다	[동]	데리다.
델다보다	[동]	→덜애다보다.
도:지다	[동]	병이 도지다.
독하다	[형]	독하다.
돋구다	[동]	입맛을 돋구다.
돋우다	[동]	땅을 돋우다.
돌다*	[동]	돌다.
돌르다	[동]	훔치다.
돌리다	[동]	'돌다*'의 사동.
돌아가시다	[동]	돌아가시다.
돓다	[동]	삼의 줄기 끝을 톺다.
되다1	[동]	되다 化.
되다2	[보동]	되다.
되:다1	[형]	되다 硬.
되:다2	[형]	힘에 벅차다.
되:다3	[동]	되다 升.
되집다	[동]	뒤집다.
뒹키다	[동]	동이다.
두다1	[동]	두다.
두다2	[보동]	두다.
두러누다	[동]	드러눕다.
둔:하다	[형]	몸이 둔하다.
둘러쓰다	[동]	보자기를 둘러쓰다.
둘르다	[동]	두르다.

뒤끼다	[동]	뒤집다.
뒤:다	[동]	바둑을 두다.
뒤배끼다	[동]	뒤바뀌다.
뒤지다	[동]	발목을 삐다.
뒤:지다	[동]	뒈지다.
드물다	[형]	드물다.
듣다 !ㄷ	[동]	귀로 듣다.
듣키다	[동]	'듣다'의 피동. ~딛키다.
들다1	[동]	감기가 들다.
들다2	[동]	손을 들다.
들다3	[동]	칼이 잘 들다.
들리다1	[동]	사레가 들리다.
들리다2	[동]	들르다.
들리다3	[동]	'들다2'의 피동.
들맥이다	[동]	들먹이다.
들썩이다	[동]	들썩이다. ~뜰썩이다.
들앉다	[동]	→들앙ㄱ다.
들앙ㄱ다	[동]	들어앉다. ~들앉다 ~들앙ㅈ다.
들앙ㅈ다	[동]	→들앙ㄱ다
들어가다	[동]	들어가다.
들어보다	[동]	주워듣다.
들어오다	[동]	들어오다. ~들오다.
들앵기다	[동]	들어엉기다.
들오다	[동]	→들어오다.
들치다	[동]	이불을 들치다.
들키다	[동]	들키다. ~딜키다.
디:다	[동]	데우다.
디루다	[동]	곡식을 고르기 위해 바람에 드리우다.
디이다	[동]	불에 데다.
딘내불다	[동]	내버리다.
딛다*	[동]	발을 딛다.
딛키다	[동]	→듣키다.
딜기다	[동]	조그만 덩어리를 떨어뜨리다.
딜애다보다	[동]	들여다보다. ~델다보다.

딜이다1	[동]	물을 들이다.
딜이다2	[동]	창고에 들이다.
딜키다	[동]	→들키다.
따끄다	[동]	→딲다.
따:다	[동]	감을 따다.
따닥글다	[동]	수다떨다.
따둑글다	[동]	다독거리다.
따듬다	[동]	다듬다.
따라지다	[동]	빗방울이 떨어지다.
따르다1	[동]	형을 따르다.
따르다2	[동]	술을 따르다.
따시다	[형]	따스하다.
따지다	[동]	따지다.
딱하다	[형]	딱하다.
딲다	[동]	닦다. ~따끄다.
딸리다	[동]	달리다 不足.
딸리다	[동]	딸리다.
딸쌕이다	[동]	입을 딸싹이다.
땋다	[동]	머리를 땋다.
때:다	[동]	불을 때다.
때리다	[동]	때리다.
때울르다	[동]	때우다.
땎이다	[동]	'딲다'의 피동.
땡기다	[동]	피부가 땅기다.
떠들다1	[동]	아이들이 떠들다.
떠들다2	[동]	덮인 것을 떠들다. ~떠들르다.
떠들르다	[동]	→떠들다2.
떠들씨다	[동]	덮인 것을 떠들치다.
떠:럽다 !ㅂ	[형]	떫다.
떤지다	[동]	던지다.
떨다*1	[동]	덜덜 떨다.
떨다*2	[동]	먼지를 떨다.
떨리다	[동]	몸이 떨리다.
떨어지다	[동]	떨어지다.

떨추다1	[동]	→떨치다1.
떨추다2	[동]	→떨치다2.
떨치다1	[동]	떨어뜨리다. ~떨추다1.
떨치다2	[동]	해어지게 하다. ~떨추다2.
떨쿠다	[동]	놓치다.
떱다* !ㅂ	[형]	덥다.
똑:갈다	[형]	똑같다.
뚜겁다 !ㅂ	[형]	두껍다.
뚜둘다	[동]	두드리다.
뚤:럼하다	[동]	영문 몰라하다.
뚱뚱하다	[형]	뚱뚱하다.
뛰:다1	[동]	깡충 뛰다.
뛰:다2	[동]	침이 튀다.
뛰:다3	[동]	띠를 띠다.
뛰리다	[동]	뚫다.
뜨다1	[동]	물에 뜨다.
뜨다2	[동]	거름이 뜨다.
뜨다3	[동]	사이가 뜨다.
뜨다4	[동]	자리를 뜨다.
뜨다5	[동]	물을 뜨다.
뜨다6	[동]	뜸을 뜨다.
뜨다7	[동]	눈을 뜨다.
뜨다8	[동]	털실로 뜨다.
뜯다	[동]	뜯다.
뜰썩이다	[동]	→들썩이다.
띄우다1	[동]	'뜨다1'의 사동.
띄우다2	[동]	'뜨다2'의 사동.
띄우다3	[동]	'뜨다3'의 사동.
띠:다	[동]	떼다.
띠이다	[동]	떼이다.
띧기다1	[동]	'뜯다'의 피동.
띧기다2	[동]	'뜯다'의 사동.
마:다하다	[동]	마다하다.
마뜨다	[동]	일을 맡다.

마시다	[동]	마시다.
마치다1	[동]	마치다 痛.
마치다2	[동]	끝마치다.
마트다	[동]	냄새를 맡다.
막다	[동]	막다.
만내다	[동]	만나다.
만:하다	[형]	많다.
말다*	[동]	말다 勿.
말:해이다	[동]	방해되다.
맛나다	[형]	맛나다.
맛있다	[형]	맛있다.
망하다1	[동]	망하다.
망하다2	[동]	망치다.
맞다1	[형]	답이 맞다.
맞다2	[동]	비를 맞다.
맞히다1	[동]	점장이가 용하다.
맞히다2	[동]	'맞다1'의 사동.
맞히다3	[동]	'맞다2'의 사동.
매:다1	[동]	끈을 매다.
매:다2	[동]	밭을 매다.
매럽다 !ㅂ	[형]	마렵다.
매물다	[형]	논밭이 걸지 않다.
매이다1	[동]	'매:다1'의 피동.
매이다2	[동]	…에 달리다, 좌우되다.
맥히다	[동]	'막다'의 피동.
맨들다	[동]	→맹글다.
맵다 !ㅂ	[형]	맵다.
맹글다	[동]	만들다. ~맨들다.
맹기다	[형]	(명사)+같다 似 ~맹이다.
맹이다	[형]	→맹기다.
맽기다	[동]	'마뜨다'의 사동.
머금다	[동]	머금다.
먹다	[동]	귀가 먹다.
멍청하다	[형]	멍청하다.

메수다	[동]	구멍을 메우다.
메우다	[동]	통을 메우다.
메이다	[동]	구멍이 메다.
모르다* !르	[동]	모르다.
모:시다	[동]	모시다.
모:지다	[형]	모지다 方.
모:질하다	[형]	모자라다.
모우다	[동]	장작 따위를 모아 불을 때다.
모이다	[동]	모이다.
모투다	[동]	모으다.
몰다*1	[동]	몰다.
몰다*2	[동]	둘둘 말다.
몰다*3	[동]	밥을 말다.
몰류다	[동]	→몰리다.
몰르다	[동]	빨래가 마르다.
몰리다	[동]	'몰르다'의 사동. ~몰류다.
묽다	[형]	맑다.
못:하다1	[형]	못하다 劣.
못:하다2	[동]	못하다 不能
몽글다	[형]	몽글다.
몽치다	[동]	몽치다 凝
무겁다 !ㅂ	[형]	무겁다.
무르다1 !르	[형]	반죽이 무르다.
무르다2 !르	[동]	뒤로 무르다.
무섭다 !ㅂ	[형]	무섭다.
무치다	[동]	나물을 무치다.
묵다1	[동]	해가 묵다.
묵다2	[동]	밥을 먹다.
묵후다	[동]	'묵다1'의 사동.
문대다	[동]	문지르다. ~문때다 ~문태다.
문때다	[동]	→문대다.
문태다	[동]	→문대다.
묻다1	[동]	때가 묻다.
묻다2	[동]	땅에 묻다.

묻히다1	[동]	'묻다1'의 사동.
묻히다2	[동]	'묻다2'의 피동.
물다*1	[동]	깨물다.
물다*2	[동]	물다 辨償.
뭃다*	[동]	길을 묻다. ~뭃다*.
뭃다*	[동]	→뭃다*
뭉개다	[동]	뭉개다.
뭉끄다	[동]	묶다.
미끄럽다 !ㅂ	[형]	미끄럽다.
미:다	[동]	어깨에 메다.
미련하다	[형]	미련하다.
미리다	[동]	밀다.
미쓸다	[동]	밀치다.
미안하다	[형]	미안하다.
미치다	[동]	정신이 미치다.
믹이다	[동]	'묵다2'의 사동.
믹히다	[동]	'묵다2'의 피동.
믿다	[동]	믿다.
밉다 !ㅂ	[형]	밉다.
바꾸다	[동]	바꾸다.
바:라지다	[동]	벌어지다.
바래다	[동]	바라다.
바:래다	[동]	색이 바래다.
바르다 !르	[형]	선이 바르다.
바쁘다	[형]	바쁘다.
바수다	[동]	바수다 碎.
바추다	[동]	→바치다2.
바치다1	[동]	바치다 獻
바치다2	[동]	밭치다 濾過 ~바추다.
박다	[동]	박다.
받다1	[동]	받다 受.
받다2	[동]	뿔로 받다.
받다3	[동]	이바지를 하다.
받치다	[동]	받치다 支撑.

받히다	[동]	'받다2'의 피동.
발:씨다	[동]	'바:라지다'의 사동. ~발:치다.
발:치다	[동]	→발:씨다.
방갑다 !ㅂ	[형]	반갑다.
방:사하다	[형]	비슷하다 倣似
방정맞다	[형]	방정맞다.
배기다	[동]	배기다 忍.
배끼다	[동]	'바꾸다'의 피동.
배:다1	[형]	배다 密.
배:다2	[동]	아이를 배다.
배:다3	[동]	물이 배다.
배우다	[동]	배우다.
배트다	[동]	뱉다. ~패트다.
백이다	[동]	굳은살이 박이다.
백히다	[동]	'박다'의 피동.
버:러지다	[동]	벌어지다.
버무르다 !르	[동]	버무리다.
번:치다	[동]	번지다.
벌:다	[동]	돈을 벌다.
벌:리다1	[동]	입을 벌리다.
벌:리다2	[동]	벌이다.
벗다	[동]	벗다.
베끼다	[동]	베끼다.
베리다	[동]	눈을 버리다.
벨르다	[동]	벼리다.
벳기다	[동]	'벗다'의 사동.
보꾸다	[동]	볶다.
보다1	[동]	보다.
보다2	[보동]	보다.
보대끼다	[동]	부대끼다, 보깨다.
보둠다	[동]	부둥켜안다.
보드랍다 !ㅂ	[형]	보드랍다.
보딩끼다	[동]	'보둠다'의 피동.
보르다 !르	[동]	물감을 바르다.

보시다	[형]	눈이 부시다.
보태다	[동]	보태다.
보트다	[동]	밭다 乾.
볼가내다	[동]	볼가내다.
볼가지다	[동]	볼가지다.
볽다	[형]	밝다.
볿다*	[동]	밟다.
부끄럽다 !ㅂ	[형]	부끄럽다.
부루다	[동]	짐을 부리다.
부르다1 !르	[형]	배가 부르다.
부르다2 !르	[동]	이름을 부르다.
부족하다	[형]	부족하다.
부지런하다	[형]	부지런하다.
부치다1	[동]	힘이 부치다.
부치다2	[동]	편지를 부치다.
부치다3	[동]	빈대떡을 부치다.
부치다4	[동]	부채를 부치다.
부프다	[형]	어느 장소에 모인 사람이 많다.
부:하다	[형]	부옇다.
불다	[보동]	버리다.
불다*1	[동]	바람이 불다.
불다*2	[동]	물이 붇다 增.
불다*3	[동]	콩이 물에 붇다 增.
불다*4	[동]	입으로 불다.
불다*5	[동]	꾀를 부리다.
불법다 !ㅂ	[형]	부럽다.
불쌍하다	[형]	불쌍하다.
불우다	[동]	'불다*3'의 사동.
불키다	[동]	부르트다.
붓다*1	[동]	물을 붓다.
붓다*2	[동]	팔이 붓다.
붙다	[동]	붙다.
붙들다	[동]	붙들다.
붙이다	[동]	'붙다'의 사동.

비:끼다	[동]	비키다.
비:다1	[동]	비다 空.
비:다2	[동]	베개를 베다.
비:다3	[동]	칼로 베다.
비비다	[동]	비비다.
비우다	[동]	'비:다1'의 사동.
비치다	[동]	비치다. 비추다.
비:틀다	[동]	비틀다. ~삐:틀다.
빈:하다	[동]	변하다.
빌다*	[동]	두손 모아 빌다.
빌리다	[동]	빌리다.
빌어묵다	[동]	빌어먹다.
빗기다	[동]	'빗다'의 사동.
빗다	[동]	빗다.
빠지다1	[동]	빠지다. ~빻다.
빠지다2	[보동]	빠지다 深化
빠치다	[동]	'빠지다1'의 사동.
빡빡하다	[형]	빡빡하다.
빨르다	[형]	빠르다.
빻다	[동]	→빠지다1.
빼:다	[동]	빼다.
뺏:기다	[동]	'뺏다'의 피동.
뺏:다	[동]	뺏다.
뺏뺏하다	[형]	빼빼 하다.
빼시다	[형]	빼세다.
뻗다	[동]	뻗다.
뻗:대다	[동]	뻗대다.
뻗치다	[동]	뻗치다.
뻣뻣하다	[형]	뻣뻣하다.
뻰:하다	[형]	뻔하다 明.
뽀숙다	[동]	→뽀슥다.
뽀슥다	[동]	쌀가루를 빻다. ~뽀숙다.
뽀치다	[동]	음식을 바치다(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다).
뽈다*1	[동]	젖을 빨다.

뿔다*2	[동]	빨래를 빨다 .
뿔리다	[동]	노름에서 돈을 잃다.
뽑다	[동]	뽑다.
뾔쪽하다	[형]	뾰족하다.
뿌숙다	[동]	→뿌슥다.
뿌슥다	[동]	부수다. ~뿌숙다.
뿔르다	[동]	부러뜨리다.
삐:다	[동]	삐다.
삐대다	[동]	삐대다.
삐리다	[동]	뿌리다.
삐:틀다	[동]	→비:틀다.
뻙:하다	[형]	빨갛다.
사구다	[동]	사귀다.
사:납다 !ㅂ	[형]	방해되는 것이 있어 하기가 쉽지 않다.
사다	[동]	사다.
사루다	[동]	불사르다.
사치시럽다 !ㅂ	[형]	사치스럽다.
삭다	[동]	삭다.
삭후다	[동]	'싹다'의 사동.
살다*	[동]	살다.
삼다*	[동]	모시를 삼다.
새:다1	[동]	날이 새다.
새:다2	[동]	물이 새다.
새:다3	[동]	밤을 새우다.
새리다	[동]	새끼줄을 사리다.
생각하다	[동]	생각하다.
생객히다	[동]	'생각하다'의 피동.
생기다	[동]	생기다.
생하다	[형]	싱싱하다 生.
서끄다	[동]	→섞다.
서늘하다	[형]	서늘하다.
서들다	[동]	서두르다.
서:뜰다	[형]	서투르다.
서:럽다 !ㅂ	[형]	서럽다.

서운하다	[형]	서운하다.
섞다	[동]	섞다. ~서끄다.
설다*	[동]	설다.
성가시다	[형]	성가시다.
성하다	[형]	성하다 穩全.
세리다	[동]	김이 서리다.
세우다	[동]	'스다2'의 사동.
섞이다	[동]	'섞다'의 피동.
소꾸다	[동]	솎다.
속다	[동]	속다.
솟다	[동]	솟다.
쇠:다1	[동]	나물이 쇠다.
쇠:다2	[동]	설을 쇠다.
속히다	[동]	'속다'의 사동.
숨다*	[동]	숨다.
쉴찬하다	[형]	정도가 상당하다.
쉴:하다	[형]	수월하다.
쉬:다1	[동]	음식이 쉬다.
쉬:다2	[동]	목이 쉬다.
쉬:다2	[동]	일을 쉬다.
쉬:다3	[동]	숨을 쉬다.
쉭이다	[동]	숙이다.
쉼키다	[동]	'숨다'의 사동.
쉽:다 !ㅂ	[형]	쉽다.
스다1	[형]	시다.
스다2	[동]	서다.
시기다	[동]	시키다.
시끄럽다 !ㅂ	[형]	시끄럽다.
시:다1	[동]	수를 세다.
시:다2	[형]	힘이 세다.
시들다	[동]	시들다.
시분글다	[동]	시부렁거리다.
시:쁘다	[형]	얕보아도 될 만큼 만만하다. ~시:프다.
시시하다	[형]	시시하다.

시언하다	[형]	시원하다.
시치다	[동]	씻다.
시:프다	[형]	→시:쁘다.
식다	[동]	식다.
식후다	[동]	'식다'의 사동.
신끼다	[동]	'신다'의 사동.
신다*	[동]	신다.
실접다 !ㅂ	[형]	슬겁다.
실하다	[형]	실하다 實.
싫다	[형]	싫다.
싫다*	[동]	싣다. ~싫다*.
싫다*	[동]	→싫다*
싶다	[보형]	싶다 推測.
싸:납다 !ㅂ	[형]	성질이 사납다. ~싸:넙다.
싸:넙다 !ㅂ	[형]	→싸:납다.
싸다1	[형]	값이 싸다.
싸다2	[동]	똥을 싸다.
싸:다1	[동]	보따리를 싸다.
싹다	[동]	김치가 익다.
쌂다*	[동]	삶다.
쌓:다	[보동]	대다 反復
쌔이다	[동]	어울리다. 調和.
쌨:다	[형]	흔하다.
쌩쌩하다	[형]	쌩쌩하다, 멀쩡하다.
썩다	[동]	썩다.
썩후다	[동]	'썩다'의 사동.
썰:다	[동]	썰다.
쎅이다	[동]	속을 썩이다.
쎈찬하다	[형]	마음에 걸려 꺼림칙하다.
쏘우다1	[동]	→쑣다1.
쏘우다2	[동]	→쑣다2.
쏟다	[동]	쏟다.
쏟히다	[동]	'쏟다'의 피동.
쑣다1	[동]	담장을 쌓다. ~쏘우다1.

쏳다2	[동]	벌이 쏘다. ~쏘우다2.
쐬이다1	[동]	바람을 쐬다.
쐬이다2	[동]	'쏳다2'의 피동.
쒸시다	[동]	쑤시다. ~쒸시다.
쓰다1	[형]	맛이 쓰다.
쓰다2	[동]	글을 쓰다.
쓰다3	[동]	모자를 쓰다.
쓰다4	[동]	손을 쓰다.
쓰다5	[동]	묘를 쓰다.
쓰다6	[동]	죽을 쑤다.
쓰다7	[동]	불을 켜다.
쓰다8	[동]	물을 켜다.
쓰다9	[보동]	-아야 하다 義務.
쓸다*1	[동]	쉬를 슬다.
쓸다*2	[동]	방을 쓸다.
씨다듬다	[동]	쓰다듬다.
씨러지다	[동]	쓰러지다.
씨럽다 !ㅂ	[형]	쓰리다.
씨언하다	[형]	시원하다.
씨이다	[동]	'쓰다8'의 피동.
씰다*	[동]	쓰러뜨리다.
씹다	[동]	씹다.
아깝다 !ㅂ	[형]	아깝다.
아니다	[형]	아니다.
아숩다 !ㅂ	[형]	아쉽다.
아집찬하다	[형]	미안할 정도로 고맙다.
아프다	[형]	아프다.
안치다	[동]	밥을 안치다.
안하다1	[형]	않다.
안하다2	[동]	않다.
앇다	[동]	→앙ㄱ다.
알다*	[동]	알다.
알:맞다	[형]	알맞다.
앓다	[동]	앓다.

앙ㄱ다	[동]	앉다. ~앉다 ~앙ㅈ다.
앙ㅈ다	[동]	→앙ㄱ다.
앙치다	[동]	'앙ㄱ다'의 사동.
앙퉁하다	[형]	안타깝다.
애끼다1	[동]	아끼다.
애끼다2	[동]	앗기다.
애리다	[동]	아리다.
앵기다1	[동]	나쁜 짓을 하다가 잡히다.
앵기다2	[동]	닭한테 달걀을 안기다.
야물다	[형]	야물다.
야새보다	[동]	엿보다.
야우다	[동]	야위다.
야프다	[형]	얕다, 낮다.
얇다*	[형]	얇다.
얇실하다	[형]	얄찍하다.
얌:전하다	[형]	얌전하다.
어긋나다	[동]	어긋나다.
어끌다	[동]	엎지르다.
어둑어둑하다	[형]	어둑어둑하다.
어둡다 !ㅂ	[형]	어둡다.
어리하다	[형]	어리석다.
어중간하다	[형]	어중간하다.
어지럽다 !ㅂ	[형]	어지럽다.
어질다	[동]	어지르다.
어짜다1	[형]	어떻다. ~어차다1.
어짜다2	[동]	어찌하다. ~어차다2.
어차다1	[형]	→어짜다1.
어차다2	[동]	→어짜다2.
어푸러지다	[동]	엎어지다.
어프다	[동]	엎다.
언:다	[동]	얹다.
얼다*	[동]	얼다.
얼멍얼멍하다	[형]	얼멍얼멍하다.
얽다	[동]	얼굴이 얽다.

업다	[동]	업다.
없:다	[형]	없다.
엎지다	[동]	엎디다.
에렵다 !ㅂ	[형]	어렵다.
에리다	[형]	나이가 어리다.
에우다	[동]	에우다(둘러싸다).
에징간하다	[형]	어지간하다.
엥간찬하다	[형]	어이없다.
엥간하다	[형]	엔간하다.
엥기다	[동]	엉기다.
여:렵다 !ㅂ	[형]	열없다.
여물다	[동]	여물다.
열다*1	[동]	열매가 열다.
열다*2	[동]	문을 열다.
영ㄲ다	[동]	엮다. ~영끄다.
영ㄱ다	[동]	얹다.
영끄다	[동]	→영ㄲ다.
영락없다	[형]	영락없다.
영치다	[동]	'영ㄱ다'의 피동.
옇다	[동]	넣다.
예우다	[동]	여의다(결혼시키다).
오그라지다	[동]	오그라지다.
오글씨다	[동]	오그리다. ~오글치다.
오글치다	[동]	→오글씨다.
오다 !오	[동]	오다.
오직하다	[형]	오죽하다.
올라가다	[동]	올라가다.
올라오다	[동]	올라오다. ~올로오다.
올로오다	[동]	→올라오다.
올르다1	[동]	오르다.
올르다2	[동]	병이 옮다.
올리다	[동]	'올르다1'의 사동.
옳다	[형]	옳다.
옹:삭하다	[형]	옹색하다.

외우다	[동]	외우다.
욂기다	[동]	옮기다.
욉뚤다	[형]	외지다.
요라다1 !아	[형]	요렇다. ~욜다1.
요라다2 !아	[동]	요리하다. ~욜다2.
요:하다	[형]	괴상하다.
욜다1	[형]	→요라다1.
욜다2	[동]	→요라다2.
용:하다1	[형]	점쟁이가 용하다.
용:하다2	[형]	성격이 용하다 庸.
우선하다	[형]	우선하다(병이 좀 나은 듯하다).
우:섭다 !ㅂ	[형]	우습다.
우틉다 !ㅂ	[형]	위태로워 보여 마음이 불안하다.
울과내다	[동]	옭아내다.
울다*	[동]	울다.
위기다1	[동]	우기다.
위기다2	[동]	욱이다.
윘다*	[동]	웃다.
웅큼하다	[형]	엉큼하다.
이기다1	[동]	싸움에 이기다.
이기다2	[동]	반죽을 이기다.
이다1	[형]	이다 指定詞.
이다2 !이	[동]	머리에 이다.
이:다	[동]	지붕을 이다.
이라다1 !아	[형]	이렇다. ~일다1.
이라다2 !아	[동]	이리하다. ~일다2.
이루다1	[동]	이루다. 불을 일으키다.
이루다2	[동]	물에 우리다.
이르다 !르	[동]	이르다 告.
이:무렵다 !ㅂ	[형]	임의롭다.
이:삐다	[형]	예쁘다.
이:상하다	[형]	이상하다.
익다	[동]	익다.
익후다	[동]	'익다'의 사동.

인나다	[동]	→일어나다.
인내끼다	[동]	→일어내끼다.
일다*1	[동]	바람이 일다.
일다*2	[동]	쌀을 일다.
일다1	[형]	→이라다1.
일다2	[동]	→이라다2.
일어나다	[동]	일어나다. ~인나다.
일어내끼다	[동]	'일어나다'의 사동. ~인내끼다.
읽다	[동]	읽다.
잃다*	[동]	잃다.
입다	[동]	입다.
입히다	[동]	'입다'의 사동.
잇다*	[동]	잇다.
있다1	[형]	있다.
있다2	[동]	있다.
잉깨지다	[동]	으깨어지다.
잊다	[동]	잊다.
자그럽다 !ㅂ	[형]	청각, 촉각 등에 심하게 거슬려 불쾌하다.
자다	[동]	자다.
자물씨다	[동]	정신을 잃다.
자빠지다	[동]	자빠지다.
자빨씨다	[동]	'자빠지다'의 사동. ~자빨치다.
자빨치다	[동]	→자빨씨다.
자:시다	[동]	자시다 食.
자울다	[동]	졸음을 졸다.
자장궂다	[형]	아이가 장난이 심하다.
작:다	[형]	작다, 적다. ~짝:다.
잘다	[형]	잘다.
잘럽다 !ㅂ	[형]	→짤럽다.
잘잘하다	[형]	자잘하다.
잡다1	[동]	잡다.
잡다2 !ㅂ	[보형]	싶다 願. ~잪다.
잡수다	[동]	잡수다.
잡어댕기다	[동]	잡아당기다.

잡지다	[동]	잡죄다 促
장구다	[동]	문을 잠그다.
장:하다	[형]	장하다.
자치다1	[동]	몸을 뒤로 잦히다.
자치다2	[보동]	대다 反復
잖다	[보형]	→잡다2.
재:다1	[동]	뽐내다.
재:다2	[동]	길이를 재다.
재미지다	[형]	재미지다.
잽히다1	[동]	'잡다1'의 피동.
잽히다2	[동]	'잡다1'의 사동.
쟁기다1	[동]	물에 잠기다.
쟁기다2	[동]	목이 잠기다.
쟁기다3	[동]	→쟁이다.
쟁기다4	[동]	'장구다'의 피동.
쟁이다	[동]	쟁이다. ~쟁기다3.
저라다1 !아	[형]	저렇다. ~절다1.
저라다2 !아	[동]	저리하다. ~절다2.
저찔르다	[동]	→접질르다.
적시다	[동]	적시다.
줘다	[동]	겪다.
전디다	[동]	견디다.
절다1	[형]	→저라다1.
절다2	[동]	→저라다2.
절다*	[동]	다리를 절다.
절리다	[동]	결리다.
젊다*	[형]	젊다.
점:잔하다	[형]	점잖다.
접질르다	[동]	다리를 접질리다. ~저찔르다.
접치다1	[동]	접다.
접치다2	[동]	'접치다1'의 피동.
젓다*	[동]	젓다.
젖다	[동]	젖다.
제금나다	[동]	분가하다 分家

제기다	[동]	팔꿈치로 제기다.
제끼다	[동]	젖히다.
제렵다 !ㅂ	[형]	발이 저리다.
제리다1	[형]	발이 저리다.
제리다2	[동]	바구니를 겯다 編
제리다3	[동]	배추를 절이다.
제우다	[동]	질리다, 지겹게 느끼다.
조그막하다	[형]	조그마하다. ~쪼그막하다.
조스다	[동]	쪼다.
조용하다	[형]	조용하다.
조:찬하다	[형]	볼품없다, 썩 좋잖다.
좁다	[형]	좁다.
좋:다 !ㅎ	[형]	좋다.
좋아베다	[동]	좋아 뵈다.
죄이다	[동]	죄다.
주다	[동]	주다.
주:다	[동]	옷을 깁다.
주렁주렁하다	[형]	주렁주렁하다.
주물르다	[동]	주무르다.
주저앉다	[동]	→주저앙ㄱ다.
주저앙ㄱ다	[동]	주저앉다. ~주저앙ㅈ다 ~주저앉다.
주저앙ㅈ다	[동]	→주저앙ㄱ다.
주저앙치다	[동]	'주저앙ㄱ다'의 사동.
죽다	[동]	죽다.
줏다*	[동]	줍다.
줏어생기다	[동]	주워섬기다.
중:하다	[형]	중요하다 重
쥐:다1	[동]	손으로 쥐다.
쥐:다2	[동]	고되서 입술이 부르트다.
쥑이다	[동]	'죽다'의 사동.
지:깨다	[동]	기대다. ~지:대다.
지다1	[동]	장마가 지다.
지다2	[동]	때가 지다.
지다3	[동]	싸움에 지다.

지다4	[동]	짐을 지다.
지달르다	[동]	기다리다.
지:대다	[동]	→지:깨다.
지댄하다	[형]	기다랗다.
지지다	[동]	지지다.
지키다	[동]	지키다.
지프다1	[형]	깊다. →짚다1.
지프다2	[동]	짚다. →짚다2.
지:하다	[동]	빼다 除.
진찬하다	[형]	엄청나다.
진하다	[형]	진하다.
질개하다	[동]	음식을 즐겨하다.
질다*	[형]	길다.
질다1	[형]	질다.
질다2	[동]	길게 자라다.
질르다	[동]	긷다 汲.
질어나다	[동]	길게 자라나다.
질우다	[동]	'질다*'의 사동.
질쭉하다	[형]	길쭉하다.
짊기다	[동]	지게에 짐을 올리다.
짊어미다	[동]	짊어메다.
짊어지다	[동]	짊어지다.
집다	[동]	집다.
짓다	[동]	깃다 茂.
짓다*	[동]	짖다.
징하다	[형]	매우 심하다.
짚다1	[형]	깊다. ~지프다1.
짚다2	[동]	짚다. ~지프다2.
짛다	[동]	짓다 作.
짜다	[형]	맛이 짜다.
짜:다	[동]	베를 짜다.
짜잔하다	[형]	볼품없다, 시시하다.
짝:다	[형]	→작:다.
짠:하다	[형]	불쌍하다.

짤럽다 !ㅂ	[형]	짧다. ~잘럽다.
짬:매다	[동]	묶다. ~쨈:매다 ~쨈:미다.
짭짭하다	[형]	재미가 없어 심심하다.
짱짱하다	[형]	짱짱하다.
째:다	[동]	종이를 째다.
째이다	[동]	신발이 째다.
쨈:매다	[동]	→짬:매다.
쨈:미다	[동]	→짬:매다.
쪼개다	[동]	쪼개다.
쪼그막하다	[형]	→조그막하다.
쪼스다	[동]	쪼다.
쪼지다	[동]	상투를 틀다.
쪼치다	[동]	쫓다.
쫑:긋하다	[형]	귀가 쫑긋하다.
쬐:깐하다	[형]	조그마하다.
쬐이다	[동]	불을 쬐다.
쮜시다	[동]	→쒸시다.
찌글씨다	[동]	기울이다.
찌끌다	[동]	물을 끼얹다.
찌다1	[동]	살이 찌다.
찌다2	[동]	감자를 찌다.
찌다3	[동]	대나무를 찌다.
찌다4	[동]	안개가 끼다.
찌다5	[동]	장갑을 끼다.
찌르다 !르	[동]	찌르다.
찌우르다 !르	[동]	기울다. ~찌울르다 ~찌울다.
찌울다	[동]	→찌우르다.
찌울르다	[동]	→찌우르다.
찍다1	[동]	찍다.
찍다2	[동]	찧다.
찍히다	[동]	'찍다1'의 피동.
찔벅글다	[동]	주의를 끌기 위해 쿡쿡 찔러대다.
찔벅대다	[동]	주의를 끌기 위해 쿡쿡 찔러대다.
찕다	[형]	질기다.

찡구다	[동]	끼우다.
찡글다	[동]	찡그리다.
찡기다	[동]	'찡구다'의 피동.
찢다	[동]	찢다.
차가다	[동]	독수리가 차가다.
차다1	[형]	가득 차다.
차다2	[형]	날씨가 차다.
차다3	[동]	발로 차다.
차다4	[동]	이름표를 차다 佩
착실하다	[형]	착실하다.
착하다	[형]	착하다.
찰지다	[형]	차지다.
찾다	[동]	찾다.
채:다1	[동]	키를 채다.
채:다2	[동]	눈치를 채다.
채리다	[동]	차리다.
채우다	[동]	'차다1'의 사동.
채이다	[동]	'차다3'의 피동.
처지다	[동]	처지다.
처지르다 !르	[동]	종이를 불에 처지르다.
척척하다	[형]	척척하다.
체:다보다	[동]	쳐다보다.
쳐들다	[동]	쳐들다.
추접하다	[형]	추접하다.
춥다 !ㅂ	[형]	춥다.
춰깨들다	[동]	추켜들다.
취리다	[동]	추리다 選.
취지다	[형]	추지다 濕
취해다1	[동]	술이 취하다.
취해다2	[동]	돈을 꾸다.
췩이다	[동]	목을 축이다.
치다1	[동]	번개가 치다.
치다2	[동]	팽이를 치다.
치다3	[동]	포장을 치다.

치다4	[동]	식초를 치다.
치다5	[동]	가마니를 치다.
치다6	[동]	새끼를 치다.
치다7	[동]	나무를 치다 伐.
치다8	[동]	보리를 치다 脫穀.
치다9	[동]	도랑을 치다.
치다10	[동]	춤을 추다.
치우다	[동]	치우다.
치이다1	[동]	덫에 걸리다, 차에 치이다.
치이다2	[동]	값이 얼마씩 치이다.
칠하다	[동]	칠하다.
캄:캄하다	[형]	캄캄하다.
캐다	[동]	캐다.
콜로그르다	[동]	콜록거리다.
크다1	[형]	크다 大.
크다2	[동]	크다 長.
크댄하다	[형]	커다랗다.
키우다	[동]	'크다1, 크다2'의 사동.
타다1	[동]	차를 타다.
타다2	[동]	설탕물을 타다.
타다3	[동]	가리마를 타다.
타다4	[동]	상을 타다.
타다5	[동]	더위를 타다.
타다6	[동]	무명을 타다.
타다7	[동]	콩을 맷돌에 타다.
타지다	[동]	불타다.
타추다	[동]	→타치다.
타치다	[동]	'타지다'의 사동. ~타추다.
탁하다	[동]	닮다.
탐브다	[형]	두툼하다.
탐지다	[형]	두툼하다.
태우다1	[동]	불태우다.
태우다2	[동]	'타다1'의 사동.
터지다	[동]	터지다.

터치다	[동]	'터지다'의 사동.
털다*	[동]	털다.
텀치다	[동]	움켜서 잡아채다.
텡기다	[동]	→튕기다.
토하다	[동]	토하다.
통하다	[동]	통하다
튕기다	[동]	퉁기다. ~텡기다.
퉁겁다 !ㅂ	[형]	두껍다.
퉁지다	[형]	두껍다.
튀미하다	[형]	머리가 투미하다 愚.
트다	[동]	손이 트다.
틀다*	[동]	틀다.
틀리다1	[형]	다르다.
틀리다2	[동]	틀리다.
틉틉하다	[형]	국물이 바특하다.
파다	[동]	파다.
파하다	[동]	파하다 罷.
패다	[동]	이삭이 패다.
패:다1	[동]	사람을 패다.
패:다2	[동]	장작을 패다.
패:럽다 !ㅂ	[형]	파리하다.
패이다	[동]	'파다'의 피동.
패트다	[동]	→배트다.
펄:하다	[형]	파랗다.
펜하다	[형]	편하다.
포개다	[동]	포개다.
폴다*	[동]	팔다.
푸다	[동]	푸다.
풀다*	[동]	풀다.
풀리다	[동]	'풀다*'의 피동.
품다*1	[동]	뿜다.
품다*2	[동]	알을 품다.
품다*3	[동]	품칼로 품다.
피:다1	[동]	꽃이 피다.

피:다2	[동]	불이 피다 煙
피:다3	[동]	펴다.
피우다	[동]	'피다2'의 사동.
피하다	[동]	피하다.
필:하다	[형]	파랗다.
핑기다	[동]	물을 뿌리다.
하다1	[동]	하다 爲.
하다2	[보형]	하다.
하:야다 !아	[형]	하얗다.
해:롭다 !ㅂ	[형]	해롭다.
해:보다	[동]	대들다.
허치다	[동]	흩어뿌리다.
헤:꼽하다	[형]	가볍다.
헤비다	[동]	허비다.
홀:기다	[동]	달래다, 꾀다.
홀리다	[동]	홀리다.
홀트다	[동]	→홅다.
홅다	[동]	탈곡하다. ~홀트다.
환:하다	[형]	환하다.
활트다	[동]	→홡다.
홡다	[동]	홡다. ~활트다.
후:다	[동]	대나무를 휘다.
훌트다	[동]	→훑다.
훑다	[동]	훑다. ~훌트다.
훤:하다	[형]	훤하다.
흐다	[형]	희다.
흑:하다	[형]	하얗다.
흘르다	[동]	흐르다.
흘리다	[동]	'흐르다'의 사동.
훔치다	[동]	걸레로 훔치다.
흠:하다	[형]	상태가 아주 나쁘다 險.

찾아보기

〔ㄱ〕

强度位階 100
强勢 24, 172, 173
强調 175, 186
강조강세 176, 177
격조사 57
警戒文 191
경구개 22
경음 46
硬音化 52, 53, 66, 94, 100, 101, 144, 145, 201
고설성 39
高興方言 12, 14
관형사 178
給與順序 164
氣息群 181
기저음소 98
基底形 59, 74, 76, 103
基底形條件 104
緊張音 46

〔ㄴ〕

ㄴ添加 201
內在的 規則順 163
노년층 15
농촌 15
'는'脫落 88, 99, 143

〔ㄷ〕

ㄷ脫落 52, 54
多重基底形 64, 84
多形語幹 85
多形助詞 · 57
短母音化規則 76
단어경계 199
단어내부 199
單語 次元 14, 40
單語形成 17
短音化 92, 110, 118, 155, 182, 183
短音化規則 84
單形助詞 57
대조 187
同母音縮約 52, 96, 115, 118, 129, 134, 147, 155
同母音脫落 52, 112

〔ㄹ〕

ㄹ脫落規則 124
'르'다형어간 108

〔ㅁ〕

매개모음어미 69
命令文 191
名詞形語尾 150
母音連結制約 50

母音目錄 25
母音語尾 69, 81
母音連鎖 48
母音調和規則 72
母音衝突 50, 61, 146
無關 163
無順條件 163
문말조사 57
文法化 75, 90
文體法 190

〔ㅂ〕

바꿔쓰기규칙 182
半母音 31
半母音添加 52, 67
반모음탈락 52
반모음화 52
反復副詞 186
反復形容詞 180
反響疑問文 196
發話 167
發話 次元 14, 40
발화체 167
발화행위 167
방언 맞춤법 17
方言學的인 관점 11
변별적 기능 199
변별적 장음 182
報償的 長母音化規則 76
報償的 長音化 91, 96, 109, 118, 121, 129, 130, 134, 136, 137, 155
보조사 57
補助用言 177
普遍性 139
副詞 178
否定副詞 '못' 179
否定副詞 '안' 179
不定稱 188
鼻母音 21, 23
비모음화 21
非語頭 25
비어두 단음화 130, 134
비어두 y탈락1 122, 153
비어두 y탈락2 122, 153
비음뒤 경음화 95, 145
鼻音性 21, 23
鼻音化 52, 54, 66, 143, 199, 200
非前舌母音 36
빈칸 38, 45

〔ㅅ〕

사실의문 196
三重母音 33
색채형용사 180, 185
先語末語尾 '-으꺼이-' 116, 122, 139, 146
先語末語尾 '-으시-' 122, 146, 152, 153
說明疑問文 192
成節性 35, 48
聲調 168
聲調型 77, 84, 114
屬格助詞 60

修辭疑問文 192, 197
修辭的인 부정의문문 179

〔ㅇ〕

'아, 어'전설화 141, 146
'아, 어'탈락 142, 145
'아'전설화 118, 134, 141
'아'탈락 115, 142
'-아'활용형 26, 45, 49
'-아 갖고'의 축약 91
'안'否定形 49
約束文 191
讓步의 意味 189
兩脣音 43
어간말 ㅎ탈락 96, 99, 131, 140
語幹末 喉音脫落 140, 144, 147
어간말 ㆆ탈락 99, 131, 140
어근형성접미사 '-디-' 180
어두 y탈락 96, 121, 154
'어'전설화 96, 121, 137, 141
어촌 16
'어'탈락 116, 142
抑揚 173
軟口蓋 24
連音 50, 199
豫測現象 173
움라우트 29, 52, 66, 81, 150
'워'축약 111, 148
圓脣母音化 52, 68, 89, 94, 95, 99, 148
원순모음화1 104
원순모음화2 149
圓脣性 37, 39
유기음 46
유기음화 52, 55, 96, 101, 145
流動的 上聲語幹 85
有聲音化 144
流音化 54, 52, 143, 200
유추적 평준화 113, 132
'으'동화 96, 146
'으'탈락 52, 106, 131, 145
'으'탈락규칙 59, 76, 87, 103, 124
'으'擴大形 87, 99
'-을'冠形形 뒤 硬音化 201
音聲轉寫 17
음소배열론 41
音素配列的인 制約 38
音素配列制約 41
音素轉寫 17
음운론적 强度 39
음운론적 구 176
音韻論的 單語 167, 180
音韻變化 26
音韻現象別 記述 13
音長 40, 170
音長交替 77, 82, 125
音節境界 調整 현상 50
音節構造制約 39
音節分界 46
音節成分 41
音調句 182, 187, 191
音調句境界 176, 200
音調表示 168

音調型 48, 169
疑問詞 188
疑心疑問文 193, 196
二重母音 31, 44, 48
二重母音化 45, 50
異化 63
一般言語學的인 관점 11

〔ㅈ〕

自然性 139
自由變異形 58, 78
子音群單純化 100, 144
자음군단순화 52
자음군의 자음탈락 144
자음동화 199
子音連結制約 51, 70
子音目錄 19
子音性 35
자음앞 y탈락 138, 154
子音語尾 69, 82
子音接變 52, 53
子音種類 170
子音衝突 51, 61
子音脫落 100
장음 24, 45
再構 62
再構造化 97
전남방언 14
前舌母音化 106
前舌母音化 52, 93
前舌性 21, 39, 117
접변 52
접속조사 57
'정도높임'의 뉘앙스 184
정도성의 의미 184
제한적 관계절 175
調音位置同化 52, 54, 66, 200
終聲 41
終聲制約 43
重複障碍音 46
중복장애음감축 47
중복장애음화 47
中聲 41
中聲制約 43
中和 28, 37, 53
'지시영역넓힘'의 뉘앙스 184
遲延現象 173
지정사어간 121

〔ㅊ〕

請誘文 191
初聲 41
初聲制約 42
焦點 189
初中聲連結의 制約 43
추상음소 98

〔ㅌ〕

통사론적 단어 167
通時音韻論 207

〔ㅍ〕

破擦音 44
判定疑問文 194
平敍文 191
평순성 39
평탄억양 24
平閉鎖音化 52, 53, 65
閉鎖性 21, 23
閉鎖의 持續時間 47
閉音節連結制約 50
표면음소 98
표현적(expressive) 자질 167
표현적 기능 199
表現的 長音 179

〔ㅎ〕

ㅎ縮約 54, 66, 101, 140, 199, 200
ㅎ탈락 52
ㅎ脫落規則 76
하강억양 24, 169
하강이중모음 138
'하다'形容詞 179, 185
合流 26, 28
許諾文 191
형상적(configurative) 자질 167
형상적 기능 199
形式名詞 176
形容詞 130
형태분석 55
形態素構造制約 41
형태음소 138
化石 62
化合基底形 109
환경별 기술 13
滑音體系 34
後舌性 23
후음축약 140, 144
休止 181, 200

〔ㆆ〕

ㆆ縮約 101, 140

〔영문〕

w半母音化 109, 111, 130, 136, 141, 151, 155
w반모음화1 96, 129, 141
w반모음화2 141
w반모음화3 118, 141
w반모음화4 121, 141
w탈락 110, 112
w탈락1 152
w탈락2 152
y半母音化 96, 121, 137, 152, 155

저자 약력

- 전남 고흥 출생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1987)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1989)
-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1994)
-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 역임
- 현재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저서로

『국어음운론 개설』(1996)

논문으로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1995)
「<귀축도>의 운율구조와 통사구조」(1996)
「서남방언 문법자료」(1998)
등이 있음.



고흥방언 음

초판 1쇄 인쇄 ---------- 1998년 7월 20일
초판 1쇄 발행 ---------- 1998년 7월 25일

지은이 ---------- 배주채
펴낸이 ---------- 지현구
펴낸곳 ---------- 태학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42
전화 (02) 584-1740(代)
팩스 (02) 584-1730
PC통신ID(천리안 · 하이텔) thaehak4
등록 제2-284호(1980.1.25)

ISBN 89-7626-350-2 93710

값 10,000원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國語學叢書 目錄

❶ 未 刊
❷ 未 刊
❸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❹ 金完鎭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❺ 鄭然粲 慶尙道方言聲調研究
❻ 남기심 국어완형보문법 연구
❼ 未 刊
❽ 宋 敏 前期近代國語 音韻論研究
❾ Ramsey, S.R.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❿ 蔡 琬 國語 語順의 研究
⓫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⓬ 李珖鎬 國語 格助詞 '을/를'의 研究
⓭ 徐泰龍 國語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
⓮ 李南淳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⓯ 金興洙 현대국어 심리동사 구문 연구
⓰ 金光海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⓱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⓲ 宋喆儀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
⓳ 白斗鉉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⓴ 郭忠求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㉑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㉒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㉓ 鄭在永 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㉔ 韓東完 國語의 時制 研究
㉕ 鄭承喆 濟州道方言의 通時音韻論
㉖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근간)
㉗ 최동주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㉘ 신지연 국어 지시용언 연구
㉙ 權仁瀚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근간)
㉚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㉛ 이은경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근간)
㉜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㉝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